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331-1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일부개정 포함)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 등 학 교



목 차



I 교육과정의 이해 1

1. 교육과정의 개념 3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7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2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7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4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9

1. 추구하는 인간상 31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7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44

III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9

1. 기본 사항 51
2.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59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94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125

목 차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29

1. 기본 사항 131
2. 교수·학습 147
3. 평가 155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160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65

1. 국가 수준의 지원 167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172

부 록 189

- <부록 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91
- <부록 II>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260
- <부록 I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278
- <부록 IV> 실무 과목과 NCS 세분류 관계의 변화 내역 351

참고문헌 365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敎育課程)이라는 말은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 보면 교육과정은 전달하려는 지식 또는 그 구성단위의 한 형태인 교과들의 체계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교육을 인격의 함양 또는 바람직한 능력, 특성들의 형성으로 보면 교육과정은 그러한 인격 또는 능력, 특성 형성에 최적한 학생들의 경험들을 뜻한다. 한편으로 교육과정은 교과 또는 경험들의 계획에 초점을 두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계획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 결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¹⁾

1) 교육과정의 명칭은 7차 교육과정까지는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으나,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등과 같이 개정년도를 밝혀 명명하였다.

‘교육과정’의 개념 정의가 교육과정 문서에 처음 제시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54.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제6차 교육과정²⁾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령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절충하고 종합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³⁾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도 견지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설계도이며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3)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에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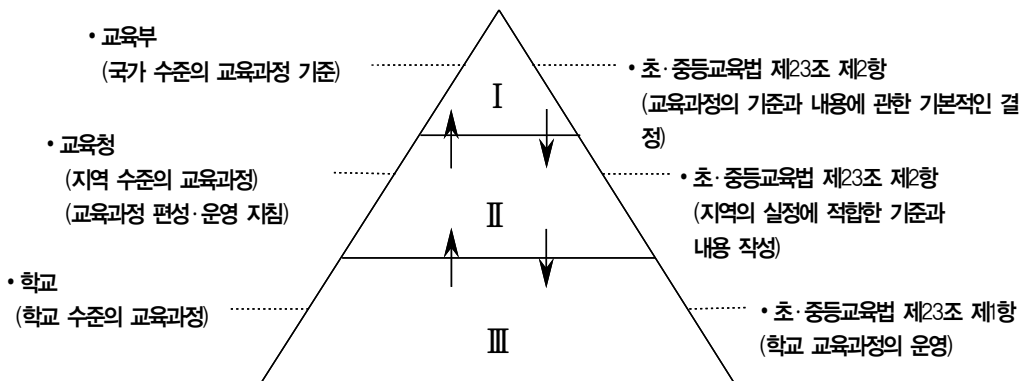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인간상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

1)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수준 분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그것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결정 과정이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정 실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 방식은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지역(시·도 교육청)이 주도하는 방식, 학교와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까지 주로 교육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지역화·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안 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 II’가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 III’이 있다. 특히 I과 II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교육과정의 수준

출처: 이미숙 외(2013: 55)

2)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⁴⁾에 입각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동시에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의 준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

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081호, 일부개정 2020. 3. 24.)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제시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 수준 교육과정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위로부터 부여 받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자로도 확대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자 개발자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므로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학생·교원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설비, 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기타 법령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였다.

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1)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서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2) 교육과정 및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고등학교의 기본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3)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서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제45조(수

업일수), 제46조(학급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간) 등으로 정하고 있다.

4) 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5) 학습 부진아 교육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수업연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46조에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7) 교과용 도서의 사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8)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9)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학생 자치 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12)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그 관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기타 법령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학교보건법, 저작권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적 근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주요 사항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헌법 제31조 ①, ②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②
국가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법적 기준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② 초·중등교육법 제48조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5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①, ② 초·중등교육법 제48조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학사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
학급편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휴업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수업 운영 방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48조
체험학습의 수업일수 인정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⑤
진급과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고등학교 수업연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46조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교과용 도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장학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학생 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교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평가 및 평가결과기록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일반적으로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기, 그리고 제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별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⁵⁾

8·15 광복에 따라 각급 학교에 적용할 교과목과 수업 시간을 정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다. 일제 강점 말기의 교과목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본어·일본 역사 대신에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 교육과 국사 교육을 강조하였다. 수업시수는 1주일에 32~36시간으로 1일 평균 5~6시간 정도이며 교과별로는 국어가 주당 5~7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나. 교수요목기(1946)

광복 직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어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중등학교의 경우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수요목을 포함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제정되었다.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공민·역사·지리를 통합한 ‘사회 생활과’가 등장한 점, 체육과 보전이 합해져서 체육·보전이 된 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었다.

다. 제1차 교육과정(1954)

1948년 정부수립과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요구가 높아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5)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법령으로 고시되고 몇 년 후에 학교에 적용된다. 이하 각 개정기의 연도는 총론의 고시 연도를 가리킨다.

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한다. 미국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사조의 영향으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처음으로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반공·도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라. 제2차 교육과정(1963)

제1차 교육과정 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그동안 급격히 변동한 국제 정세로 인한 사회 생활의 변화와 문화의 발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교수요목기부터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반영되어 온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또한,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교과과정이라고 하지 않고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단위제를 도입하고⁶⁾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자연 등의 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단위 배당 기준은 각 과목별로 3년간 이수할 총 단위 수를 제시하고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임을 밝히고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제3차 교육과정(1973)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이래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교과내의 과목이던 국민윤리와 국사가 교과로 독립되었으며, 국민윤리는 교과로 신설되면서 국어과 앞에 선임 교과로 편제되었다. 또한, 1957년 소련의 유인 우주선 스푸트니크(Sputnik)호 발사로 인한 충격 이후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적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각 교과에서는 교과가 기초하는 학문의 기본 개념을 중시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점차 심화·확대해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를 취하며,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다.

6) 교육과정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거하되,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바. 제4차 교육과정(1981)

제5공화국의 출범과 1980년의 7·30 교육 개혁 조치 등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위탁하여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자유 선택 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이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별로 각각 편제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하였다.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204~216단위로 축소하고 1단위는 1시간씩 18주 이수하던 것을 17주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사. 제5차 교육과정(1987)

이전 교육과정 시행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정보 통신 기술 이용의 보편화,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종전의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바꾸고 최소 2단위를 배정하여 교양 선택 교과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이수 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계열, 예술 계열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특별 활동에 학급 활동을 신설하여 강조하였다.

아. 제6차 교육과정(1992)

21세기를 대비한 세계적인 교육 개혁의 추세에 따라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교육과정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여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과정별 선택 과목은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였다.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이수 단위를 204단위로 조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2과목 내외로 감축하였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을 신설하였다.

자. 제7차 교육과정(1997)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초·중·고의 교육과정을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의 공통 필수 교과를 배우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과의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 특별 활동 외에 제3의 영역으로 재량 활동을 신설하였다.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간 중에 배워야 할 모든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28단위 이상을 지정하고, 학생의 선택권도 최대 50%까지 보장하도록 하였다.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5개의 과목군으로 나누어 각 과목군별로 반드시 1과목(교양 과목군은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균형 잡힌 이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는 인문·사회, 자연 등의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학교가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학기당 이수 과목은 10과목 내외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교육법 폐지에 따라 삭제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차. 2007 개정 교육과정(2007)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이수 단위를 6단위(교양 등 일부 과목은 4단위)로 통일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카.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후로 이루어진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2008년에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⁷⁾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구상안에서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 발전 목표의 재설정,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 신장, 교육과정 운영 체제의 효율성 제고 등의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기당, 분기당, 주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한다. ②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 및 강화한다. ③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조정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기초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혁신한다. ④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실개혁을 유도한다. ⑤ 학습부담 및 과도한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대비하여 충실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이후 학교 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부분 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따른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수정 고시함으로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창의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미래형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세계적인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을 뜻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 2) 2012년 3월 21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보통 교과와 탐구교과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 일반 과목에 ‘사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교양 교과 영역 교양 교과(군)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를 신설하고, 과목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 3) 2012년 7월 9일에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을 개정하였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 4) 2012년 12월 13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운 능력이 졸업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각각 단위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d).
- 5) 2013년 12월 18일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했다.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를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를 6단위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필수 이수 기준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3b).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끌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교

육 수요자의 요구 변화, 과학 기술과 학문의 발전, 교육 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 교육 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을 이어받아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 중의 하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이다. 2008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 계획(2009 ~ 2013)’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이어 받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국가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융합기술 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사회가 융합기술이 주도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사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이른바 문과와 이과 사이의 과도한 칸막이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이과 통합’ 논의(교육부, 2013c)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정 배경이 되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 당시 강조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진행된 네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박순경 외, 2014) 등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실태를 점검하며 그 발전 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요컨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을 화두로 삼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김경자 외, 2015a: 15-16).

나. 교육과정 개정의 비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황규호, 2015). 전자가 문·이과 칸막이 해소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비전이라면, 후자는 그동안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의 연속선상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과제를 반영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1)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주안점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여러 교과 영역의 균형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목 편제를 개발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개발하며, 사회과 및 과학과의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등 융합적인 과목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 체제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한다.

그러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부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맞춤형 선택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맞춤형 선택 학습 지원은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를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여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단위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따른 심화·보충학습 및 진로탐색·체험을 지원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근거와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한다.

2)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 구현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과 함께,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기본 과제를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경험의 질과 관련된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편 지식의 암기 위주 교육과 문제풀이 중심 교육의 문제, 과도한 학습량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학습 부담 증가 문제, 국제 평가에서의 높은 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대한 흥미도나 자신감 등 정적 영역의 지표가 낮다는 문제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학습 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은 학습의 양과 결과보다 학습의 질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소양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길러주는 교육, 자기성장·자기발전의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은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기능하게 하고 분절적 단편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량 과다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학습 내용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 조직 방식을 개선하며, 특히 세부 학습 영역을 아우르는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교과 내·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셋째, 교과별 탐구역량과 사고역량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방법을 안내한다.

다. 교육과정 개정의 절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총론의 편제 개편보다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문서 체제를 구조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던 학년군제 및 집중이수제를 교과 특성에 따라 유연화 하는 방안,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 방향을 기초로 교육과정 개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교과 교육과정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발생했던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가 교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

렴하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육과정 포럼, 공청회,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등학교 전 교육 기간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이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기초 소양 함양에 관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균형 있는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 편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독서교육, 연극교육 강화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영역별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재도입하며 사회 및 과학 교과군의 공통 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융합 과목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문·이과 칸막이를 야기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 체제의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개발하였다.

2)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기초 소양 함양을 이유로 자칫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하며,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자유학기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목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협력 학습, 토의·토론 학습등의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단순히 역량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과도한 학습량과 피상적인 학습으로는 창의융합적 사고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 내용 적정화는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암기식 교육, 문제풀이식 교육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 또한 여전하다. 이는 교육 내용 적정화를 단순히 양적 감축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성취기준의 개수를 표면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 내용 적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유의미한 학습에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단순한 양의 축소에서 벗어나 소수의 핵심 개념⁸⁾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 내용의 질적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조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전체 학교 급

8) 핵심 개념이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학습 내용의 구조를 드러내며 그 교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일반적 아이디어(general ideas), 빅 아이디어(big idea)와 유사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에 걸쳐 있는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선정하였다. 일반화된 지식이란 핵심 개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낱말의 구체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사실들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기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 기능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내용을 이와 같이 구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교과별 세부 학습 내용들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세부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둘째,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의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구조화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돕는다.

5)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심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이 특정 맥락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가 교수·학습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도록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수행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교과 내 지식 간,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을 연결하여 융합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였다.

6)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총론의 편제 개편은 최소화하되 2009 개정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을 추구하였다. 총론 차원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 방안,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안전 교육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모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로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이래로 점점 증가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의 수가 39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과도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고 그 하위 영역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구성은 유지하되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발휘하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에서 영역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침을 개선하였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주체인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목)에 안전 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천·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군)의 경우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총 64시간) 증배하여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단,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⁹⁾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의 도입,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목의 다양화, 국어·수학·영어 비중 적정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약칭)과의 연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하 개정의 각 중점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신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과정과 자연과정(문과와 이

9) 이하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내용은 김정자 외(2015b)의 내용을 발췌·수정하였다.

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 체제가 여전히 두 과정의 구분을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인문과정의 학생들은 과학 교과에 대한 공부를, 자연과정의 학생들은 사회 교과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5학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이러한 과정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5학년도에 도입된 ‘선택제 수능’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수능으로서 수능의 계열 구분(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탐구 영역을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신설)로 구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사회탐구 11개 과목, 과학탐구 8과목 가운데 각 4과목씩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탐구영역 응시 선택 과목 수는 2012학년도 수능 이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2과목으로 축소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지식 편식 현상은 학문적인 융합을 강조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정 구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지식 편식을 막고 균형 있는 지식 습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공통 과목’을 개발하고 그것을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의 공통 과목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 융합적인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통합사회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9개의 주제(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를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교육부, 2015i: 24). 한편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4개의 대주제(물질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지식 수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한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교육부, 2015i: 25).

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목 다양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변함없이 지향하는 기조이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받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 영

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으로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하였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교육부, 2014a: 12).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가 가능한 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을 신설하였고,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었으며, 진로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조합한 '맞춤형 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 선택에 대한 진로 지도를 강화하는 지침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5i: 2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치되었던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은 '보통 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 교과 I'로 별도 제시하였으며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도 학생의 희망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전문 교과' 과목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국어, 수학, 영어 비중 적정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 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아울러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지정·운영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지교과의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교육부, 2013a)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군) 총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되고 학교 자율 과정은 94단위로 확대되었으며, 교과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도 기본 단위수 5단위에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새롭게 신설된 것이 "기초 교과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교육부, 2013b: 9)."라는 지침이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이 규정을 권장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을 적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균형 학습'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균형 학습은 사회 교과와 과학 교과 사이의 균형 학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주요 교과로 인식되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학습과 그 이외의 교과에 대한 학습 사이의 균형 학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보통 교과를 4개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 것은 다양한 교과에 대한 공부를 골고루 학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학습의 비중을 적정화함으로써 다양한 교과에 대한 균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6단위 이상)가 포함됨으로써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는 교과 총 이수 단위가 180단위인 경우, 90단위가 아닌 84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규정은 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권장 사항이었던 이 규정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무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 강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갖는 가장 큰 변화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로 약칭)을 기반으로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산업계의 교육훈련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함으로써 역량(competencies) 또는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성과가 NCS를 기반으로 설정됨)에 기반을 두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학교교육내용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현 정부도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조기 개발과 이와 연계한 학습모듈 개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NCS에 기반을 둔 국가수준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4).

일반적으로 직업능력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을 말하며, 직무수행능력은 직종마다 독특하게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그리고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포함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어 왔으며, 직업기초능력은 여러 직종에 걸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별도의 하위요소들을 활용하여, 직무수행능력은 직무분석 등을 활용하여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기본 방향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즉, 개별 직종(또는 NCS세분류)별로 제시된 다양한 내용들(구체적으로는 NCS 능력단위, NCS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등)을 활용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교 직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기초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본 방향이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 중점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교육부, 2015a).”라고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 함양’을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직무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이나 창의 역량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포함한다는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Ⅱ.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I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먼저, 앞부분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자주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인적 성장이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인적 성장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 각자가 자신의 삶의 비전을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새로운 통찰력,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 새로운 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을 통해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는 먼저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폭넓은 기초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 능력,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능력 등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대처하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역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교육받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이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르치며 또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에서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의 뒷부분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와 같이 여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이 핵심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 관리,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진로개발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등의 하위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이란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루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처리’한다는 용어 역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과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지적 측면의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창의적 사고 성향으로서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들을 융합하여 의미 있고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사고 능력으로서의 융합적 사고도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 현상들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언어와 행동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인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창의융합형 인재의 중심 가치이며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융합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통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즉, 창의적인 사람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하므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 등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II-1]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가독성과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관련 개념들 사이의 관련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 등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인재상의 관계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함양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적 소양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은 자신과 타인,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판단 능력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소양은 과학의 지식 및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은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 관련 문제에 반성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OECD, 2013).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은 개인이 지식을 단지 아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및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고등학교는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균형 잡힌 인문·사회·과학적 안목과 과학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공통 과목을 도입하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 선택 학습 강화

기초 소양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학습 경험을 의미한다면, 선택 학습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화된 혹은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부터 이수 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과정의 다양화와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유지하면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선택교과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황규호 외, 2015).

나. 교과 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내 영역별로 소수의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학습량 적정화를 이루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 적정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주로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는 차원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닌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 구조화는 각 교과의 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며 교과 내 지식과 기능,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드러내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적 사고 계발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지식 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 교과의 사고 및 탐구 기능을 학습해야 한다. 그 후에는 교과 내, 교과 간 연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실천적 행위를 배워야 한다.

핵심 개념이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포함하는 교과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는 지식의 한 종류인 개념(concept)과 동의어는 아니며 교과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교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이디어, 즉 빅 아이디어(big idea)의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표현, 감상, 의사소통, 공감과 같은 기능이나 정의적 내용도 빅 아이디어에 포함될 수 있다.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각 교과에서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다. 교과 역량은 교과가 기반한 학문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학습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심층적 이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을 통해 가르칠 때 가능한 것이다.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은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기능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과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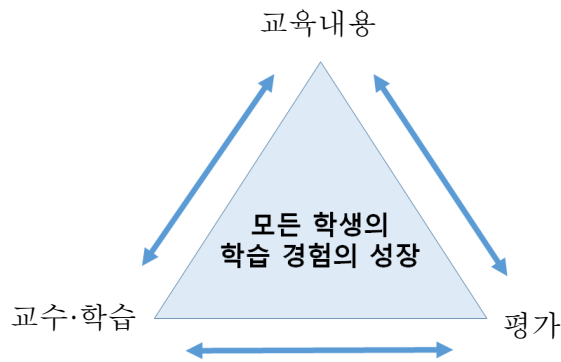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교수·학습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때뿐 아니라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에도 유용하다. 또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 경험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결과는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마. 교과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림 II-2]와 같이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학생의 학습 경험의 성장을 우선에 두고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이 확보될 때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과정 개발뿐 아니라 실행에서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그림 II-2]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였다. 교과의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총체로서 학년(군)별 학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특정 맥락에서 습득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초로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이 직종별·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직무 수행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기초 능력도 포함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고교 졸업 후 어느 산업 분야로 취업을 하더라도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등의 기초 역량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직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나 고졸 재직자 전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경로를 능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뿐만 아니라 보통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방과후 활동 등의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경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등의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 이를 반영한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된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이러한 기본적 근거 위에 국가·사회적 요구 및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이러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교과(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교육부, 1997b: 1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이루어진다. 하위 목표 네 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각 학교 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 급별 목표의 차별성 및 위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 급별 교육 목적에 중점을 두되, 앞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과 연관되도록 설정되었다. 학교 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38조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1조는 중학교의 교육 목적을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중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의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기초하여,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는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핵심역량과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의 연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자주적인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자기 관리 역량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자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심미적 감성 역량 · 의사 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양 있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2.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개정 2022.1.17.>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선택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제를 달리하였다. 이는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었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과 별도로 모든 고등학생이 이수해야 할 '공통 과목'을 신설함에 따른 조치이다.

〈표 III-1〉 개정 시기별 초·중등 교육과정 편제의 구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3학년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학년군 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제를 유지하였다. 학년군 설정의 목적은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다.

〈표 III-2〉 학년군 설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
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군)를 그대로 유지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군)이 일부 변경되었다.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선택 교과의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에 포함시켜 해당 교과군을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변경하였다.

〈표 Ⅲ-3〉 중학교 교과(군) 설정 변경

2009 개정 교육과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		↓		↓		
2015 개정 교육과정	8개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

● 교과군 설정의 이점

교과군 설정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재구성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교과군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 수업 시수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개정 2022.1.17.>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설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나, 교과(군)의 경우 일부 변경되었다.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사 과목을 역사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기초 영역에 포함하여 교과(군)가 8개에서 9개가 되었다. 또한 예술 교과군에 인성 교육 강화 및 인문학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연극 과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군 명칭도 ‘예술(음악/미술)’에서 ‘예술’로 변경되었다.

〈표 III-4〉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과 영역 및 교과(군) 변경

2009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8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2015 개정 교육과정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9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한편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하여 특정 교과 중심으로 치우치는 교육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학습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점 배당 기준표를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학점 배당 기준표와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및 공통 과목의 신설**

고등학교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으나 그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통 교과에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며,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Ⅰ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과Ⅱ로 구분된다.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교과(목) 집중이수**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되었던 교과(목) 집중이수는 시행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여건, 학교 급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구조(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주제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 활동’ 영역의 ‘창의주제활동’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 교육 등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교과(군)에서 충실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 등을 통해 10개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안전·건강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 보건 및 성 교육,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 등을 체육, 과학, 기술·가정과 같은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은 학교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등 생활 속의 윤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며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교육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익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증가, 외국인 근로자 및 탈북 학생 유입 확대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 교육 및 국제이해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범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 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독도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금융 교육은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창업(기업가)정신, 복지와 세금·금융생활·지적 재산권 등을 학습하여 합리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물 보호·에너지 교육, 해양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계기 교육

계기 교육은 시기별, 계절별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나 변화하는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계기 교육은 교과협의회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수·학습 계획과 학습 자료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계기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 원격수업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4조(수업 등)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등의 교육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원격수업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의 교육부 장관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육상 필요한 원격수업과 비상시 원격수업 전환 대비를 위해 원격수업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Q: 원격수업의 교육상 필요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 학교는 교육상 필요가 있을 때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상 필요’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과목 수업 중 일부 원격수업 운영, 온라인 문서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사운영과 행정적 편의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교수업이 가능한데도 석면 제거 공사, 학교 이전, 징검다리 휴일,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등 단순히 학사운영과 행정적 편의 등을 위해 원격수업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개정 2022.1.17.>

가. 편제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1) 보통 교과
- ㉠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 (2) 전문 교과
- ㉢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군)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 **고등학교 교과의 구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을 기본, 일반, 심화 과목으로 다시 구분하여 과목의 수준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의 일반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두고, 심화 과목은 전문 교과Ⅰ으로 배치하였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의 교과는 전문 교과Ⅱ로 배치하였다.

(1) 보통 교과

㉑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보통 교과**

보통 교과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이다. 보통 교과는 교과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과 영역 내에 하위분류로 교과(군)를 두었으며, 교과(군)별 또는 교과 영역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하여 학생이 균형 있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사의 교과 영역 변화**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교과(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의 독립된 교과로 설정하였다. 한국사는 2개 학기 이상, 최소 6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 **예술 교과(군)의 명칭 변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음악/미술)’로 제시되었던 교과(군) 명칭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예술’로 변경하였다. 이는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에 ‘연극’ 과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있다.

④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 공통 과목 설정의 배경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기 이전에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 과목 중에서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사회와 과학의 기본적인 소양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신설하였다.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별 학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에 의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 편제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편제 비교

시기 교과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	일반	심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보통 교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과목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적합한 학습을 위한 과목	•교과별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한 과목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과목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
전문 교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전문 교과Ⅰ •특수 목적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대상 교과	전문 교과Ⅱ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성격, 내용 체계, 취지

통합사회는 초·중학교 사회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지리, 일반사회(정치, 경제, 법 등), 윤리, 역사의 기본 내용에 대해 핵심 개념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특히,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탐구 학습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III-6〉 통합사회 구성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삶의 이해와 환경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
인간과 공동체	인권
	시장
	정의
사회 변화와 공존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

통합과학은 중학교까지 학습한 자연과학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 하도록 학습내용과 난이도를 재구조화한 과목이다.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와 미래 생활에 대한 예측 및 적응,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한다.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에 대한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분과 학문적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통합하여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을 가능하게 한다.

〈표 III-7〉 통합과학 구성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물질과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변화와 다양성	화학변화
	생물다양성과 유지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2) 전문 교과

㉑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전문 교과

전문 교과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에서 편성하는 전문 교과Ⅰ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편성하는 전문 교과Ⅱ로 구분된다.

㉒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전문 교과Ⅰ의 구성

전문 교과Ⅰ의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이며 과학 계열 고등학교, 체육 계열 고등학교, 예술 계열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㉓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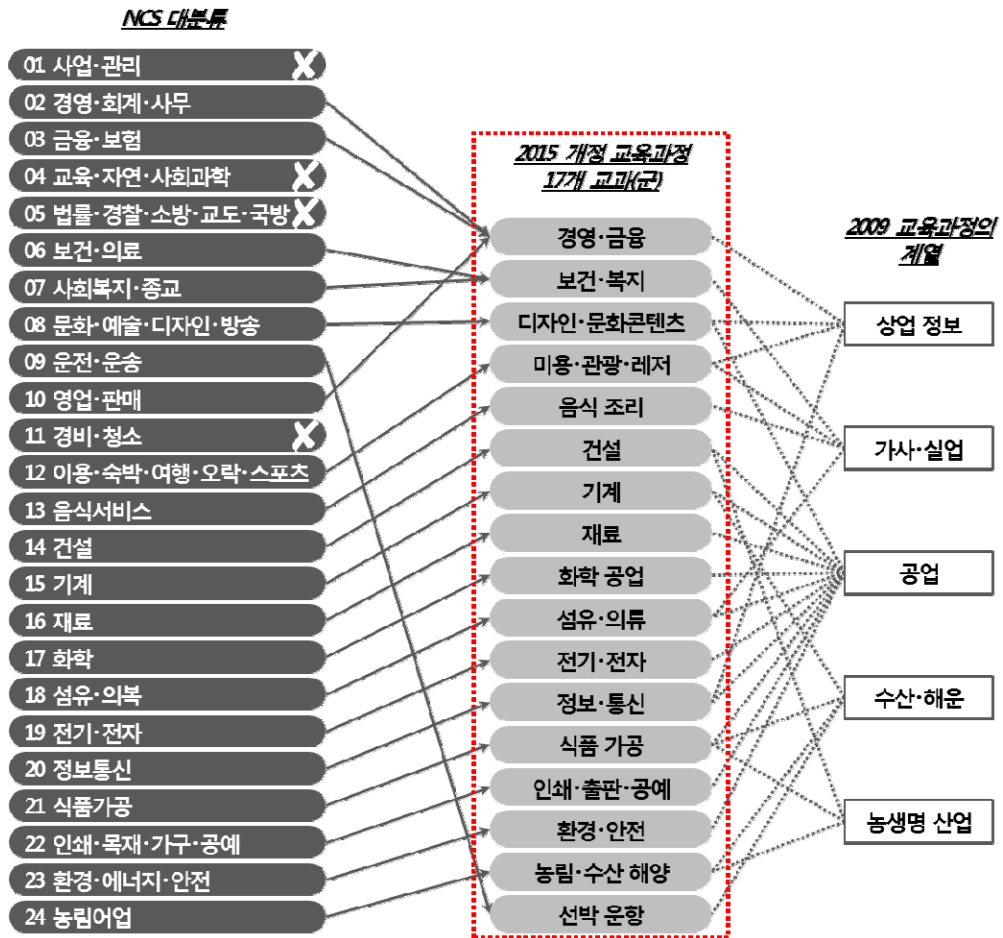
● 전문 교과Ⅱ

전문 교과Ⅱ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개편되었다.

● NCS기반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의 교과군 구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고졸 인력 구조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5개의 계열을 17개의 교과(군)로 재구성하였다(그림 III-1 참조). 개편된 교과(군)는 학습자가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통해 배우는 과목을 구분하는 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개편된 17개의 교과(군)는 다양한 직업교육 내용을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과목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특정 교과(군)의 교육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수요나 필요에 따라 여러 교과(군)의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III-1] 고등학교 NCS기반 직업 교육과정의 교과군 구성 체계

산업구조 및 직업 세계의 변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의 개편 등을 반영하여 17개 교과(군) 이외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과군을 신설하거나 재구조화할 수 있다.

●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전문 교과 체제 개편

전문 교과Ⅱ의 체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노동시장 이행 준비, 직업 세계의 이해 등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따라서 전문 공통 과목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전문 교과Ⅱ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라면 어느 학과에서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수 시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초 과목은 기준학과별 NCS 실무 과목의 선행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 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이다. 실무 과목은 기준학과별로 대표적인 인력 양성 유형(직종 중심)을 설정하고,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에 필요한 NCS 능력단위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과목이다. 따라서 실무 과목은 NCS 능력단위의 조합으로 내용체계가 구성되며, 능력단위별로 개발되는 NCS 학습모듈이 직접 활용되는 체제로 운영된다. NCS 학습모듈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NCS 능력단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은 위계 구조를 가지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교육부, 2015j:5)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4개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유지하였으나 각 영역의 하위 활동은 다소 변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표 III-8〉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하위 활동의 변화 내용

영역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율 활동	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봉사 활동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
진로 활동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

10)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자료는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go.kr>)의 교육과정 자료실 참조

나. 학점 배당 기준 <개정 2022.1.17.>

(1)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¹¹⁾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11)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한다. 분류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에 있다. 자율 고등학교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동시행령 제90조에 의해 과학 계열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국제 계열 고등학교, 체육 계열 고등학교, 예술 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구분된다.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고등학교 학점의 의미 및 수업량 유연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단, 적용 학년 이외의 재학생에게는 현행 단위제가 적용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량을 계산하며, 1학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당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7회 중 1회의 수업은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¹²⁾ 활동 내용 및 운영 등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예시) >

- ① **진로집중형** : 진로설계·체험,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집중학기제 운영시간
- ② **학습몰입형** : 교과별 심화 이론, 과제 탐구 등 심층적 학습 시간 운영
- ③ **보충수업형** : 학습 결손, 학습 수준 미흡 학생 대상 보충수업
- ④ **동아리형** : 학습동아리 연계 운영, 교과에 관한 학생 주도적 학습 시간 운영
- ⑤ **프로젝트형** : 교과 융합학습 등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직업 체험 프로젝트 등 운영

다만, 과목별 1학점을 16회 수업량으로 운영할 경우라도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 교과 수업량(교과 174학점 기준 2,958시간)을 감축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회 중 1회의 수업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 교과 연계의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으로 활용은 제한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학교는 해당 교육 활동을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사도 교육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Q: 17주와 17회를 이수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17주를 이수해야 한다고 정하면, 학교에서 어떤 한 과목을 5학점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주당 5시간씩 17주를 운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중 공휴일 및 학교 행사일 등으로 매주 5회 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1학점은 17회 수업량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여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 교육부(2019.11.7.),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의 의미

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학교는 경우에 따라 1시간 수업을 50분을 기준으로 증감하여 운영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1시간 수업을 50분보다 적게 운영할 경우 감축된 시간은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 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공통 과목의 증감 편성·운영

공통 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기본 학점은 8학점이다. 공통 과목의 이수 학점은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감축하여 운영할 경우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2학점까지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6학점 이상,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 지침(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된다.

Q: 한국사는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편성해야 하나요?

A: 한국사의 이수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편성 이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사는 해당 교과에 속하는 선택 과목이 없으므로 어느 학기에 편성하든지 두 학기 이상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1학년과 3학년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과학탐구실험의 편성·운영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2학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는 과학탐구실험을 편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학탐구실험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과학탐구실험을 개설하지 않을 시 통합과학 내에 과학탐구실험의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⑤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필수 이수 학점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 94학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단위 86단위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6학점과 과학탐구실험 2학점이 필수 이수 학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보통 교과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Q: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예술 교과(군)과 생활·교양 교과 영역 필수 이수 학점의 기준을 각각 5학점과 12학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174학점 중 72학점 이상을 전문 교과 I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를 85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술 교과(군)과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기초 교과 영역 비중의 적정화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어·수학·영어 교과에 편중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과 총 이수 학점이 174학점인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수학·영어 교과는 최대 87단위를 편성할 수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6학점을 포함하여 87학점 이내로 제한하여 국어, 수학, 영어는 81학점까지 편성하도록 하였다.

Q: 단위학교에서 교과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하는 경우, 기초 교과 이수 학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과 이수 학점을 6학점 증배하여 교과 총 이수 학점이 180학점인 경우, 학교는 기초 교과 영역은 90학점 이내로 편성하면 됩니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은 18학점이며, 이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 18학점을 학점당 17시간으로 환산하여 이수 시간 수로 나타낸 것이다.

Q: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왜 시간 수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나요?
 A: 창의적 체험활동이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위 활동 시수를 배정할 때, 학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수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총 이수 학점 수

총 이수 학점 수는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과 자율 편성 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수를 합하여 192학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이수 학점 수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이 192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개정 2022.1.17.>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 어/한문/교양		10			
	소계				66		22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¹³⁾(개정 2022.1.17.)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의 의미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¹⁴⁾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었으며, 1학점의 수업량은 17회에서 16회로 적정화 되었다. 단, 적용 학년 이외의 재학생에게는 현행 단위제가 적용된다.

13) ②~⑤ 1시간 수업의 의미, 공통 과목의 증감 편성·운영, 한국사 편성·운영, 필수 이수 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 총 이수 학 점수 등에 대한 해설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한 해설 참조

14)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12.27.)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별도 지침(2020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다. 보통 교과 <개정 2020.9.11.>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보통 교과 편제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했고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를 추가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이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을 폐지하고, 공통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신설하였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은 전문 교과 I로 재편하였다.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 및 증감 편성·운영**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III-10〉 과목별 이수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

과목 구분	과목	기본 학점	편성운영 범위	비고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8학점	6 ~ 8학점	2학점 내 감축 허용
	한국사	6학점	6학점 이상	
	과학탐구실험	2학점	2학점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는 과학탐구실험 편성 제외 가능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 관련 일반 선택 과목	5학점	3 ~ 7학점	2학점 내 증감 허용
	교양 교과목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5학점	2 ~ 8학점
진로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군) 관련 진로 선택 과목	5학점	2 ~ 8학점	3학점 내 증감 허용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체육 교과의 편성·운영

체육 교과는 매 학기, 총 10**학점**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은 고등학생의 체력 향상, 인성 교육,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된 것이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육 교과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전문 교과

(1) 전문 교과 I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Ⅰ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심화 수학Ⅱ 고급 화학 화학 실험 융합과학 탐구	고급 수학Ⅰ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	고급 수학Ⅱ 고급 지구과학 지구과학 실험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스포츠 경기 체력	체육과 진로 탐구 수상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스포츠 경기 실습	체육 지도법 개인·대인 운동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분석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예술 계열	음악이론 합창 미술 이론 입체 조형 무용의 이해 무용 음악 실습 문예 창작 입문 고전문학 감상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표현 기법	음악사 합주 미술사 매체 미술 무용과 몸 안무 문학 개론 현대문학 감상 연기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영상 제작의 이해	시창·청음 공연실습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 무용 기초 실기 무용과 매체 문장론 시 창작 무대기술 영화기술 암실 실기 사진 영상 편집	음악 전공 실기 평면 조형 무용 전공 실기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과 매체 소설 창작 연극 제작 실습 시나리오 중급 촬영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독해Ⅰ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독해와 작문Ⅱ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Ⅱ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 독해Ⅱ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회화Ⅰ 중국 문화 일본어 회화Ⅰ 일본 문화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 문화 아랍어 회화Ⅰ 아랍 문화 베트남어 회화Ⅰ 베트남 문화	심화 영어Ⅰ 심화 영어 작문Ⅰ 독일어 회화Ⅱ 프랑스어 회화Ⅱ 스페인어 회화Ⅱ 중국어 회화Ⅱ 일본어 회화Ⅱ 러시아어 회화Ⅱ 아랍어 회화Ⅱ 베트남어 회화Ⅱ	심화 영어Ⅱ 심화 영어 작문Ⅱ 독일어 독해와 작문Ⅰ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Ⅰ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Ⅰ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일본어 독해와 작문Ⅰ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Ⅰ 아랍어 독해와 작문Ⅰ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Ⅰ
국제 계열	국제 정치 한국 사회의 이해 현대 세계의 변화	국제 경제 비교 문화 사회 탐구 방법	국제법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사회과제 연구	지역 이해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① 전문 교과 |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제 계열 |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계열별 전문 교과 I의 편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전문 교과 I은 이러한 전문 교육을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열별 이수 과목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위한 과목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와 심화 과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 I으로 제시하였다.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 결정**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학생 및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도에서 해당 지역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국제 계열 고등학교의 외국어 과목 편성 시 유의점**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 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전문 교과 I의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해야 한다. 즉, 보통 교과의 영어 교과목, 제2외국어 교과목을 편성·운영한 경우, 이는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편성 시 유의해야 한다.

(2) 전문 교과Ⅱ <개정 2018. 4. 19.>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경영 · 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유통 관리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원산지 관리 청구 사무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 · 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인체 구조와 기능 간호의 기초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보건 간호	영·유아 놀이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유아 교수 방법 대인 복지 서비스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 ·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색채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미용 · 관광 ·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미용과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조리· 식음료과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토공·포장 시공 지적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건축 도장 시공 단열·수장 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경 시공 조경 설계	측량 공간 정보 구축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경량 철골 시공 조경 관리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워터젯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송강기 설치·정비 자전거 정비 냉동 공조 장치 설치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오토바이 정비 냉동 공조 설계 보일러 장치 설치 보일러 설치·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교과 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재료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자동차 새시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영업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소형 무인기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자동차 튜닝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시공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로봇 용접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화학 분석 화학 공정 유지 운영 고분자 제품 제조 기능성 정밀 화학 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화학 물질 관리 석유 화학 제품 무기 공업 화학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화학공업과
섬유 · 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가죽·모피 디자인과 생산	방사·사가공 염색·가공 구매 생산 관리 패션 디자인의 실제 비주얼 머천다이징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섬유과 의류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전기 · 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수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설비 운영 송·변전 배전 설비 운영 직류 송배전 제어·보호 시스템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제작 전기 설비 운영 외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전기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전자 제품 생산 전자 부품 생산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제품 영업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기구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지능 개발 의료 기기 인허가 의료 기기 연구·개발 레이저 개발 3D 프린터 개발 가상 훈련 시스템 설계·검증	패션 상품 유통 관리 화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전기 설비 정비 직류 송배전 전력 변환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설계 전기 기기 유지 보수 내선 공사 변전 설비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전기 철도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전자 제품 기획 전자 부품 기획 전자 부품 기구 개발 전자 제품 설치·정비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유지 보수 의료 기기 생산 광부품 개발 LED 기술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가상 훈련 구동 엔지니어링	전기과 전자과
정보 · 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네트워크 구축 무선 통신 구축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프로그래밍	유선 통신 구축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교과 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식품 가공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빅데이터 분석 정보 보호 관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식품가공과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농산 식품 유통 제빵	떡 제조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농산 식품 저장 제과	
인쇄 · 출판 · 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귀금속·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 · 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산업 환경 보건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대기 관리 소음 진동 측정 환경 생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 · 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건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수도작 재배 육종 종자 유통 보급 농촌 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품질 관리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임산물 생산 펄프·종이 제조 기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사료 생산	전특작 재배 종자 생산 농업 생산 관리 농촌 체험 시설 운영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젖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동물 약품 제조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교과 (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선박 운항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애완동물 미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일반 잠수	수의 보조 농업 생산 환경 조성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산업 잠수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선박 운항 관리 선박 통신 선박 기기 운용 선박 기관 정비	선박 안전 관리 선박 갑판 관리 기관사 직무 선박 보조기계 정비	항해과 기관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에 따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기준학과 개편

NCS 대분류를 활용하여 17개 교과(군)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NCS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교과(군)별 기준학과를 구성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5개 계열의 62개 기준학과였던 것을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로 개편하였다. 이처럼 NCS 중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기준학과를 재구조화 할 때, NCS 능력단위로 설명하기 어려워 관련 실무과목을 개발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및 전문 교과를 2015 개정 교육과정(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도 유지하되 관련 NCS가 개발된 이후 기초 과목 및 실무 과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가 ‘농림·수산 해양’ 교과군에, ‘보건간호과’는 ‘보건·복지’ 교과군의 기준학과로 편성되었다.

〈표 Ⅲ-11〉 NCS기반 고교 직업 교육과정 기준학과 재구조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학과	대분류	중분류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금융정보과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2 총무·인사
		재무·회계과	02 경영·회계·사무	03 재무·회계
		유통과	02 경영·회계·사무	04 생산·품질관리
		금융과	03 금융·보험	01 금융 02 보험
		판매과	10 영업판매	03 판매
보육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보건·복지	보육과	07 사회복지·종교	03 보육
		사회복지과	07 사회복지·종교	01 사회복지
		보건간호과	06 보건·의료	-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과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2 디자인
		문화콘텐츠과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01 문화·예술) 03 문화콘텐츠
관광경영과 관광과 미용과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1 이·미용
		관광·레저과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3 관광·레저
조리과	음식조리	조리·식음료과	13 음식서비스	01 식음료조리·서비스
조경과 토목과 건축과	건설	토목과	14 건설	02 토목
		건축시공과	14 건설	03 건축
		조경과	14 건설	05 조경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냉동공조과	기계	기계과	15 기계	01 기계설계 02 기계가공 03 기계조립·관리 05 기계장치설치 10 금형
		냉동공조과	15 기계	05 기계장치설치
		자동차과	15 기계	06 자동차
		조선과	15 기계	08 조선
		항공과	15 기계	09 항공기제작

2009 개정 교육 과정 기준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학과	대분류	중분류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재료	금속재료과	16 재료	01 금속재료
		세라믹과	16 재료	02 요업재료
		산업설비과	16 재료	01 금속재료
화학공업과	화학공업	화학공업과	17 화학	01 화학물질·화학공정관리 02 석유·기초화학물제조 03 정밀화학제품제조 04 플라스틱제품제조
섬유과 의상과	섬유·의류	섬유과	18 섬유·의복	01 섬유제조
		의류과	18 섬유·의복	02 패션
전기과 전자과	전기·전자	전기과	19 전기·전자	01 전기
		전자과	19 전기·전자	02 전자기기일반 03 전자기기개발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영상제작과 정보처리과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정보컴퓨터과	20 정보통신	02 통신기술 03 방송기술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수산식품과	식품가공	식품가공과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2 제과·제빵·떡제조
인쇄과	인쇄·출판 ·공예	인쇄·출판과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1 인쇄·출판
		공예과	22 인쇄·목재·가구·공예	02 공예
환경공업과	환경·안전	환경보건과	23 환경·에너지·안전	01 산업환경 02 환경보건 03 자연환경
		산업안전과	23 환경·에너지·안전	06 산업안전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지역수산과	농림· 수산해양	농업과	24 농림어업	01 농업
		원예과	24 농림어업	01 농업
		산림자원과	24 농림어업	03 임업
		동물자원과	24 농림어업	02 축산
		농업기계과	24 농림어업	-
		농업토목과	24 농림어업	-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군)	기준학과	대분류	중분류
해양환경과 전자통신과 해양폐기물산업과 해양정보과		해양생산과	24 농림어업	04 수산
		수산양식과	24 농림어업	04 수산
		해양레저과	24 농림어업	04 수산
동력기계과 항해과 항만물류과	선박운항	항해과	09 운전·운송	03 선박운전·운송
		기관과	09 운전·운송	03 선박운전·운송

※ 현행 기준학과와 NCS기반 교과군의 관계는 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기준학과별 전문 교과 편성과 NCS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기초과목과의 관계, ② 개별 학교에서의 기준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일부 기준학과는 NCS기반 교과군의 기초 과목 및 실무 과목과의 관련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

●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의 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학과별로 설정한 ‘인력 양성 유형(또는 인력 양성 목표)’이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인력 양성 유형은 지역의 고졸 인력 산업수요 및 산업 분야별 특성, 현행 학과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을 직종 또는 일자리의 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학과별 졸업생의 취업 분야라기보다는 학과별로 설정하는 명시적인 목표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학과별로 어떠한 직업 교육을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학습자나 산업계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인력 양성 유형의 범위나 수준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일자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기준학과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인력 양성 유형(예시)은 교과군별 교과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에서 기준학과별로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개별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로 학과별로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표 III-12〉 교과(군) 및 기준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예시)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예시)
경영 · 금융	경영·사무과	고객상담원, 경영지원사무원, 총무사무원, 비서
	재무·회계과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세무사무원
	유통과	물류관리사무원, 생산 관련 사무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금융과	출납사무원, 금융사무원, 신용추심원, 증권중개인, 보험설계사, 보험사무원
	판매과	전화고객상담원, 매장판매원, 방문판매원, 인터넷판매원
보건 · 복지	보육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과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보건간호과	간호조무사
디자인· 문화 콘텐츠	디자인과	시각정보디자인, 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웹디자인, 컬러리스트
	문화콘텐츠과	만화가, 애니메이터, 소품관리원, 영사기사, 녹음기사, 게임원화가 및 게임개발자, 스마트폰앱 개발자, 방송편집기사, 촬영기사, 구성작가
미용· 관광· 레저	미용과	미용사(헤어디자이너), 피부미용사(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톱미용사(네일 아티스트)
	관광·레저과	여행사무원, 국내여행안내원, 호텔 및 콘도접객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호텔 컨시어지,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카지노 딜러, 놀이시설 종사원
음식 조리	조리·식음료과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사 및 주방장, 제과원, 제빵원,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건설	토목과	토공·포장사, 측량지리정보개발사
	건축시공과	건축 목공, 전통 건축원, 건축 도장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도배공, 창호공, 경량 철골공, 비계공, 단열 공, 바닥재 시공원, 유리부착원 등
	조경과	조경사공원, 조경관리원, 조경설계사, 조경식물 조성 관리원 등
기계	기계과	기계설계원, 부품기공원, 금형원, 기계조립원, 기계 설치 및 정비원
	냉동공조과	냉난방 관련 설비조직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원 및 정비원, 보일러설치 및 정비원, 냉난방 관련 설 계원
	자동차과	자동차조립인 및 산업용 로봇조직원, 자동차부품조립원, 자동차정비원, 자동차조립원, 자동차제작원, 자동차검사원, 자동차관리원
	조선과	선박선체건조사, 선박의장사, 선체 생산 설계원
	항공과	항공기 정비원, 항공기제작원, 항공기조립원, 항공기관리원
	금속재료과	금속 재료공학시험원, 금속 재료 제조원, 주조원 및 주조기조직원, 단조원 및 금속가공기계조직원, 금속 열처리 및 금속 가공기계 조직원, 도금·도장 및 도금·도장기계 조직원
재료	세라믹과	광석 및 석제품가공기 조직원, 비금속광물가공 관련 조직원, 시멘트 및 광물제품제조기 조직원, 유리 제 조 및 가공기 조직원, 점토제품생산기 조직원
	산업설비과	판금제관원 및 판금제관기계 조직원, 배관원 및 배관설비종사원, 용접원 및 용접설비종사원, 자동 및 로봇 용접종사원
	화학공업과	화학분석 기술자, 유기화합물 제조 기술자, 석유화학제품 제조 기술자, 무기화합물 제조 기술자, 정밀 화학제품 제조 기술자, 화학비료 제조 기술자, 화학 첨가물 제조 기술자, 고분자화합물 제조 기술자, 나 노 화합물 제조 기술자,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기술자, 플라스틱 성형 가공 기술자, 위험물 관리 기술 자, 화합물질 취급 관리 기술자, 화학 공정 운전 및 관리 기술자

교과군	기준학과	인력 양성 유형(예시)
섬유 · 의류	섬유과	섬유 시험 검사원, 섬유 제조 기계 조직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직원, 정련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직원, 세탁원, 섬유 디자이너
	의류과	패션 디자이너, 비주얼 머천다이지, 패션 스타일리스트, 샵 마스터, 패턴사, 재봉사, 재단사, 의류 제품 검사원, 양장 및 양복 제조원, 가죽 및 모피 의복 제조원,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전기 · 전자	전기과	내선 공사 시공원, 외선 공사 시공원, 발전 장치 조직원, 송·변전 배전 설비 조직원,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원, 전기·전자 설비 유지·보수원, 전기 철도 시공원, 전기 철도 유지·보수원
	전자과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원, 전기·전자설비 유지·보수원, 사무기기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
정보 · 통신	방송·통신과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네트워크엔지니어,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수리원, 방송편집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조명기사, 촬영기사
	정보컴퓨터과	임베디드SW개발자(초급), SW개발자(초급), 스마트폰앱개발자, 웹프로그래머, IT시스템운영자, SW테스터,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시스템기술지원전문가, 컴퓨터보안전문가, 웹엔지니어, 정보시스템운영자
식품 · 가공	식품가공과	정육원 및 도축원, 제빵원 및 제과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원, 식품 등급원, 육류·어패류 및 낙농 제품 제조원, 제분 및 도정 관련 제품 제조원, 곡물가공 제품 제조원, 과실 및 채소 관련 제품 제조원, 음료 제조 관련 제품 제조원
인쇄 · 출판 · 공예	인쇄·출판과	출판물기획자, 컴퓨터그래픽 및 프리프레스 조직원, 디지털사진제작자, 인쇄기조직원, 출판물기획자, 출판물편집자, 편집디자이너, 편집조직원, 조판원 등
	공예과	금속공예전문가, 도자공예전문가, 목공예전문가, 수기구제작전문가, 나전칠기전문가, 석공예전문가, 섬유공예전문가, 보석감정사, 품위감정사, 보석디자이너, 주얼리마케팅전문가
환경 · 안전	환경보건과	환경 시설 조직원, 환경 분석사, 환경 측정 관리자, 위생사, 환경 보건 관리자, 환경 보건 평가사 등
	산업안전과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비파괴 검사원 등
농림 · 수산 · 해양	농업과	곡식작물 재배자, 특용작물 재배자, 사료작물 재배자, 종자 생산 및 육종원, 농업 경영자, 농산물 유통업자, 친환경 농업 지도자, 농촌 관광 지도자, 종자 및 생명과학 기능원
	원예과	정원 관리자, 채소작물 재배자, 과수작물 재배자, 화훼작물 재배자, 화훼 장식가
	산림자원과	육묘·조림·영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목재 가공 관련 조직원, 산림 관리자, 산불 감시원, 숲 가꾸기 사업자, 산림 치유 및 숲 해설 보조원, 자연 환경 안내원
	동물자원과	가축 사육 종사원, 가축 인공 수정사, 곡물 및 사료 제분 종사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동물용 약제 제조원, 동물 사육사, 동물 조련사, 가축 방역원, 애완동물 미용사, 실험동물 사육원, 가축 중개인
	농업기계과	농업 기계 설치·정비원, 농업 기계 운전원
	농업토목과	농업 토목 관련 종사원, 측량 및 지리 정보 기술자, 건설 자재 시험원
	해양생선과	어선선장, 어선 항해사, 어로장, 해양 조사원, 수산물 가공 종사원, 수산업 사무 종사원, 수산 중도매사, 수산 경매사, 수산물 유통직 종사원, 수산 정보직 종사원, 염전 관리자
	수산양식과	양식 기술 관리자, 양식 경영자, 관상어 사육 관리자, 수산 양식 기능사, 유통 관리자, 환경 관리자, 소형 선박 조종사, 생선회 기능사, 수산직 공무원
	해양레저과	잠수기능사,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사, 레저 스포츠 전문가, 해양레저 안전관리 전문가, 크루즈 실무 전문가
선박 · 운항	항해과	상선 선장 및 항해사, 도선사, 해양 경찰, 검량사 및 검수사, 해무 감독
	기관과	기관장 및 기관사, 선박 조기원, 선박 검사관, 공무 감독

● 기초 과목의 편성

기초 과목은 기준학과별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고교 직업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II는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에서 실무 과목으로 이어지는 위계 구조를 갖는다. 기초 과목은 17개 교과(군)에 걸쳐 총 179개로 구성하였다.

● 실무 과목의 편성

실무 과목은 기준학과별로 대표적인 인력 양성 유형(직종 중심)을 설정하고, 인력 양성 유형에 적합한 교육 필요 NCS 능력단위를 선정한 후, 이를 실무 과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 과목은 NCS 능력단위의 조합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며, 능력단위별로 개발되는 NCS 학습모듈이 직접 활용되는 체제로 운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NCS 분류체계 상의 20개 대분류, 53개 중분류, 120개 소분류, 373개 세분류, 2,371개 능력단위가 선정되어 368개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실무 과목이 NCS 능력단위로 내용 체계가 구성됨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무 과목의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해당되는 NCS 능력단위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표 III-13〉 실무 과목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예시

과목명	내용 영역(능력단위)	내용 영역 요소(능력단위 요소)
총무	비품 관리(0202010104_13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품 구매하기 •비품 유지하기 •비품 처분하기
	차량 운영 관리(0202010105_13v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운영 계획 수립하기 •차량 조달하기 •유지 관리하기 •차량 처분하기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 내용 영역의 괄호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코드번호임

주: 경영·금융 교과군의 '총무' 실무 과목의 예시이다. 괄호로 제시된 NCS 능력단위 코드번호는 <http://www.ncs.go.kr>에서 해당 능력단위의 세부사항 및 NCS 학습모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무 과목이 고교 교육에 필요한 NCS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NCS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교육 필요 능력단위의 유사성을 토대로 실무 과목을 구성했기 때문에 대부분 NCS 세분류별로 실무 과목이 구성되어 실무 과목명과 세분류명이 동일하나(세분류:실무 과목=1:1), 여러 세분류가 하나의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거나(세분류:실무 과목=N:1) 하나의 세분류가 여러 실무 과목으로 상세화(세분류:실무 과목=1:N)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실무 과목명이 NCS 세분류명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학점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생 및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패키지에 제시된 훈련 기준의 최소 훈련 시간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등 NCS 기반 자격의 종목별 자격 구조에서 제시하는 훈련 시간을 준용하여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의 이수 학점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능력단위)와 성취기준(NCS 수행준거)을 토대로 학습 시간을 설정하며, NCS 활용 패키지나 자격 종목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전문 교과Ⅱ 과목의 기본 성격

전문 교과Ⅱ를 구성하는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즉, 계열별 필수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Ⅱ의 모든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유형이나 교과(군)에 관계 없이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이나 교육 목표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가.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 1. 17.>
-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 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개정 2019.12.27.>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②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4.14.>
-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 17.>
-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1. 17.>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외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 1. 17.>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 1. 17.>

●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은 교과(군)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18학점(306시간,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88시간)을 합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간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로 유지되다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2021.2.17.) 및 단계적 이행 계획(2021.8.23.)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1.17.)을 통해 수업일수 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이수 학점을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였다. 다만, 수업량이 적정화 되었다더라도 학교는 학생이 3년간 192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학기별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업량이 적정화됨에 따라 공강 시간, 소인수 선택과목,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 등 유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학교는 3년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이수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을 언제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이 진로에 따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3년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때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이 차기 학년도나 학기의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가정통신문 배부, 학생 상담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Q: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고려해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학교 교육과정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또한 변경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개정 2019.12.27.>

● 학기당 이수 과목 수의 적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기당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해 왔다.¹⁵⁾ 다만,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가·실습 과목은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2019.11.7.)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로 하여금 학생의 수업평가 부담 및 교육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별책1(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시도 교육청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Q: 학교는 학기당 적정 이수 과목 수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신설)

A: 설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수 과목 수 기준 설정을 통해 학생의 요구, 학생의 학습 부담,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는 매 학기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계획하는 등 자신의 학습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②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4.14.>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각 교과(군)에 따른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목의 이수 **학점**은 각 과목별 이수 학점의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진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이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문·이과 등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 과목 등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한 학기에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별 적정 이수 **학점**을 편성하여 학생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 하나의 과목을 다양한 이수 학점 형태로 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방식은 적절한가요?

A: 학교는 이수 학점 증감 규정 및 학생들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목별 이수 학점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진로집중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과목에 대해 과정별로 이수 학점을 각기 달리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등 진로집중 과정을 운영하기보다 학생의 선택에 기반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동일 입학 연도의 학생에 대해 동일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달리하여 인위적으로 과정을 구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순서 및 공통 과목의 대체 과목 허용

공통 과목은 각 교과와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한 과목이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이다. 이러한 과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통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이전에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인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공통 과목 이전에 편성할 수 있으며¹⁶⁾,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과목을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는 공통 과목을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시도 교육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Q: 일반 선택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구분은 과목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며 전적으로 위계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위계성이 있는 선택 과목의 경우 마) 지침에 대한 해설 참조]
- Q: ‘기본 수학, 기본 영어’ 과목을 공통 과목(수학, 영어)을 대체하여 공통 과목으로 이수할 경우, 공통 과목(수학, 영어)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나요?
- A: 공통 과목인 ‘수학, 영어’를 대체하여 공통 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공통 과목(수학, 영어)’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습니다.
- Q: ‘기본 수학, 기본 영어’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학, 영어’ 공통 과목 이전에 이수할 경우, 공통 과목(수학, 영어)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나요?
- A: 공통 과목은 교과와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기본 수학, 기본 영어’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공통 과목인 ‘수학, 영어’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16) 기존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9.11.7.)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도 해당 기준을 확대 적용하였다.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는 2020년 신설 과목으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위계성이 있는 선택 과목의 편성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의 실정 및 학생 요구,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은 계열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I 과 II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을 먼저 이수한 후 II를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위계성을 가지는 선택 과목으로는 어떤 과목이 있나요?

A: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위계를 갖춘 과목은 대체로 I 과 II로 표시된 과목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I·II,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I·II, 제2외국어 I·II, 한문 I·II는 위계에 의해 구성된 과목입니다.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이며,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기하>는 공통 과목 <수학>의 학습을 전제한 과목입니다. 만약 <수학 I>과 <수학 II>를 모두 편성할 때에는 <수학 I>을 먼저 이수한 후 <수학 II>를 이수하거나, 병행하여 이수하도록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제 수학>은 <수학 I>의 학습을, <미적분>은 <수학 I>, <수학 II>의 학습을 전제한 과목으로, 가급적 위계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생의 요구에 따른 선택 과목 개설 시 유의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이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을 파악할 때에는 현재의 교사, 시설 여건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 가능한 과목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Q: 일정 규모의 학생이 요구하는 선택 과목의 개설을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시설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과목 개설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17.>

● 다른 학교에서의 선택 과목 이수 인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는 일정 규모의 학생이 선택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해당과목을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 수급,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학교 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그 과목을 개설한 인근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때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급적 정규 수업 시간 내로 편성·운영하여 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서 및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Q: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 과목을 이후 학기에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해당 학기에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이미 운영한 과목이라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후 학기에는 해당 과목을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과목의 개설 절차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새로운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과 성격, 목표, 내용 등이 다른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체계에 준하여 과목 개설의 필요성, 교육과정 편성안, 지도 교사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학교의 필요에 의해 신설된 과목은 학교유형에 따른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17.>

● ‘학교 밖 교육’의 의미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수강을 희망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 ‘학교 밖 교육’의 이수 인정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정규 수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학교 밖 교육 운영 공통 가이드라인(일반고, 직업계고 따로 제시) 및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일반고에서 학교 밖 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대학과목 선이수제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뒤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을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 국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이 공동 AP(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과학영재학교(과학계열 고등학교 포함)를 중심으로 도입·운영하는 AP 제도이다.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경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¹⁷⁾, 즉 UP(University-level Program) 제도이다(참고: <http://up.kcu>

e.or.kr/). 이것은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학생이 해당 대학에 지원해서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때 이수한 과목은 협약 관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후 학점으로 인정되었다.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의 과목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이러한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과목 등과의 내용 유사성, 중복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생 입장에서 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Q: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는 무엇인가요?

A: 미국 대학 관련 기관인 College Board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목 선이수 과정입니다. 한 과목은 해당 과목의 대학 1년 과정에 해당하고, 일부 과정은 한 학기 과정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도 미국대학 진학 희망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AP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개설되는 과목으로는 AP Macroeconomics, AP Microeconomics, AP Psychology,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AP Biology, AP Chemistry, AP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 AP Physics C: Mechanic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수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College Board에서 제공하는 AP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성적은 절대평가 점수로 제공되며 과목별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 <https://www.collegeboard.org/>).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교과 총 이수 학점의 증배 운영**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은 174**학점**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의 과목에 한하여 교과의 총 이수**학점**을 증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증배 가능한 과목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II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고와 특목고(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일반고 재학생과 특목고 또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특목고 또는 특성

17)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사업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팀-3337, 2019.11.25.)

화고가 이수학점을 증배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문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 적용은 예외로 하도록 제시하였다.(일반고와 특목고(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과목 편성 요령 안내 공문(2019.7.15.))

Q: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와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 교과Ⅰ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 분야의 진로 및 산업계 수요에 따른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과Ⅱ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점(시수)을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운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4가지 영역을 모든 학년, 모든 학기에 동일하게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년별, 학기별로 특정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선택 과목 이수 정보에 대한 안내 제공**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등이 학생과의 상담 및 진로가이드북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택 과목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의 선택 과목 이수 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 1. 17.>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2021.8.23.)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강화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는 미이수제 도입 전에 국어·수학·영어 공통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최소 성취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개별화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제로 운영이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교과 II의 실무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미 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 1. 17.>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의 필수 이수 학점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이다. 단,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은 85학점인데, 이는 예술 교과(군)와 생활교양 영역의 필수 이수 학점으로 각각 5학점과 12학점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즉,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교육, 예술

체육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감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94학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위와 같이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경우 학생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 사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인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공통 과목의 이수 학점과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은 어떤 관계인가요?

A: 공통 과목의 이수 학점은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에 포함됩니다.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고, 필수 이수 학점은 학생의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경우, 공통 과목 '국어' 8학점을 이수한 이후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필수 이수 학점인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Q: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경우, 학생별로 총 필수 이수 학점인 94학점보다 더 적게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이수 학점은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한 교과(군)별 최소 이수 학점이므로 이러한 필수 이수 학점을 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서,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Q: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경우, 공통 과목 이수 학점을 더 적게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발달 수준 및 기초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의 과목 개설**

일반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단,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전문 교과(전문 교과 I, 전문 교과 II)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경우 관련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이 국가 수준의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Q: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Ⅰ, 전문 교과Ⅱ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 과목 간 위계가 있는 교과인 경우 전문 교과를 개설하기 전에 보통 교과인 선택 과목(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전문 교과는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계 없이 편성할 수 있나요?

A: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교과Ⅰ 중에서 심화 수학Ⅰ·Ⅱ, 고급 수학Ⅰ·Ⅱ의 이수 학점은 수학 교과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심화 영어 회화Ⅰ·Ⅱ, 심화 영어Ⅰ·Ⅱ, 심화 영어 독해Ⅰ·Ⅱ, 심화 영어 작문Ⅰ·Ⅱ의 이수 학점은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의 선택 과목 개설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하거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일반 선택 과목 개설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학교 여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

Q: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편성할 때 교과 영역별로 배분하여 편성해야 하나요?

A: 교과 영역별로 배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특정 교과에서 3개 이상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에서의 제2외국어 과목 개설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제2외국어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의 진로 및 특성을 고려하고 외국어 과목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교과 중점(교과특성화) 학교의 편성·운영

교과 중점(교과특성화) 학교는 예술, 체육, 과학 등과 같은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자율 편성 **학점(최대 80학점)의 50% 이상(40학점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집중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 개설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직업에 관한 과정의 운영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습자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직업에 관한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정할 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참조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직업에 관한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과목의 편성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가 학교의 필요에 의해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신설하는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편성할 수 있다.

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개정 2022.1.17.>
-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 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 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7.>
-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 교과 I 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개정 2022.1.17.>

●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I 의 편성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기초 교과 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에서 각각 10학점 이상, 한국사는 6학점 이상, 탐구 영역인 사회 교과(군)에서 10학점 이상, 과학 교과(군)에서 12학점 이상, 체육·예술 영역인 체육 교과(군)에서 10학점 이상, 예술 교과(군)에서 5학점 이상, 생활·교양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편성한 학점 수의 총합이 보통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이 되는데 이는 8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인 77단위보다 8학점 많아진 것이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학점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 필수 이수 단위인 80단위보다 8학점 적어진 것이다. 한편,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의 과목을 72**학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는 해당 계열의 과목에서,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외국어 계열의 과목과 국제 계열의 과목에서 72**학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Q: 보통 교과 of 필수 이수학점이 77단위에서 85학점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 예외)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이수해야 할 보통 교과가 늘어남에 따라 보통 교과 of 필수 이수학점이 증가했습니다.

Q: 전문 교과 I 의 이수 단위가 80단위에서 72학점으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에서 180단위로 24단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82단위에서 80단위로 2단위 감소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 of 필수 이수 학점이 늘었기 때문에 전문 교과 I 의 필수 이수 학점을 조정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나) 보통 교과 of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보통 교과 of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 허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점** 배당 기준에서 교과(군)의 필수 이수 **학점** 수는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 최소 이수 **학점**을 말한다. 이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을 제외한 보통 교과 of 선택 과목을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전문 교과 I 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과목이 많을 경우, 이 중에서 일부를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이수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학점** 수를 따른다. 또한, 이렇게 편성된 전문 교과 I 과목의 **학점** 수는 전문 교과 I 의 필수 이수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 교과 I 과목으로 72**학점** 이상 편성해야 한다.

Q: 보통 교과I의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I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때 편성·운영 이수 학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I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경우 5학점을 기본 학점으로 하여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I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경우 5학점을 기본 학점으로 하여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전문 교과I의 과목을 보통 교과I의 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전문 교과I의 과목을 보통 교과I의 선택 과목으로 대체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I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I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 전문 교과I 과목을 편성할 때,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총 이수 학점이 72**학점**인 경우, 44**학점**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I의 과목을 편성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I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국제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는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외국어 교육과 세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제 관계 및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I 과목을 편성할 때, 국제 계열의 과목뿐 아니라 외국어 계열 과목도 편성할 수 있다. 즉, 전문 교과I의 과목 중에서 국제 계열의 과목과 외국어 계열의 과목에서 7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어 계열의 과목을 너무 많이 편성할 경우,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와 차별화가 되지 않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국제 계열 과목을 전문 교과I의 총 이수 **학점**의 50%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7.>

● 유사 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그리고 산업의 발달과 학문적인 추세 및 시대적 요구 등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 준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 교과 I 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에서의 새로운 과목의 편성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가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진로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 I 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이전에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8.4.19.>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학점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4.14.>, <개정 2022.1.17.>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Ⅰ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Ⅰ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삭제 <2019.12.27.>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개정 2018.4.19.>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 하) 삭제 <2022.1.17.>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8.4.19.>

●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한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직업교육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공급함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경로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지역 및 관련 산업 기반과 인력수요의 분석, 학교 및 학과별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공통의 역량을 의미하며 직무능력은 해당 분야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는 보통 교과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함양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학점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4.14.>, <개정 2022.1.17.>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학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Ⅱ를 174학점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보통 교과의 최소 이수 학점은 66학점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1학점 증가하였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편성해야 한다. 전문 교과Ⅱ의 최소 이수 학점은 86학점이며 여기에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로 편성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학교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학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또한 자율 편성 학점 22학점은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 산업계 수요, 그리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즉, 학교는 기초학력 보충교육, 예술체육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별로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감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보통교과 66학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위와 같이 학생별로 필수 이수 학점을 다르게 편성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에 따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 교과(군)의 전문 교과Ⅱ 편성·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교과(군)로 구분되어 있으며, 17개 교과(군)별로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는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등에 따라 학과별로 특정 교과(군)에만 국한하여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필요에 맞게 다른 교과(군)의 기초 과목이나 실무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가)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실무 과목의 학기별·학년별 운영 계획 수립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3학기 이상 편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년별, 학기별로 어떠한 NCS 능력단위를 운영할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과별로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에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NCS 능력단위(또는 능력단위 요소)의 위계성이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표 Ⅲ-14〉 실무 과목의 학년별·학기별 운영 계획(예시 1)

과목명	관련 능력단위명 및 코드번호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선반기공	도면해독 1502010103_14v2			16				
	장비 유지관리 1502010109_14v2			16				
	기본작업 1502010104_14v2				32			
	홀·테이퍼 작업 1502010106_14v2				32			
	편심·나사 작업 1502010107_14v2					64		
	아수 학점 (아수 시간)	-	-	2 (32)	4 (64)	4 (64)	-	

〈표 III-15〉 실무 과목의 학년별·학기별 운영 계획(예시 2)

과목명	관련 능력단위명 및 코드번호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선반기공	도면해독 1502010103_14v2			10	6			
	장비 유지관리 1502010109_14v2			10	6			
	기본작업 1502010104_14v2			10	14	10		
	홀·테이퍼 작업 1502010106_14v2			2	16	12		
	편심·나사 작업 1502010107_14v2				22	42		
	이수 학점 (이수 시간)	-	-	2 (32)	4 (64)	4 (64)	-	

가)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NCS 수행준거를 반영한 성취기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운영

실무 과목별 성취기준은 관련 NCS 수행준거를 준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수행준거는 능력단위 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능력단위 요소로 구체화된 직무나 역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특징들을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에서 실무 과목을 운영할 때에 NCS 수행준거의 의미나 지향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NCS 수행준거를 토대로 하는 성취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개정 2022.1.17.>

●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 개설 가능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설된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부 전공 과정은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을 기반으로 자격·직무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과정으로 통상 운영하던 전공 코스제를 의미한다.

부전공 과정은 다기능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소속 학과 외 타 학과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24학점 이상) 선택·수강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 간 융합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별도의 융복합 학과로의 개편 및 학생의 전과 없이도 소속 학과의 전공 과정과 타 학과 과정 이수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자격 취득 과정은 학과의 인력양성 유형과 연계된 자격(과정형 자격과 검정형 자격을 모두 포함)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자격에서 요구하는 과목 및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Q: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부전공 24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때, 학과별 동시에 중복 편성된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용 과목은 전문공통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등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지요?

A: 부전공을 하려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타 학과에 동시에 개설된 과목은 중복 이수 없이 한번만 이수하더라도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부전공 과정은 타 학과의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타 학과 전공과정의 과목과 능력단위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전공 학점 인정 과목 범위는 전문교과 II의 기초 과목과 실무 과목만으로 한정하며, 24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에만 부전공으로 인정합니다.

다) 전문 교과II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전문 교과II의 기초가 되는 과목의 보통 교과 이수 인정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II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와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는 전문 교과Ⅱ의 ‘창업일반’, ‘기계일반’ 등의 기초과목을 보통 교과와 기술·가정 교과(군) 선택 과목(일반선택 또는 진로 선택)으로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전문 교과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경우, 과목의 학점 수는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의 학점 수를 따른다. 둘째,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은 대체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 한편, 여기에서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모두를 의미한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보통 교과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Ⅰ 과목을 전문 교과Ⅱ 과목 으로 교체 편성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은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가정 교과와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등의 선택 과목을 전문 교과Ⅱ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 교과Ⅱ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영상 제작의 이해’, ‘생태와 환경’ 등과 같은 전문 교과Ⅰ 과목들도 전문 교과Ⅱ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는 전문 교과Ⅱ의 ‘프로그래밍’, ‘정보처리와 관리’, ‘창업 일반’ 등의 과목을 보통 교과와 기술·가정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마) 삭제 <2019.12.27.>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 교과Ⅱ 과목 내용 구성의 유연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되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실무 과목에 특정 NCS 능력단위를 추가할 경우에는 실무 과목 명칭과 기존의 내용 요소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헤어 미용’ 실무 과목에 ‘헤어 미용’ NCS의 능력단위 가운데 실무 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크리에이티브 헤어 커트(능력단위 코드 번호 1201010145_17v4)’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인력 양성유형과 무관한 ‘서양조리’ NCS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는 없다.

둘째, 실무 과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할 때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추가하려는 주제나 내용 요소가 NCS 능력단위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NCS 능력단위)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NCS 능력단위가 아닌 주제나 내용 요소를 보조 학습 자료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실무 과목의 내용 영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나 산업 수요, 학교의 교육 환경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선택한 내용 영역(NCS 능력단위)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측량’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 NCS 능력단위 가운데 지역 여건이나 산업수요에 따라 ‘지하 시설물 측량’ 내용 요소를 제외할 수는 있지만, ‘하천 측량’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측량’ 과목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비서’ 실무 과목을 구성하는 8개의 능력단위 가운데 학교의 여건 때문에 ‘비서 사무정보 관리’ 내용 영역만을 선택하여 ‘비서’ 과목을 운영할 수 없다. 선택한 일부 NCS 능력단위만으로 해당 실무 과목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는 실무 과목의 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이 새로 개발된 경우 새로운 학습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NCS는 수시로 개정됨에 반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수정 고시는 일정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교육과정이 새로 개발된 학습모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추구하는 인력 양성유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정·고시된 NCS를 전문 교과Ⅱ의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개정 2018.4.19.>
-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현장 실습의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현장 실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체 기반 현장 실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또한, 현장 실습은 교내 활동(창업동아리, 교내실습, 학교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관련 법령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 사전교육, 업체 선정 기준 마련 등의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 실습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의 과정과 결과도 학교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산업계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실습 관련 과목에서의 안전 교육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적용되면 학생들의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 실험·실습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유관 산업체나 지역사회의 학습 장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험·실습과 관련된 교과 운영 시 학생들이 실습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운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와 경력 개발, 취업 역량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운영**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산업의 발달, 학문적인 추세 및 시대적 요구 등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교과(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가 새로운 교과(군)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새로운 실무 과목의 개설·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인력 양성 유형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며 타당한 방식으로 교육에 필요한 능력

단위를 선정하고, 이 능력단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무 과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새로운 실무 과목의 개설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체계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특화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함양해야 할 기초소양과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통 교과 필수 이수 학점은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학과 설치·운영**

일반 고등학교에서 산업수요 및 직업을 고려하여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비롯하여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즉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위해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편성·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하) 삭제 <2022.1.17.>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7.>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시·도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범주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국립학교의 교육과정

국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지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시기부터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시·도 교육청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의 경우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모두 편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7.>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및 교육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 등을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이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지만 그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학교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제시

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 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현행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따른다.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 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12.31.>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에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②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다.
- ③ 학교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과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목적**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한 실행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중심 체제는 교과서에 학습자를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이 없어지고 경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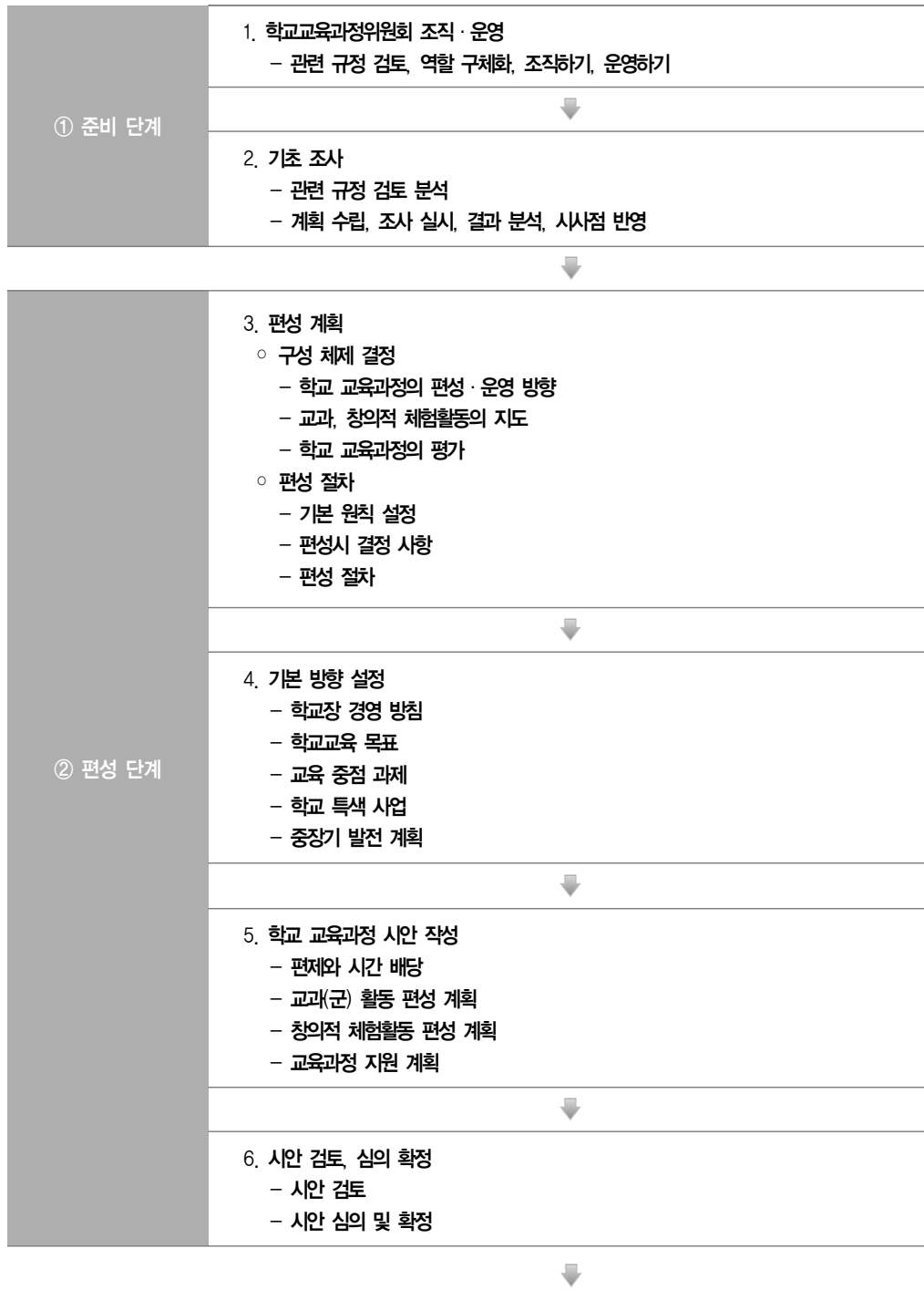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하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교육 목표, 당해 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나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절차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① 준비 단계, ② 편성 단계, ③ 운영 단계, ④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를 예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예시)



③ 운영 단계	<p>7. 교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시수 증감 운영 - 교과(군) 집중 이수제 - 블록타임(Block Time)제 운영 - 수준별 수업
	↓
	<p>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 - 내용 및 운영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
	↓
	<p>9. 범교과 학습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
↓	
④ 평가 단계	<p>10. 운영 관련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보충 수업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
④ 평가 단계	<p>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체제 ○ 학년(군) 학급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지원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근거하여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교과목별 학년(군)별 목표 결정**

- 각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년군별 목표를 결정한다.
- 학년군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 상세화한다.

②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체화한다.
 - 교육 내용을 특성화, 보완, 통합하는 작업을 한다.
 - 학생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경험 제공 계획을 포함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은 종래의 국가 주도적인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여야 한다.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존중하고, 적성과 진로 및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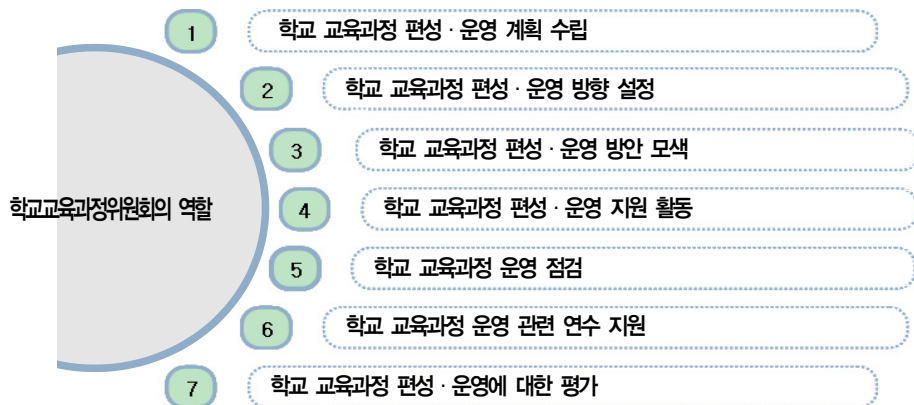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량권을 갖게

된 각 학교에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신념, 그리고 전 교직원의 공동 사고와 참여 속에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사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열린 사고를 갖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편성에 동참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과 개정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은 교원들의 재량권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므로 모든 교직원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능동적,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는 학부모는 물론, 지구 자율장학협의회, 교육과정건설지원단, 교육과정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교원 양성 대학 교수, 지역 교육관련 단체 및 교육 전문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조연과 위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편성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심의를 맡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가 상호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교원 위원은 담당 업무별, 교과별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여 회의 주제에 따라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위원은 자녀의 학년별,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학생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지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시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경우,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현장 실습 등이 이루어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 통합교육 실시 학교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학급¹⁸⁾ 또는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¹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통합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교육 받거나(완전 통합교육), 특정 시간에만 특수학급에 가는 경우(부분 통합교육), 그리고 특수학급에서 모든 시간을 교육 받지만 주요 학교 행사에는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어느 경우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해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18)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초·중등학교의 일반학급을 의미한다.

19)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 계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통합교육 계획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가 참여하여 협의할 사항으로는 각종 학교 행사나 현장체험 활동(현장 실습 포함) 계획 수립, 시간표 작성, 통합학급 내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특수학급 교육 활동 NEIS 기록 혹은 반영 방법, 장애이해 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관련 사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일반 교육과정의 연계 및 적용 방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평가 조정, 개별화교육프로그램 구안과 적용 방안 등이 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학교 전체 차원은 물론, 학년별 혹은 각 학급별로 협력과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고려사항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에선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포함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 학생 실태에 비추어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음은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①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지역과 학교에 적절한 교수·학습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 부터 우선한다.

②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해설,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팀티칭, 협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③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블록타임 수업이나 전일제 운영 등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④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자연계의 생태,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⑤ 학습 형태·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⑥ 학습 매체의 결정

- 교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학습 매체 선정 시,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학습 매체 선정 시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⑦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순서의 융통성

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는 학교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에 따라 교과 내용의 순서, 비중 및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체험학습의 실천 방안

조사, 탐구, 견학, 답사, 실험, 실습, 관찰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체험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설비, 문화재, 고적, 전적지 등을 이용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시설이나 설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강구되어야 하며,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

용, 교원의 원활한 교류 등도 가능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누적되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 및 진로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적 편성·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실천 중심의 체험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경험과 행동을 통한 학습에 초점을 두고 활동 방향을 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할 수 있다. 둘째,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각 영역별 활동과 하위 활동은 학교 및 학년 단위, 학급, 동아리 부서, 지역사회 중심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별 시간 편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지를 결정한 후에는 운영 형태에 따라 시간 배분을 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년별로 시수를 다르게 배정할 수도 있다.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

고,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학교 내 교육 활동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외부의 지도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 지도**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현실 생활에서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학습의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이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도록 교사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한편,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과 함께 정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이 사회 규범이나 학교 규칙에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범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즉, 참된 배움의 가치를 알고 이를 통해 자기 생각이 형성되어 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사의 교육 활동 개선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 수업 개선을 위한 동료 장학, 요청 장학 실시와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중장기 연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과정 개설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연수는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

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연수가 필요하며 강의 위주의 연수에서 실질적인 학습 위주의 연수, 교사의 희망을 고려한 수요자를 존중하는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고 현장 적용과정과 토의과정을 거치는 연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활동 및 연수 혁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 활동 및 연수 내용이 수업에 즉시 활용되도록 한다. 한편 교사의 지속적 학습 개선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단위 자율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자율연수 지원단 등을 활용한다.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학교 교육과정 평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하면 <표 IV-1>과 같다.²⁰⁾

20)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것이다.

〈표 IV-1〉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 예시 자료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 과정 계획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적을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교과 교육 활동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수업을 실시하였는가?
		• 교과별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장학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 과정 성과	교육 성과	• 학생은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의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었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교·교사·학생은 교육과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사는 교육과정 성과를 다음 해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12.31.>

● 학교 교육과정에서 원격수업 계획·운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 등에 근거하여 학교별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학교가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교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등을 반영하며,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학생 참여 및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별 교원 및 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학습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생의 성장을 조력하는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과 보충학습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학습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목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목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7) 학교의 여건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교과 학습의 중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할 것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다. 방대한 양의 교과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 개념들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의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일반화나 원리를 구성하여 그것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식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단순히 암기하고 회상하는 학습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개별 사실들이나 정보를 관련지음으로써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탐구를 유도하는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획득한 일반화된 지식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수업 설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서 각 교과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별 기능이 매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경험되어야 한다. 이 경험은 학년마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 인지 및 학습능력은 다르다. 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수업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내용이 자신의 선경험, 선지식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동일한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며 이렇게 축적되는 경험으로 학생은 교과 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가.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융합적 사고 지도 방안

다양한 지식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융합적 사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이 조직되어 있으며, 교사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공통성 혹은 관련성을 가지는 지식을 연결하여 교과 내 영역간, 교과 간 내용을 통합한 교수·학습 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가.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학생 참여 수업 활성화

학습 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제시하는 강의식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교과의 개념, 원리, 아이디어의 관계성, 교과 고유의 사고기능 및 탐구기능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논증과 실증으로 정당화하는 토론 학습, 여러 사람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결론을 내는 토의 학습 또한 학생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토의·토론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은 교사뿐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 활발한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거나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

가.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협동학습 경험 제공**

학습자마다 선행 학습의 정도나 현재 지식수준, 능력, 학습 선호도,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상이하므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화된 학습은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준비 정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 선호하는 학습 방법,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 방법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개별 학습 활동은 단순히 학습자가 혼자서 하는 학습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며 활동 방식은 학습자 개인 활동 또는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활동 모두 가능하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며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소집단 구성원 간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의 인지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소집단 내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의 수행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공동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협동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조정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가.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학습 내용의 실제적 적용**

각 교과와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원리를 학습할 때 그 내용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탐구하는 활동 속에서 개념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계획되어야 한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은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생활 기반 활동은 학생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교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학생이 맞닥뜨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가.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은 학생 안에서 일어나며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주도해갈 때 학습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주도하며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낀다.

교사는 교수·학습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먼저 학생의 선경험, 선지식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이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확인하고, 점검 및 평가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

교실은 모든 학습자와 교사가 교실 속에서 존중되는 안정적인이며 공정한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상호 성장과 성취를 위하여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성공적인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이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학생 맞춤형 수업

학생들은 개개인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과별로 성취해야 할 최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의 학습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학습 방법은 다양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출 수 없다. 따라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은 다양해져야 하며 특히 성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경직되면 전체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 하도록 해야 한다.

나.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 보충 수업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은 교실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 내용을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 시기와 대상 학생을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과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나. 4) 각 교과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교과 교실제 운영**

각 교과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를 활성화한다. 학습자의 진로 지도와 관련한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각 교과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한 특성화된 교실이 요구된다. 과학 실험과 음악실 악기를 활용한 실용 교육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적극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교육 여건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학담당자는 각 교과 전용 교실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계획, 활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나.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 자료, 기타 교육 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 등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종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강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한다. 그리고 시청각 기자재와 컴퓨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담당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활용 방법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교육 자료에 대해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및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지도상의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체 개발 교재, 교구, 수집 자료 등도 훌륭한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교육 자료를 누적·보존하여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서는 실험·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및 기구를 미리 점검해 보고 수업에 투입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과의 경우 실험 도구와 약품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 담당 교사는 대응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 처치 방법도 익혀 두어야 한다. 실험실, 체육실 등에는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수칙을 게시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나. 7) 학교의 여건과 교과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 운영

학교는 학교의 여건, 교과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을 설계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및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원격수업을 운영할 때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거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즉 원격수업에서는 일방향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습 활동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결과를 상호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급별 수업 시간, 학습 내용의 수준, 학생의 다양한 상황, 학습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업량을 확보함으로써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평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평가의 목적

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포함되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학습이 끝난 후 가르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의 능력을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을 돕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평가 정보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여 교육적 노력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교육 목표 도달도를 판단하여 학습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적합한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습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 학생이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을 수정·보완 하며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에 필요한 내용과 기능을 확인하고 수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형성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여 다음 학습 목표나 다음 수업시간의 학습 과제 선정에 필요한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총괄평가로 학업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수업 내용과 수준을 점검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 방법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성취기준은 각 교과에서 학생이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할 지식이나 기능 혹은 태도를 담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것에 대한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밖의 평가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학교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 활용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는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면에서 진단평가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학생의 수행을 효과적인 수업 계획과 실행 전체를 통해서 평가한다는 면에서 형성평가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학생평가는 교수·학습의 일부로 전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평가 방법의 경우, 사용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일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평가의 과정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수행의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준거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자기 평가하도록 한다. 다양한 수행 지표에 대해서 교사와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형태의 평가는 학생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학습과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인다. 자기평가도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개인별로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서 자신이 알게 되고 느끼고 배우게 된 것, 반성하게 된 것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서술형 평가 방법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거나 풀이과정을 제시하는 등 학습한 내용을 기술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술은 비교적 짧은 길이로 작성하며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조직력이나 표현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채점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답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논술형 평가 방법은 생각이나 주장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제시한 생각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표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채점 시 교사(채점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수행평가 과제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의미있고, 도전적이며,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실생활 맥락성, 간학문성, 다차원적 측면들을 강조한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수행평가 과제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실생활에 가깝고 교과 통합적이며, 여러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행평가를 확대하면 정의적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실제 생활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고등사고기능이나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또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평가하여 학습자의 학습에서의 진보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고 학생들 또한 자기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게 된다.

평가 방법은 교과와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교과 교육 활동에서 사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일관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교과 평가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자아개념, 가치관, 흥미, 태도, 책임, 협력, 동기 등의 정의적 측면이나 다양한 교과 관련 기능적 측면, 또는 확산적 사고를 포함한 창의적 면이 중시되는 교과는 평가계획 수립에 있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감 가능하며 전문적인 평정 기준과 척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실험·실습 과정의 직접 관찰, 결과 보고서 등 계획된 모든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단편적 기능뿐 아니라 적용 능력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또한, 실험·실습의 평가 시행에 있어 세부 평가 기준을

학생에게 명확하게 공개한 후 실시해야 한다. 수행 기준과 평가 기준이 명백하게 마련되어 충분히 논의된 후 학생이 학습 활동과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 등의 인성을 함양하며, 자발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의 실태, 학습자의 능력이나 요구 등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하여 활용해야 한다.

다. 5)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의 능력단위 기준의 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전문 교과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 교과Ⅱ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 것은 산업사회의 요구와 고교 직업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직업교육 학습성도가 산업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자격 제도나 채용 방식이 개편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 학교 직업교육 경험이 여러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기본 단위인 NCS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 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육적 편견 극복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교육은 타인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양성평등 교육은 다른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므로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통해 각자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상의 학력 차별 및 과도한 학력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현장 산업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고교 직업 교육 강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학력을 중시해 온 사회 풍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 없는 개방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각 사람의 강점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등 심신 장애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학습 자료도 학생의 개별화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달라진 현실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적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임을 주지하고,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특수 학급 설치·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한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첫째,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은 통합교육의 정신과 원칙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만, 장애 유형²¹⁾에 따라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2015k)의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²²⁾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지적 장애가 심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도 수행이 어렵거나, 장애학생을 위해 특성화된 진로·직업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할 경우 교수·학습과 평가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표 IV-2>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교과별로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 예시’이다.

21)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22) 중도의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안형교육과정인 기본 교육과정(초·중·고 과정),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인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초·중 과정),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정인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 등

〈표 IV-2〉 특수교육 교육과정 활용 예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비고(대상)
국어	○ 기본 교육과정 국어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국어	• 중도 지적장애학생 •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영어	○ 기본 교육과정 영어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영어	• 중도 지적장애학생 •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체육	○ 기본 교육과정 체육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체육	• 중도 지적장애학생 •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그 외 교과	○ 기본 교육과정 해당 교과	• 중도 지적장애학생
중학교 선택 교과의 '진로와 직업'	○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 지적장애학생
고등학교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과목의 '진로와 직업'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과목	• 지적장애학생 •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과목	• 지적장애학생 •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둘째, 장애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및 교과용 도서 보완자료나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se.kr/>)의 [학습자료나 [교육용 프로그램] 메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다문화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원칙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하되 특별 학급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문화·사회적 차이로 인해 일반학급에서 교우들과 함께 학습하기 어려운 과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 교과목 및 활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다문화 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에 한정하여 특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문화 학생이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소양을 갖추어 나가면서도 많은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단계는 그림을 통한 어휘 학습과 표현에 관한 학습, 일상 생활에서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대화, 문제 상황에서의 대화 및 기초적 읽기/쓰기 학습, 발음 교정 및 학습 어휘 학습, 학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의 단계를 참고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 **종교 과목 개설 시 고려사항**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에서는 종교 과목을 단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교 과목 개설과 관련한 학교의 방침을 충분히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 **교육기본법 제6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존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유기적 협력 지원

국가 차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대국민 연수·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군)별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책무성이 있음을 인식시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교육과정의 질 관리

이 지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를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취업 중심 교육 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졸업 후 바로 일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따른 교육 내용의 차이, 학력 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보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 기초 능력의 신장 및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촉진시킨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학교의 평가 활동 지원

국가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실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다.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존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또는 직무 분석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가 인증·고시한 것이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과를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산업계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된 절차, 방법, 양식에 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산업계의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다.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이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과 교육 과정에 관한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 교과 연구회 지원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인력풀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 연구회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회뿐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연구하는 총론 차원의 연구회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회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지원**

학교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도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다양한 교과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원 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선택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행복한 학습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학교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나. 지역의 특성상,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9)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2020.12.31.>
-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2.1.17.>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자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자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명칭, 구성, 임기, 방법 등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기능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의 내용과 자문의 범위 및 기능 등을 정하여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교과별·학교 급별 분과 및 심의 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교과별·학교 급별 분과 및 심의분과’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의 분석 및 검토, 교육 중점 사항 설정 및 자문 등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연구팀을 조직·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팀을 조직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이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침(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가.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 급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학교 급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관련한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필요, 단위학교별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해당 지역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의 교육 중점 사항을 설정한다. 이때, 기초 조사·연구 활동은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각종 학회와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장학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예시 자료(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와 교수·학습 자료, 자유학기 활동 자료 등을 조기에 개발·보급하고, 매 학년도 개시 이전에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 및 대책을 면밀히 세워 교원의 전보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교과용 도서 인정·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정·검정 도서가 없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인정 도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수업 자료의 형태는 서적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지털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서나 지도서 같은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매체의 개발·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자유학기 지원계획 수립·추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 자유학기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학기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자유학기 운영 체제 및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역별·학교 규모별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방안, 자유학기 중 운영되는 4개 영역별 다양한 체험활동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보급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자유학기 활동과 교과 수업 및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 관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 나눔과 성찰, 수업 모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교과 연구회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 자유학기 체험 자원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별,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 지원체제(단)’을 구성하여, 협동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연수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 활동이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단위학교 교과목 개설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의 승인 신청 절차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부여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학교에서 해당 신설 과목에 대비하여 담당 교사 확보 계획 및 교재 개발 계획,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 자원 목록 작성 및 제공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파악하여 '지역 자원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은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지역 자원 목록' 등을 지원받아서 학교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교사 운영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등의 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 소요 변화를 예측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근학교 겸임(순회) 교사 발령은 물론, 교원 양성, 부전공 연수 등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인접 교육청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단위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배정의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개별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시설과 설비를 관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미이수 과목 이수 기회 제공 및 인정

전·입학, 편입학, 복학 또는 귀국 학생 등의 경우 각 학교 간 및 입학 년도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 교과 또는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이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기 중 또는 별도의 이수 시기를 정하여 이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미이수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 단위학교에서 미이수 과목 중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활용, 순회 교사 활용, 강사 채용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배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 학생 교육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위 학교가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를 교육지원청별 또는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정 기간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기 해외 체류로 발생한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국내 생활 및 학교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특

별 학급을 지정·설치하여 귀국 학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구별로 공동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귀국 학생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 증대를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는 개별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에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지역 및 단위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기초 실태 조사를 통해 문학, 외국어, 과학, 체육, 예능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급별로 이를 위한 방과후 교육 활동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단위 학교에 보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연수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교원 연수 계획 및 시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새 교육과정의 총론 및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현장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수 과정에서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그 개발 과정 및 검토되었던 쟁점들, 지침의 기본 이념 및 지침 적용 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학교에서 작성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및 그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소속된 교육 전문직 대상의 교육과정 연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 학교 운영 위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타.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및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전문적인 컨설팅 기구를 조직 운영하여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 결과가 국가 수준의 각종 평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은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학교별 연수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모형 개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위한 연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한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이때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원 조직이 되도록 한다. 학교나 개별 교사가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등을 모아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타.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연구학교, 연구교사,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수업 개선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교과별·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교사 및 교원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도 능력과 연구 수행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연구 교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 연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연구 교사제 운영을 위한 방침을 세워 연구 영역 및 연구 기간, 연구 교사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교원 연구 모임을 적극 발굴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과 및 비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교육 시설, 설비, 자료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교육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안전한 학교 시설 운영을 위해서 단위학교별로 교육 시설 및 설비를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점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점검기준의 내용에는 교육시설 및 설비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사용되는지 여부와 교육

시설이 교육 활동을 지원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학생 안전을 위해 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과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점검 및 정비는 매 학년도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구축에 대한 단위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 교과 수업모형의 예시자료,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운영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파.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탐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제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교원 수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군)별로 해당 교과목 교원의 인력풀을 구축·안내하여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소수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시·도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순회 교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단위학교의 교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진로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을 위한 집중학년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운영하려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진로학기제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진로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별 과목 선택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수 설계와 관련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파.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농촌·산촌·어촌 및 벽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둘 이상의 다른 학년이 하나의 학급이나 교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학년 체제 운영 방식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교원 배치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공동 편성이나 교원 순회제 등 소규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학교 간 공동 학생 프로그램 개발,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의 협회가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구별 장학 협의회나 교과별 협의회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학력 수준이나 체험활동 기회 부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수준별 수업을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수준별 수업 운영의 수업모형과 예시자료, 수준별 수업 적용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구별 장학과 교과 연구회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방법과 수준별 수업 자료 등의 연구와 개발·적용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지도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진단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파.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학교의 돌봄 기능이 활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의 돌봄 기능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 활동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 및 보육 교실 운영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사 확보, 학습 시설 및 교재·교구의 구비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수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집중 과정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희망하는 집중 과정을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집중 과정을 개설할 인근 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련한 지침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지역 내 개별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집중 과정의 유형과 운영 방식, 집중 과정 개설학교의 지정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학교 간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하는 등 소수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파.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독서 활동 활성화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인 ‘심미적 감성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성장시키고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의 함양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로 독서 활동을 들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독서 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특히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연계, 지역사회 연계, 가정학습을 연계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독서 활동 프로그램은 교과 연계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서활동을 기반으로 교과 융합수업 모형, 교과용 독서지도 매뉴얼, 도서관 연계(사서 교사 협력 등) 독서 수업 모형, 교과용 도서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초·중·고 학교 급에 따른 독서 활동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고, 독서 활동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를 통해 독서 활동 지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 수준에서 독서 활동 지도 방법과 자료 제작을 연구·개발하는 교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단위학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를 확보하여 학생의 독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파.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특성화된 교육과정에서의 내실 있는 현장 실습 운영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연계·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산학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현장 실습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현장 실습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산업체와 긴밀한 상호협력 등을 통해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 9)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2020.12.31.>

●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지원**

시·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음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격수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고려한 원격수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원격수업 설계 및 운영, 콘텐츠 활용 역량, 디지털 소양, 원격수업 사례 개발 등에 대한 교원 연수 및 수업 코칭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2.1.17.>

● **학점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추진**

시·도교육청은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 개발과 보급, 교원 연수, 학교 컨설팅,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급, 교육 소외 지역의 교·강사 인력풀 구축, 학습 환경 및 공간 개선,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지원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로 조직·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질 관리 연구팀이나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조언을 실시한다.

하.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학교 교육과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 급별 교육 목표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하.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청 수준의 자체 평가 강화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단위학교의 평가를 수렴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원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부 록

〈부록 I〉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부록 II〉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부록 I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부록 IV〉 실무 과목과 NCS 세분류 관계의
변화 내역



[부록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 와 같습니다.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 와 같습니다.
20.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 과 같습니다.
21.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 과 같습니다.
22. 예술 계열 전문 교과(보통 교과 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22】 와 같습니다.
23.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 과 같습니다.

24.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 와 같습니다.
25. 전문 교과II 교육과정은 【별책 25~41】 과 같습니다.
26.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42】 와 같습니다.
27. 한국어 교육과정은 【별책 43】 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II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2010.5.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호(2011.1.2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2011.2.2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8.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2012.3.2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2012.12.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2013.12.1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부 3.0정보 공개)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

【별책 1】 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교육부 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 12. 1.)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 ‘한국사’ 과목의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육부 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 제2017-108호(2017. 1. 6.))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 및【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교육부 장관

1. 한국어 교육과정은【별책 43】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다.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라.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2. 【별책 43】한국어 교육과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 9. 29.)) 【별책 1】 총론(II-4, 고등학교) 및 【별책 25~41】 전문 교과II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II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3) <생략>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생략>

나) 전문 교과II

<표7> 과목명 일부 개정, 교과(군) 구분선 삭제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3) <생략>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④ <생략>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바) <생략>

사) <생략>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생략>

아)~ 파) <생략>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전문 교과II 교육과정은 【별책 25~41】 과 같습니다.
 -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26】 보건복지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27】 디자인문화 콘텐츠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28】 미용관광레저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29】 음식 조리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0】 건설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1】 기계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2】 재료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3】 화학 공업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4】 섬유·의류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5】 전기·전자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6】 정보·통신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7】 식품 가공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8】 인쇄·출판·공예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39】 환경·안전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40】 농림·수산 해양 전문 교과 교육과정
 - 【별책 41】 선박 운항 전문 교과 교육과정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별책 25~41】 전문 교과II의 실무 과목은 2019년 3월 1일부터, 기초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2018. 4. 19.) 중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교육부 장관

1.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2.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학교 급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5, 6학년군)
 - 나.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중 역사
 - 다.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한국사

부칙

1.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중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7. 27.)) 【별책 1】 총론(II-4, 고등학교)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II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생략>

2) 단위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⑧ <생략>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3)~4)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생략>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통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파) <생략>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바) <생략>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라) <생략>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 I 으로 편성한다. <신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라) <생략>

마) <삭제>

바~과) <생략>

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단,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하)항은 2020년 3월 1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 12. 27.))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II.4. 고등학교) 【별책 1】 과 수학과 교육과정 【별책 8】 , 영어과 교육과정 【별책 14】 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II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 2) <생략>				
3) 보통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생략>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다) <생략>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① <생략>

② 보통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과) <생략>

2) ~ 3) <생략>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 기초능력 및 직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3.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 4. 14.))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II-4. 고등학교) 【별책 1】 과 수학과 교육과정 【별책 8】 ,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별책 10】 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9월 11일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II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4. 고등학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 2) <생략>				
3) 보통 교과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중략>				
생활 · 교양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 생략 >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3.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4.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2020. 9. 11.))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 1】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제Ⅲ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사항, 2. 교수·학습’, 제Ⅳ장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가.~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2. 교수·학습

가. (현행과 같음)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6) (현행과 같음)

7)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평가 (현행과 같음)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다. (현행과 같음)

과.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4】와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 고시 제2022-2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2020. 12. 31.))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별책 1】 총론의 제II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1. 기본사항’, ‘4. 고등학교’, 제IV장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중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마. ~ 차.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1) 편제 (현행과 같음)

2) 학점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3〉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소계	94	80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학점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4〉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보통 교과	(중략)	(중략)	(중략)
		소계	66	22
	전문 교과II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수로 환산한 것이다.

⑥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5〉 (현행과 같음)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표6〉 (현행과 같음)

-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나) 전문 교과 II

〈표7〉 (현행과 같음)

- ① 전문 교과 II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 나) ~ 다) (현행과 같음)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 마) ~ 바) (현행과 같음)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

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현행과 같음)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현행과 같음)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외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타) ~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현행과 같음)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 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

- 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바) (현행과 같음)
-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현행과 같음)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II를 86학점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 다) ~ 파) (현행과 같음)
- 하) 삭제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현행과 같음)
- 바. ~ 사. (현행과 같음)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 가.~타. (현행과 같음)
- 파.

1)~9) (현행과 같음)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 (현행과 같음)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1】 과 같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4】 와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2022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나. 2023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개정 2022.1.17.>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2. 초등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다만, 1, 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1〉

구 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소계	1,408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336 안전한 생활 (64)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1,744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 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를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3)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특히 국어 사용 능력과 수리 능력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5)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로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6)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7)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선택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표 2〉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 4)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 5)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 마)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0)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개정 2022.1.17.>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 ㉠ 보통 교과의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포함)으로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문 교과

- ㉢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Ⅰ과 전문 교과Ⅱ로 구분한다.
- ㉣ 전문 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 ㉤ 전문 교과Ⅱ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 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 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림·수산해양, 선박 운항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 교과Ⅱ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학점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3〉 〈개정 2022.1.17.〉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⑥ 기초 교과 영역 이수 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⑧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4〉 〈개정 2022.1.17.〉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 ④ 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 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 ⑥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 5〉 〈개정 2020.9.11.〉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본 수학, 실용 수학, 인공지능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 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 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인공지능 기초
	제2 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①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 ②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체육 교과는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 I

〈표 6〉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II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II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 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체육 전공 실기 심화	체육 전공 실기 응용	
	스포츠 경기 체력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분석	
예술 계열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 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 조형
	입체 조형	매체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실습	안무	무용과 매체	무용 감상과 비평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시나리오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암실 실기	중급 촬영
사진 표현 기법	영상 제작의 이해	사진 영상 편집	사진 감상과 비평	
외국어 계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II	심화 영어 I	심화 영어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II	심화 영어 작문 I	심화 영어 작문II
	전공 기초 독일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II	독일어 독해와 작문 I
	독일어 독해와 작문II	독일어권 문화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I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I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II	프랑스어권 문화		
	전공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I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I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II	스페인어권 문화		
	전공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II	중국어 독해와 작문 I
	중국어 독해와 작문II	중국 문화		
	전공 기초 일본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II	일본어 독해와 작문 I
	일본어 독해와 작문II	일본 문화		
	전공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I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 I
	러시아어 독해와 작문II	러시아 문화		
	전공 기초 아랍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II	아랍어 독해와 작문 I
	아랍어 독해와 작문II	아랍 문화		
	전공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I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 I
베트남어 독해와 작문II	베트남 문화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① 전문 교과 I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나) 전문 교과II

〈표 7〉 〈개정 2018.4.19.〉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경영·금융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세무 일반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금융 일반 보험 일반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 커뮤니케이션 전자 상거래 일반	총무 비서 사무 행정 회계 실무 구매 조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수출입 관리 유통 관리 카드 영업 무역 금융 업무 손해 사정 전자 상거래 실무 방문 판매	노무 관리 인사 예산·자금 세무 실무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물류 관리 원산지 관리 창구 사무 증권 거래 업무 보험 모집 고객 관리 매장 판매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복지		인간 발달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보육 과정 아동 생활 지도 아동 복지 보육 실습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복지 서비스의 기초 사회 복지 시설의 이해 공중 보건 인체 구조와 기능 간호의 기초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보건 간호	영·유아 놀이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영·유아 교수 방법 영·유아 대인 복지 서비스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제도 디자인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게임 디자인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제품 디자인 색채 디자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만화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관광· 레저		미용의 기초 미용 안전·보건 관광 일반 관광 사업 관광 서비스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헤어 미용 메이크업 여행 서비스 실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피부 미용 네일 미용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카지노 서비스 실무	미용과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서양 조리 일식 조리 바리스타	조리·식음료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건설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과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정	토공·포장 시공 지적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건축 도장 시공 단열·수장 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정 시공 조정 설계	측량 공간 정보 구축 건축 목공 시공 창호 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경량 철골 시공 조정 관리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색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워터젯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자전거 정비 냉동 공조 장치 설치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색시 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 영업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양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소형 무인기 정비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즈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오토바이 정비 냉동 공조 설계 보일러 장치 설치 보일러 설치·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자동차 튜닝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재료		재료 시험 세라믹 재료 세라믹 원리·공정 재료 일반 산업 설비	주조 제강 금속 재료 가공 압연 도금 광학 재료 생체 세라믹 재료 내화물 도자기 탄소 제품 배관 시공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제선 금속 열처리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비철 금속 제련 전기·전자 재료 내열 구조 재료 유리·법랑 연삭재 시멘트 판금 제관 피복 아크 용접 이산화탄소 가스 매탈 아크 용접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화학 공업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공업 화학 제조 화학 단위 조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로봇 용접 화학 분석 화학 물질 관리 화학 공정 유지 운영 석유 화학 제품 고분자 제품 제조 무기 공업 화학 기능성 정밀 화학 제품 제조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화학공업과
섬유·의류	섬유 재료 섬유 공정 염색·가공 기초 의류 재료 관리 패션 디자인의 기초 의복 구성의 기초 패션 마케팅	방직 제포 텍스타일 디자인 생산 현장 관리 패턴 메이킹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가족·포피 디자인과 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방사·사가공 염색·가공 구매 생산 관리 패션 디자인의 실제 비주얼 머천다이징 니트 의류 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섬유과 의류과
전기·전자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기 설비 자동화 설비 전기·전자 기초 전자 회로 전기·전자 측정 디지털 논리 회로	수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설비 운영 송·변전 배전 설비 운영 직류 송배전 제어·보호 시스템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제작 전기 설비 운영 외선 공사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전기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전자 제품 생산 전자 부품 생산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제품 영업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정보 통신 기기 기구 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장비 개발 디스플레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로봇 기구 개발 로봇 지능 개발 의료 기기 인허가 의료 기기 연구·개발 레이저 개발 3D 프린터 개발 가상 훈련 시스템 설계· 검증	화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 발전 전기 설비 정비 직류 송배전 전력 변환 설비 제작 전기 기기 설계 전기 기기 유지 보수 내선 공사 변전 설비 공사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전기 철도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전자 제품 기획 전자 부품 기획 전자 부품 기구 개발 전자 제품 설치·정비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생산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 유지 보수 의료 기기 생산 광부품 개발 LED 기술 개발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가상 훈련 구동 엔지니어링	전기과 전자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정보·통신		통신 일반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방송 일반 정보 처리와 관리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컴퓨터 시스템 일반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무선 통신 구축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프로그래밍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빅데이터 분석 정보 보호 관리	유선 통신 구축 초고속망 서비스 관리 운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 보안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서비스 기획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식품 가공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식품 분석	곡물 가공 식품 품질 관리 면류 식품 가공 축산 식품 가공 유제품 가공 음료·주류 가공 농산 식품 유통 제빵	떡 제조 수산 식품 가공 두류 식품 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김치·반찬 가공 농산 식품 저장 제과	식품가공과
인쇄·출판 ·공예		인쇄 일반 디지털 이미지 재현 출판 일반 공예 일반 공예 재료와 도구	프리프레스 특수 인쇄 출판 편집 도자기 공예 석공예 보석 감정	평판 인쇄 후가공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귀금속·보석 디자인	인쇄·출판과 공예과
환경·안전		환경 화학 기초 인간과 환경 산업 안전 보건 기초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산업 환경 보건 기계 안전 관리 건설 안전 관리 가스 안전 관리	대기 관리 소음 진동 측정 환경 생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림· 수산 해양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경영 재배 농촌과 농지 개발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거래 관광 농업 환경 보전 친환경 농업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산 식품 가공 원예 생산 자재 조경 식물 관리 화훼 장식 기초 산림 휴양 산림 자원 임산 가공 동물 자원 반려동물 관리	수도작 재배 육종 종자 유통 보급 농촌 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품질 관리 과수 재배 화훼 장식 산림 조성 임산물 생산 펠프·종이 제조 가금 사육 한우 사육 말 사육 사료 생산 애완동물 미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연안 어업 원양 어업 염 생산 어업 환경 개선 내수면 양식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전특작 재배 종자 생산 농업 생산 관리 농촌 체험 시설 운영 채소 재배 화훼 재배 임업 종묘 산림 보호 버섯 재배 목재 가공 젓소 사육 돼지 사육 종축 동물 약품 제조 수의 보조 농업 생산 환경 조성 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어업 자원 관리 해면 양식 수산 종묘 생산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업식과 해양레저과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선박 운항	실험 동물과 기타 가축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과 물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해양 생산 일반 해양 정보 관리 해양 오염·방제 전자 통신 기초 전자 통신 운용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수산 양식 일반 수산 경영 수산물 유통 양식 생물 질병 해양 환경과 자원 해양 레저 관광 요트 조종 잠수 기술	일반 잠수	산업 잠수	항해과 기관과
	항해 기초 해사 일반 해사 법규 선박 운용 선화 운송 항만 물류 일반 해사 영어 항해사 직무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선박 운항 관리 선박 통신 선박 기기 운용 선박 기관 정비	선박 안전 관리 선박 갑판 관리 기관사 직무 선박 보조기계 정비	

- 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1.17.>
- 나)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 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7.>
-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개정 2019.12.27.>
-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 ①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②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4.14.>
-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17.>
-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17.>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외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2.1.17.>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7.>
- 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 I 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개정 2022.1.17.>
- 나)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 I 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I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 I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 I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 학점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 마)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7.>
- 바)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교과 I로 편성한다. <신설 2019.12.27.>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8.4.19.>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II를 86학점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4.14.> <개정 2022.1.17.>
- ② 학교는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II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개정 2022.1.17.>

- 다)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삭제 <2019.12.27.>
- 바) 학교는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개정 2018.4.19.>
- ② 현장 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아) 학교는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카)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 하) 삭제 (2022.1.17.)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7.>
 - 2)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지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와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아.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자.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차.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카.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타.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0.12.31.>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4)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6)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의·토론 학습을 활성화한다.
- 7)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8)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1)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2)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4) 각 교과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5)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6)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7) 학교의 여건과 교과와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3. 평가

가.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 1)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2)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는 교과와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1)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2)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5)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나.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1) 교과별, 학년(군)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력의 질 관리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개선에 활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 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다. 학교에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1)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라.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바. 이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수준의 교원 연수와 전국 단위의 교과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사.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및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시·도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1)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2)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나.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도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다.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된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수급 및 순회,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자.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와 고등학교 공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차.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카.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교육과정 컨설팅,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1)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등 지원 기구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과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연구 교사제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2)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 수급,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3)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4)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 보충이 가능하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5)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6) 개별 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내 학교 간 개설할 집중 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명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 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명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7)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8)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 과목을 편성·운영할 경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9)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2020.12.31.>
-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2.1.17.>

하.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 3) 교육청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부록 III]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¹⁾

- ①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50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4. 7. 대통령령 제30598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82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2. 13. 대통령령 제27667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19호]
- ⑨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 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39호]
- ⑪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7. 2. 제29950호]
- ⑫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 ⑬ 저작권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 ⑭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 ⑮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전부개정 2017. 10. 24. 법률 제14903호]
- ⑯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 2018. 4. 17. 대통령령 제28798호]
- ⑰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31호]
- 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 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746호]
- 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2호]
- 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 ㉒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1. 28. 법률 제15041호]
- ㉓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19. 12. 10. 제30235호]
- 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0. 1. 29. 법률 제16875호]

1)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검색 일자: 2020. 4. 14.

- 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㉖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 ㉗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4호]
- 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745호]
- ㉙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27호]
- ㉚ 진로교육법 [제정 2015. 6. 22. 법률 제13336호]
- ㉛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7. 3. 대통령령 제29016호]
- 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전부개정 2021. 9. 24. 법률 제18459호]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교육의 이상이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이 다소 달랐을 뿐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교육의 이상이다. 또, 교육은 개인을 보다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개인 차가 발생하게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교육을 운영한다. 따라서 국가는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된다.

나. 교육 이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弘益人間), 전인(全人)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²⁾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 역시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이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였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2)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교육부장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 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급별 교육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도 학교 급별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② 제90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각 학교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2항의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건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는 고등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마. 수업, 학기, 수업 일수 등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5조(수업 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46조(학급 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 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수업 시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44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개교기념일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³⁾ 또한,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하루의 수업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3)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바.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 제46조에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

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50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사.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고등학교 교육 목표,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그리고 해당 교과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외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과정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⁴⁾

4)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점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개정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차.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⁵⁾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3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 Ⅲ]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본 해설서에서는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광복이후 정부가 법령 공포 또는 고시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전면 개정 여부에 따라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고, 교육과정기의 시작 시점은 법령 공포 또는 고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요목기, 그리고 1차부터 7차 교육과정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

8·15 광복으로 일제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잠정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5년 9월 17일 자문 기관인 한국 교육 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의 건의로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일반 명령 제4호로 발표하였다. 1945년 9월 29일 학무국은 일반 명령 제4호를 개정하여 법령 제6호로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하되,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교재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것 등의 지시였다.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는 각 도에 별도의 통첩을 보내 중등학교 교과 과정은 별항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 실업 과목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였다. 이 통첩에 의한 중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은 <표 1>과 같다.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에서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2014b)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표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의 중등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교육부, 2014b)

학년	교과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계
1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2	4	2	2	1	1	1	-	33
2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3	4	2	2	-	-	1	-	32
3	중학	2	6	4	4	5	-	-	5	3	2	-	1	-	2	34
	고녀	2	6	3	2	4	4	3	4	2	2	-	1	1	1	35
4	중학	2	5	4	4	5	-	-	5	3	2	-	-	-	3	33
	고녀	2	5	3	3	4	4	4	4	2	2	-	1	1	1	36

※ 중학 : 남자 중등 학교, 고녀 : 고등 여학교

이러한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은 일제 강점 말기의 중등학교 교과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여 광복 직후 중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급히 정한 것으로 어떤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세우지 못한 채, 다만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 교육을 하려는 염원 아래 임시로 정한 것이라 하겠다. 교과목은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공민과를 신설한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를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로 바꾼 점,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치시킨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중등학교는 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제로 4년제였으며, 실업학교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실업 과목만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여, 인문계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사이의 교과 편제상 차이는 실업 과목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수업 시수는 1주일에 32~36시간으로 1일 평균 5~6시간 정도이며, 교과목의 중점은 국어가 5~7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수학 교과목의 비중이 컸다.

2. 교수요목기(1946)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은 1946년 9월 20일 제정된 국민 학교, 초급 중학교(중학교 전기 3년), 고급 중학교(중학교 후기 3년)의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을 말한다. 교수요목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급 중학교(중학교 4, 5, 6학년)의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1946년 2월 13일에 학제가 6-6-4제로 개편이 되어 중등학교의 경우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광복 직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이 없었다. 다행히 국어는 조선어 학회에서 지어 낸 ‘중등 국어 독본’이 있었고, 국사는 진단 학회에서 마련한 ‘국사’가 있었으나, 여타 교과는 학교 자율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하여 교수요목을 만들고 교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교수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였다.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결정된 새 학제가 적용되는 194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정청은 일부 교수요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1946년에 제정된 교수요목을 분석해 보면, 국어와 영어 과목의 교수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요목은 제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교수 목표나 지도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교수요목기의 고급 중학교의 교과 과정표는 <표 2>와 같다.

〈표 2〉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교육부, 2014b)

필수 과목	제4 학년	제5 학년	제6 학년
국 어	3	3	3
사 회 생 활	5	6	5
수 학	5	0	0
과 학	5	5	0
체 육 보 건	3~5	3~5	3~5
외 국 어	0~3	0~3	0~3
계	21~26	17~22	11~16
선택 과목			
국 어	2	2	2
사 회 생 활	(5)	(5)	(5)
수 학	0	5	5
과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3	1~3	1~3
미 술	1~3	1~3	1~3
심 리	0	0	5
실 업	5~18	5~20	5~25
합 계	39	39	39

- ※ 1. 필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며, 선택 과목 중 외국어는 중어, 불어, 노어, 독어로 함.
 2. 선택 과목 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 지리를 과하되, 매주 5시간씩 1년간 4, 5, 6 어느 학년에서든지 교수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생도나 이를 선택할 수 있음.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응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장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5. 일주 15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하여는 체육보건을 3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 할 수 있음.

교과 과정표를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과정표와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로 구분해서 편제한 이유는 당시의 학제가 중등 교육을 6년제의 한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한편 초급 중학교 또는 고급 중학교를 단설할 수 있도록 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① 공민·역사·지리가 사회생활과로 통합된 점, ② 체육과 보건이 합해져서 체육·보건으로 된 점, ③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이때의 교수요목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3. 제1차 교육과정(1954)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44호, 제45호, 제46호로 각각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교육과정 시기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시기라고 한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35호의 별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각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이나 목표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과 과정의 머리말에 제시된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계획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포부와 이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육성하여야 할 인간의 구체적 자태를 밝히고 그 구현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구현할 방도로서의 계획안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인격 발전의 과정과 그 주요한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의 심신 발달 과정과 생활 이상에 맞도록 배열하였다. 넷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극히 필요 적절한 것에 그쳐, 그 수와 양을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선한 최소량의 것으로 하여 학습의 부담을 경감하며, 그 중복, 혼란, 과중을 막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각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구 교육은 단편적 지식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서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서 학생의 각 방면의 욕구를 고루 충족하며, 그 개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내용은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히 요청되는 반공 교육·도의 교육·실업 교육 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도록 유의하였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부령으로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풍부한 자료 단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이라 하고, 각 학교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이 알맞은 독자적 연구와 창의를 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문교부, 1954)

교과목	학년		1년	2년	3년	내 용
	시간 수					
필수 교과	국 어(Ⅰ)		시간 140(4)	시간 140(4)	시간 105(3)	현대인의 국어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고전 일부를 넣음.
	사 회	일반 사회	105(3)	105(3)	35(1)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 사회와 공민적 자질을 신장함.
		도 덕	35(1)	35(1)	35(1)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예의를 올바르게 지도함.
		국 사	-	105(3)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함.
	수 학	140(4)	-	-	1차 함수, 2차 함수, 대수, 함수, 3각 함수, 기타 일반 교양으로 필요한 일반 수학의 기초를 연구함.	
	과 학	140(4)	-	-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과한다.	
	체 육	35(1)	35(1)	35(1)	건강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와 도수, 육상경기, 구기, 기계 체조, 수영, 율동, 체력 검사 등의 실기 지도.	
	음 악	140(4)			성악, 악기, 작곡, 감상에 대한 지도와 연구, 도화, 공작, 서도의 실기 및 그 감상에 대한 지도 연구함.	
	미 술					
	실업·가정	105(3)	105(3)	105(3)	실업·가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킨다.	
소 계	770 (22)	490 (14)	420 (12)			
선택 교과	국 어(Ⅱ)		105(3)	105(3)	105(3)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여학사, 문학사, 한문 등에 관하여 연구.
	사 회	세계사	-	105(3)		현대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계 문화의 유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고찰함.
		지 리	105(3)	-		인문 지리를 중심으로 함.
	수 학	해 석	-	105~210(3~6)		수학(Ⅰ)의 기초 위에 해석을 연구함.
		기 하	-	70~140(2~4)		수학(Ⅰ)의 기초 위에 기하를 연구함.
	과 학	물 리	140(4)			물체의 성질, 원자 물리의 기초 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화 학	140(4)			무기 화학, 유기 화학의 기초 지식에 관하여 연구함.
		생 물	140(4)			동물, 식물, 생리, 위생을 중심으로 생물 전반에 관하여 연구함.
		지 학	140(4)			지질, 광물을 중심으로 하고, 천문, 기상, 해양도 함께 연구함.

교과목	시간 수	학년			내 용	
		1년	2년	3년		
선 택 교 과	보 통 과 정	교 련	140(4)	140(4)	140(4)	남자 학생에게는 필수로 과한다. 군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하여 아울러 심신의 단련을 꾀함
		철학·교육	-	210(6)		논리, 철학 개론, 교육 원리, 교육사,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 등 중에서 그 기초를 연구함.
	체 육	0~210(0~6)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선택함.	
	음 악					
	미 술					
	외 국 어	영 어	0~175 (0~5)	0~175 (0~5)	0~175 (0~5)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되 문장,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독 일 어				
		불란서어				
		중 국 어				
	전문 과정	실업, 기타 전문 에 관한 교과	0~420 (0~12)	0~770 (0~22)	0~770 (0~22)	
특별 활동		70(2)	70(2)	70(2)		
총 계		1190~ 1365시간 (34~39)	1190~ 1365시간 (34~39)	1190~ 1365시간 (34~39)		

※ 괄호 내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제1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선형 6-3-3-4학제의 기본 취지를 교육과정령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한 이유는 단선형 학제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교육 이념은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학생들에게 계열에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계열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목을 배우거나 교과목의 시간 배당을 달리한다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계통의 상급 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약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문 고등학교와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구성을 같은 표로 구성하여 최소한의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함으로써 교육정도의 차이나 질적인 저하가 없도록 하는 데 유의하였다.

둘째, 필수 교과 외에 선택 교과를 두어 학생들 각자의 적성 및 취미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선택 교과는 학교장이 선택 결정 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케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교과와 과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교과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기로 하고, 과목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6조에 의하면 특별 활동이라 함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집회 기타 민주적 조직 하에 운영되는 학생 활동에 관한 것
- (2) 학생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개별 성장에 관한 것
- (3)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에 관한 것
- (4)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

넷째, 반공·도의 교육이 사회 생활 과목에서 단원 수준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회 과에 도덕 과목을 신설하여 매 학년 연간 35시간(주1시간)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다섯째, 교과 시간 배당에 있어 사회(국사, 세계사, 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의 경우에 2년 또는 3년간 이수할 총 시간수로 제시되어 있어 어느 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선택 과목 중 수학(해석, 기하), 외국어 등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별 기준 시간을 급간으로 표시하여 선택 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업·가정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농업, 공업, 수산업 및 가정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실업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2조에 의해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58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4. 제2차 교육과정(1963)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 제120호, 제121호, 제122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제122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개정, 공포된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교육과정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제1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상당한 시일도 경과되었다. 그 동안 문화는 발달되고 국내의 정세는 급격히 변동되어 사회생활의 양상은 크게 변하였으므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구 교육과정은 제정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애로나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고유의 교육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에 편중된 나머지 인격의 도야에 소홀하였고, 학습 활동도 표방하는 경험주의와는 달리 실생활과의 괴리가 심하여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며 자료 수집에 힘써 오던 중,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으로 공포하였다.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은 제2차 교육과정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문교부, 1963a)라고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도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대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을 제시한 다음, 학교 급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각론에서는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 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므로써 제2차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 면에서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

제2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도 계획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단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는 고등학교 3년간에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과목별로 표시한 것이며, 여기서 1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8주 기준) 동안 18 단위 시간을 이수함을 말한다. 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이수 교과목 및 이수 단위 수는 각 과목별로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어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 제2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문교부, 1963a)

교과	과목	단위수	교과	과목	단위수	
국 어	국 어 I	24	음 악	음 악 I	6	
				음 악 II	42	
	국 어 II	문법(4) 한문(6) 고전(4) 작문(4)	18	미 술	미 술 I	6
					미 술 II	42
사 회	일 반 사 회	4	실 업	농 업	14	
	국 민 윤 리	4		농 업	4	
	정 치·경 제	4		기타 과목	38	
	국 사	6		공 업	공업 일반	14
	세 계 사	6			공업 일반	4
	지 리 I	6		기타 과목	38	
	지 리 II	6		수 산	수산 일반	14
		수산 일반	4			
수 학	공 통 수 학	8	상 업	기타 과목	38	
	수 학 I	12		상업 일반	상업 일반	14
	수 학 II	26			상업 일반	4
과 학	물 리 I	6	가 정	가 정 일 반	14	
	물 리 II	12		일 반 관 리	4	
	화 학 I	6		기 타 과 목	38	
	화 학 II	12	외국어	영 어 I 영 어 II 독 어 불 어 중 국 어	1 과목 또는 2 과목	
	생 물 I	6				
	생 물 II	6				
	지 학	4				
체 육	체 육	24				

〈표 4〉에 제시된 교과목별 단위 수를 보면, 계열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공통 과목의 단위 수는 104단위이다. 그리고 인문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0단위를, 자연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10단위를, 직업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4단위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능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와 단위 수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인문 과정에 준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직업 과정에 제시된 실업과 교과목의 과정은 실업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과목 교육과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표 5〉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과정별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

공통 과목		인문 과정	
국 어 I	24 단위	국 어 II	18 단위
일반 사회	4 "	정 치·경 제	4 "
국 민 윤 리	4 "	지 리 II	6 "
국 사	6 "	수 학 I	12 "
세 계 사	6 "	물 리 I	6 "
지 리 I	6 "	화 학 I	6 "
공 통 수 학	8 "	지 학	4 "
생 물 I	6 "	농 업 일 반	
체 육	24 "	공 업 일 반	14 "
음 악 I	6 "	수 산 일 반	(남) 1 과목
미 술 I	6 "	상 업 일 반	
일 반 관 리	4 "	가 정 일 반(여)	14 "
		외 국 어	30 "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계	104 단위	계	100 단위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지 리 II	6 단위	한 문	6 단위
수 학 II	26 "	작 문	4 "
물 리 II	12 "	정 치·경 제	4 "
화 학 II	12 "	지 리 II	6 "
생 물 II	6 "	수 학 I	12 "
지 학	4 "	물 리 I	6 "
농 업 일 반		화 학 I	6 "
공 업 일 반	14 "	지 학	4 "
수 산 일 반	(남) 1 과목	농·공·상·수산	
상 업 일 반		각 과목 중(남)	38 "
가정 일반(여)	14 "	가 정(여)	38 "
외 국 어	30 "	(또는 가정 일반 14 단위와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농·공·상·수산 과목 중 24 단위)	
중에서 1 또는 2 과목)		영 어	18 "
계	110 단위	계	104 단위

둘째,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되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과정은 1학년 수료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장래의 희망에 따라 계열별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특별 활동은 제1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시간 배당 기준 표에 명시하지 않고, 총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당 시간 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문 과정의 경우 204단위의 10%인 20단위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공통 과목과 인문 과정에 주어진 각 교과목의 배당 시수를 조절하여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한 과목에서 배당된 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음악·미술 교과는 한 과목만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수도 증대시킴과 동시에 두 과목 모두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부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 기준임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인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2호로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되어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3년 3월 1일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학교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고등학교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표(문교부, 1963b)

보통 교과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국 어 18 일반사회 및 6 국 민 윤 리 국 사 4	수 학	8~16	8~16	8~16	6~16	6~12
	생 물	4~6		6~16	8~16	4~6
	화 학	4~6	4~8	3 과목 중	2 과목 중	2~4
	물 리	2~6	4~8	1 혹은 2	1 혹은 2	2~4
	지 리	2~6	2~6		2~6	2~6
공 통수 학 8 일 반관 리 4 체 육 12	정치·경제	2~4	2~4		0~4	2~4
	세 계 사			4~6		
	음악 또는 미술	2~6	2~6	2~6	2~6	4~6
	외 국 어	14~24	14~24	18~30	12~24	12~24
이수단위 52	이수단위	38~50	36~48	38~50	30~37	38~50
보통 교과목 소계		90~102	88~100	90~102	82~89	90~102
전문 교과목(필수, 선택) 소계		102~120	112~122	102~120	115~133	102~120
총계		204~222 (주당 34~ 37시간)	204~222 (주당 34~ 37시간)	204~222	204~222	204~222

이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75호(1966. 10. 4)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으로 바뀌었다.²⁾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살펴보면 그 동안 각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35호 제22조에 의한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 의해 작성되고, 또 교육법 제156조에 의하여 30% 이상의 실업 과목을 과하여 왔다. 그러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는 각 학교별 과목 총 시간 수와 과목 내용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고, 교과의 지도 목표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각 실업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됨이 없이 각 학교별로 관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 학교에서 실천해 온 경험 등을 종합하여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의 제정 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실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국가

2) 1967년 4월 15일에는 문교부령 제181호로 교육과정령을 제정하여 각각 별도로 제정, 공포되었던 각급 학교 교육과정령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은 교육과정령에 포함되어 별책 4로 되었다.

와 민족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장차 실업에 종사할 유능한 생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량의 50% 이상을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업 교과 학습 활동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중·고등학교간의 일관성이다. 교육과정 계열을 합리화하여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한편, 각 교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같은 학교의 학년별 및 각급 학교 사이의 지도 내용을 중복이나 비약 없이 확립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용성의 중시이다. 이론적 지식의 나열을 피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실용성 있는 학습경험을 선정하게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목은 가급적 폐합 조정하여 지도하기 용이하게 하고, 보통 교과목은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교과목만을 선정하였다.

넷째, 지역성의 강조이다. 지역 사회의 절실한 필요와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 짜이도록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교과의 내용과 단위 수에 많은 폭을 두고,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 교육 활동을 존중하였다.

다섯째, 단위제 채택과 시간 계획의 융통성이다.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더욱 국가적으로 유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주었다.

한편, 특별 활동, 기타 교내 활동은 학교의 자율적 계획 밑에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유의점에서 총 이수 단위수의 5% 이상을 배당하되, 총 이수 단위수 안에서 배당하여야 하며, 보통 교과목과 전문 교과목의 어느 한쪽에서만 충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5. 제3차 교육과정(1973)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공포된 문교부령 제310호, 제325호, 제350호, 제379호인 국민 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350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1976년 2월 23일 문교부령 제379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개정,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2 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68년에 국민 교육 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 이래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는 한편,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었다.

문교부는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1980년대의 교육 계획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 여론 조사를 거쳐 1970년 초 다음과 같은 개편 방침을 마련하였다.

- (1) 국민 교육 헌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 (2)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3) 교과외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으로 하고 교과화 한다.
- (4) 학년별 주당 시간을 증배한다.

이러한 개편 방침에 따라 1971년 6월부터 교육과정 전문 학자 및 편수관이 중심이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로 제2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하는 한편, 197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 교육 연구 기관 등 230 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및 여론 조사를 토대로 1973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수차례 걸친 심의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편수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거치는 등 종합 조정 절차를 거쳐 1974년 10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한국 교육 학회, 대한 교육 연합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2 차례의 공청회, 여론 청취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 수정의 과정을 거쳐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교육과정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각 학문 간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체계적인 조직'이라 정의하며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

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은 '기본 방침'의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 속에 표현되어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주요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르자는 주체성이 강조되었으며,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1)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2)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3)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1)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2)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 가치관 교육의 강화, (2)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3)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 교육을 쇄신하기 위해서, (1) 기본 능력의 배양, (2) 기본 개념의 파악, (3)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4)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에 제시된 정신을 고등학교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되, 중견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 특징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은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지적인 학습과 정의적인 학습을 조화시켜 지성, 덕성 및 풍부한 정서를 균형 있게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은 개성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있으므로,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아실현을 이룩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게 한다. 넷째, 지식과 기능 교육은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며, 판단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

제3차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은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는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는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각론은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목표는 교과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 목표로 나누어 진술함으로써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도록 하였다.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 활동은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으로 나누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제3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문교부, 1974)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어	국어 I	20~24	20~24			
	국어 II	8~10		8~10		
국사	국사	6	6			
사회	정치·경제	4~6	택 2 8~12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12~18		
	사회·문화	4~6				
	세계사	4~6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수학	수학 I	14~18	14~18			
	수학 II	8~14			8~14	
과학	물리	8~10	택 2 16~20		공통에서 제외된 2과목 16~20	
	화학	8~10				
	생물	8~10				
	지구과학	8~10				
체육	체육	14~18	14~18			
교련	교련	12	12			
음악	음악	4~6	4~6			
미술	미술	4~6	4~6			
한문	한문 I	4~6	4~6			
	한문 II	4~6		4~6		
외국어	영어 I	10~12	10~12			
	영어 II	10~12		10~12	10~12	
	독일어	10~12		택1 10~12	택1 10~12	
	프랑스어	10~12				
	중국어	10~12				
	에스파니아어	10~12				
	일본어	10~12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실업· 가정에 관한 교과	실업	기술(남)	8~10	18		
		농업	8~10			
		공업	8~10			
		상업	8~10			
		수산업	8~10			
	가정	가정(여)	8~10	18		
가사(여)		8~10				
직업에 관한 교과목		44~64				44~64
자유 선택 교과목		0~6		0~6	0~6	
소 계			140~160	44~64	44~64	44~64
교과목 총 이수 단위 수				192~210	192~210	192~210
특별 활동		12		12	12	12

※ 1. 체육, 음악, 미술의 3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2. 여학생 중,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택할 수도 있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3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 개설권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2학년부터 인문, 자연,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직업 과정에 준하여 체육, 예능, 외국어 및 기타 과정을 들 수 있게 하였다.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은 과정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키고, 과정별 선택 교과목은 해당 과정 학생에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1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을, 2, 3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을 이수시키되, 2학년에서는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 배당된 단위 수를 가급적 적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인문 과정 214 단위, 자연 과정 222 단위, 직업 과정 216 단위 등 과정별로 이수 단위를 고정시켰던 것을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별 구별 없이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는 특별 활동을 포함하여 204~222 단위로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도 폭을 줌으로써 교과 운영 면에서도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과목별로는 외국어와 한문 교육을 강화하였다. 외국어(영어 I, II, 제2 외국어)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30 단위였던 것을 최저 30 단위에서 최고 36단위로 조정하였다. 한문

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학생에게만 국어 II에서 8단위를 교육해 오던 것을 교과로 독립시켜 한문 I·II과목을 개설하고, 인문·자연·직업 과정 모두 필수로 한문 I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인문 과정은 한문 II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산업 일반, 기초 공학 및 기술 등 3개 과목을 기술로 묶어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산업 일반, 기술(여)을 가정으로 묶어 가사 과목과 함께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섯째, 자유 선택 교과목을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이수 단위는 0~6단위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자유 선택 교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하고, 1과목의 이수 단위는 최저 2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특별활동은 일반 교과 시간과는 별도로 독립시켜 3년간 12단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체육, 음악, 미술의 3개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36단위를 26단위로 감축하였다. 교과목에 붙은 I, II의 구별에 혼동이 많았던 것을 필수 과목에는 I,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II를 붙임으로써 교과목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과목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졌는데, 국어 교과목의 경우 작문·문법을 국어II에, 수학 교과목의 경우 수학 I·II 및 공통 수학을 수학 I·II로, 과학 교과목의 경우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를 각각 물리, 화학, 생물로, 음악, 미술 교과목의 경우 음악 I·II, 미술 I·II를 각각 음악, 미술로 통합하였다. 실업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 공학, 산업 일반을 기술로 통합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6년 2월 23일에 문교부령 제 379호로 개정되어 총론은 1977학년도부터, 각론은 197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문교부, 1976)

보통 과목(필수)	단위 수	보통 과목(선택)	단위 수
국민 윤리	6	사회·문화	2~4
국 어	14	세 계 사	2~6
국 사	4	지 리	2~6
정치·경제	2	수 학 II	4~16
수 학 I	8	과 학	4~12
과 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1 과목)	6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 은 과목)	
체 육	6	음 악	2~4
교 련	12	미 술	2~4
		한 문	2~4
		외 국 어	6~2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일본어 중 1 또는 2 과목)	
		기 술 (남)	4~6
		가 정 (여)	6~10
이 수 단 위	58	이 수 단 위	8~44 공업계 8~32 수산·해운계 8~24
소 계	66~102	공업계 66~90 수산·해운계 66~82	
전 문 과 목	102~156	공업계 114~156 수산·해운계 122~156	
총 계		204~222	

6. 제4차 교육과정기(1981)

제4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422 호로 제정, 고시된 유치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의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5 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1980년에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문교부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를 1980년 9월 12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개발(R & D)형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총론 및 각론 개정시안을 문교부에 보고하였고, 문교부에서는 공청회와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쳐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42 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수업 시간과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자의 수준에 비추어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적인 편제, 기초 교육과 일반 교육의 소홀,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의 반영 필요 등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기초 교육·일반 교육 강화,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강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과열 과외의 잠재 요인 제거),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 반영) 등이다.

제4차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교육과정 사조 또는 이론상의 특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소홀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 (1) 건강한 사람, (2) 심미적인 사람, (3) 능력 있는 사람, (4) 도덕적인 사람, (5) 자주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길러 내는 데 부합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 교육의 심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였다. 교육 목표에 있어서 제3차 교육과정에는 명문화된 목표가 없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목적을 두고 9개항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총괄 목적에서는 '고등학교교육은 중학교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로 각각 별도로 제시되어 있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시켰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문교부, 1981)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전문 교과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 고교 직업 과정 선택
		공통 필수	일반 고교 선택		일반 고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인문·사회 과 정	자연 과 정		
국민윤리	국민 윤리	6				농업에 관한 교과
국 어	국어(Ⅰ,Ⅱ)	14~16	14~18	8~10	3~8	공업에 관한 교과
국 사	국 사	6(4)				상업에 관한 교과
사 회	사회(Ⅰ,Ⅱ)	4~6(2~6)	4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지리(Ⅰ,Ⅱ)	4~6 (2~6) *택 1	4		택 1 2~6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기타 계열에 관한 교과
	세 계 사	2(2)	2			
수 학	수학(Ⅰ,Ⅱ)	8~14	6~8	10~18	4~18	
과 학	물리(Ⅰ,Ⅱ)	4~6		4	택 1~2 4~12	
	화학(Ⅰ,Ⅱ)	4~6		4		
	생물(Ⅰ,Ⅱ)	4~6 *택 2		4		
	지구 과학 (Ⅰ,Ⅱ)	4~6		4		
체 육	체 육	6~8	8~10	8~10	4~8	
교 련	교 련	12				
음 악	음 악	택 1	택 1	택 1	택 1	
미 술	미 술	4~6	4~6	4~6	2~6	
한 문	한문(Ⅰ,Ⅱ)		8~14	4~6	4~6	
외 국 어	영어(Ⅰ,Ⅱ)	6~8	14~16	14~16	6~16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전 문 교 과
		공통 필수	일반 고교 선택		일반 고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 고교 직업 과정 선택
			인문·사회 과 정	자 연 과 정		
	독 일 어		택 1 10~12	택 1 10~12	택 1 6~10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 국 어					
	일 본 어					
실업 · 가정	산업 기술		택 1 8~10	택 1 8~10	택 1 4~8	
	가 정					
	농 업					
	공 업					
	상 업					
	수 산 업					
	가 사					
자유 선택		0~8	0~8	0~8		
이수 단위 소 계	88~102 *(72~84)	90~116	90~116	10~38	일반 고교 직업 과정: 52~106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82~122	
이수 단위 합계	192~204					
특별 활동	12~					
총 계	204~216					

- ※ ① 각 과목의 단위 수는 3년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를 표시한 것이며, 공통 필수() 안 숫자와 * 표시는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를 밝힌 것이다.
- ② I 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 ③ 과목(I, II)에서 I은 공통 필수 과목이며, II는 과정보선택 과목이다.
- ④ 일반 고등학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학교 실정에 따라 10~38 단위를 선택한다.
- ⑤ 과정 및 계열별 선택 과목은 공통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의 3교과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통 필수()의 보통 교과를 전 과정의 40~60%의 비중으로 강화하여

전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래의 고도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각 과목을 I 과 II로 구분하고 I 은 필수로 정하였다. 셋째, 개방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기본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과의 세 과목(사회, 지리, 세계사)을 필수로 하였으며, 이 세 과목은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 과정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별로 I, II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교과목 또는 관련 교과목을 통·폐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통합 조정하여 사회 I 과 II로 재조정하였으며, 국토 지리와 인문 지리를 통합 조정하여 지리 I 과 II로 나누었다.

넷째,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축소하였다. 즉, 인문계 204~222 단위, 실업계 216~234 단위에서 일반, 실업계, 기타계가 동일하게 204~216 단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 단위는 1시간씩 18 주 이수하던 것을 17 주 이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제3차 교육과정에서 '자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0~6 단위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를 0~8단위로 늘리고 선택의 범위도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유 선택 과목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2 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7. 제5차 교육과정(1987)

제5차 교육과정은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 고시된 문교부 고시 제 87-7 호, 제 87-9 호, 제 88-7호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제 상황의 변화에 부응한다거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따른다는 비교적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제5차 개정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가 교육과정의 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문교부는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 (1)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2)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3)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년 경과, (4)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5)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문교부는 1985년 6월 17일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을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하고,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 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어서 1987년 1월 12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다. 문교부는 한국교육 개발원이 1987년 11월에 제출한 답신 보고서를 가지고 심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988년 3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개선해야 할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을 보완하려 했던 문교부의 당초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면 개정 형식의 교육과정이 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제4차 교육과정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서서히 지방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열개가 되는 준거만 제시하고 차차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율화는 한 마디로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21 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다가올 복지 국가 건설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표방하면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것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및 내용 선정 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 추가, 보완하였다. 정보 산업 과목을 신설하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창조력, 사고력 등을 강조한 것과 사회과에 있어서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효율성의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내용과 교과서 및 생활 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의 제한 등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 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 단위 배당에 있어서 기준 단위제의 최초 도입, 교과서 편찬시의 학습량의 기준 제시 등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특별 활동을 강조한 점(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의 훈련, 다양하고 풍부한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 활동 본연의 영역 외에 학교 활동에서의 생활 지도 영역을 특별 활동 내용에 삽입시키고 학급 활동 영역의 내용을 강화한 것), 특수 학급 운영 지침을 명시한 점(교육 가능한 정신 박약아, 약시, 난청 등 특수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국민 정신, 환경, 성, 경제, 컴퓨터, 해양 교육 등)의 체계적 반영 등에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문교부, 1987)

교과	과목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선택
		공통 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 사회 과정	자연 과정	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	
국민 윤리	국민윤리	6	(6)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국 어	국 어 문 학 작 문 문 법	10	(10) (4)	8 6 4	8 4	4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과학에 관한 교과
	국 사	6	(4)				체육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사 회	정치·경제 한국 지리	6 4	(4) (4)				
	세 계 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4 4 4	4	4	
수 학	일반수학 수 학 I 수 학 II	8	(8)	10	18	6	
	과 학 I 과 학 II 물 리 화 학 생 물 지구과학	10	(8) (8) 택1	8	8 8 6 6 택1	4	
체 육	체 육	6	(6)	8	8	4	
교 련	교 련	12	(12)				
음 악	음 악	4	(4)	택1		2	
미 술	미 술	4	(4)				
한 문	한 문			8	4	4	
외국어	영 어 I	8	(8)				
	영 어 II			12	12		8

교 과	과 목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공통 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 사회 과정	자 연 과 정	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선택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택 1 10	택 1 10		6
실업 · 가정	기 술 가 정		택 1 8	택 1 8		4
	농 업 공 업 상 업 수산업 가 사 정보 산업		택 1 8	택 1 8		
교양 선택			2	2		2
이수 단위						실업계·기타계: 82~122 직업 과정: 50~100
특별 활동	12	(12)				
이수 단위 총계			204~216			

※ ①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② 공통 필수 () 안 숫자는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단위 수를 표시한 것이다.

③ 과학 I은 생물, 지구 과학 영역, 과학 II는 물리, 화학 영역이다.

제5차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 영역이 제4차에서는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3개 영역이었던 것이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의 4개 영역으로 바뀐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 자율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수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였다. 즉, 종래의 급간 또는 범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던 수치 중에서 최소 단위를 기준 단위로 정하고, 2단위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물론 이때의 총 이수 단위는 204~216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감 운영은 기준 단위가 2~4 단위인 교과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6단위 이상인 교과목에 있어서도 교과목별로 2단위까지만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학문적 발전과 요구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통·폐합 또는 세분화하였다. 국어과에서는 국어 I 과 국어 II로 분류한 것을 공통 필수인 국어와 과정 선택인 문학, 작문, 문법으로 세분하여 인문·사회 과정은 3 과목, 자연 과정은 2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사회 I·II, 지리 I·II, 세계사로 분류하여 영역 분류상 모호했던 것을 정치·경제, 한국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등으로 과목명을 분명히 하였다. 과학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 과학 I·II의 8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과학 I·II,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6과목으로 통합하고, 인문·사회 과정은 2 과목(과학 I, 과학 II)을, 자연 과정은 4 과목(과학 I,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 과학 중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컴퓨터 활용 능력, 과학 기술 발달의 필요, 성 역할 개념 변천에 의한 남녀 공통 이수가 가능한 교과목의 설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실업·가정 교과에 정보 산업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으로 부과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셋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사회 I(정치·경제)과 지리 I(한국 지리)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4~6 단위인 것을 6 단위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6 단위를 4 단위로, 세계사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자연 과정에서 2 단위를 4 단위로 조정하였다. 수학은 인문·사회 과정은 14~22 단위에서 18 단위로, 자연 과정은 18~32 단위를 26단위로 각각 조정하였다. 또,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개정하고,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0~8 단위에서 2 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교양 선택을 최소 2 단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교양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교육을 도모하겠다는 뜻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택 과목으로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앞에서 제시한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 활동에서 학급 활동을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이 학생회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급 단위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사의 활동 지도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학급 활동을 학생회 활동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특별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타계의 경우 체육 계열 외에 과학 계열, 예술 계열 등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과학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편제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과학 및 예술 계열의 전문 과목 편제(문교부, 1987)

구분	학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과학계		일반수학, 수학Ⅱ, 과학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 실험, 컴퓨터과학Ⅰ, 과학사	수학Ⅲ,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 과학, 컴퓨터과학Ⅱ, 과학철학, 원서강독, 전자과학, 워크숍, 개인연구Ⅰ, 개인연구Ⅱ
	음악과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성악, 기악, 작곡, 합창, 합주, 실내악, 연주, 교양성악, 교양기악, 반주법, 기타 과목
예술계	미술과	소묘, 미술이론, 미술사	회화, 조소, 디자인, 서예, 미술이론, 기타과목
	무용과	동작법, 무용이론, 무용사, 창작실습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무용음악, 기타 과목

여섯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중 기타 과목의 경우 타 계열의 전문 교과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각 학과에서 기타 과목으로 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어느 계열에도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정하여 사전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기타 과목의 단위 수는 14단위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

8. 제6차 교육과정(1992)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 1992-11 호, 제 1992-16 호, 제 1992-19 호로 개정, 고시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

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 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 학교 및 협력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 책임자: 동국대 한명희)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 TV 공개 토론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 기관, 연구 학교 관련 학회 등 60 개 기관)가 실시되어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총론이 먼저 확정되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는 1991년 5월에 한국 교원 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대학교, 충남 대학교, 부산수산 대학교, 인하 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 기관에 각각 위탁하여 1992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 되었다.

개정 시안은 전국의 고등학교 및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되었으며, 교육부에 제출된 개정안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이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담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조정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확일성을 해소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제시하였다. 이 인간상은 다음 몇 가지 원칙 위에서 도출되었다. 첫째는 한국 교육 이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 방침을 기초로 하였고, 둘째는 21세기 한국의 사회상과 교육적 필요에 비추어 요구되는 인간 특성을 고려했으며, 셋째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 특성과의 연계성 유지를 고려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이념), 내용(행동), 운영(방법), 제도(체제) 등의 네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침은 주로 교육 목표와 내용에 국한시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결정하는 것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구성의 기본 방침을 목표, 내용면에 제한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과정 제도면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즉,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목표, 내용, 운영, 제도의 네 측면의 핵심적인 강조점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하고, 그 결과가 학교교육의 실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은 4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이 방침은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 모든 영역에 공통 교육 목표로서 작용하고, 이념적으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 공통적 방침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과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시에 이 첫째 번 기본 방침은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모든 교육 목표와 지도 중점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교과 및 특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이 육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이 방침은 주로 교육 내용 선정과 방법의 구안에 영향을 끼치는 기본 방침으로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 특성 중 교육을 통해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모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 계획하고, 교육 방법, 자료 활용, 평가 등에서도 창의성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의도되어야 한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와 특별 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어 반영하는 가운데 편성, 운영되어야 할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 방침은 교육의 방법, 운영면을 고려한 기본 방침으로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교육과정의 구성과 편성에 이 방침이 반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거해서, 공통 필수 과목만을 국가 수준에서 지정하고, 그 밖의 과목 선택 결정권을 시·도와 학교에 위임하고, 과정 설치권, 전문 과목 편성권, 이수 단위 증감권, 전문 과목 신설권, 보통 과목과 전문 과목의 교체 이수권 등의 재량권을 교육 현장에 부여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본 지침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시킨 점이 획기적인 변화이다. 우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성격’ 항을 신설하여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의 성격, 기능,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성, 제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각 학교에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바르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편성·운영 지침을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해서 제공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3) 편제, (4) 단위 배당 기준, (5)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보통 교과와 특별 활동 및 전문 교과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1992년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 1992)

가. 보통 교과

교과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과정별 선택 과목
1. 윤리	윤리(6)		과정별 필수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8)
2. 국어	국어(10)	화법(4), 독서(4), 작문(6), 문법(4), 문학(8)	
3. 한문		한문 I (6), 한문 II (4)	
4. 수학	공통 수학(8)	수학 I (10), 수학 II (10), 실용 수학(8)	
5. 사회	공통 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 지리(6)	
6. 과학	공통 과학(8)	물리 I (4), 물리 II (8), 화학 I (4), 화학 II (8), 생물 I (4), 생물 II (8), 지구 과학 I (4), 지구 과학 II (8)	
7. 체육	체육 I (8)	체육 II (6)	
8. 교련		교련(6)	
9. 음악	음악 I (4)	음악 II (4)	
10. 미술	미술 I (4)	미술 II (4)	
11. 실업·가정		기술(8), 가정(8), 농업(6), 공업(6), 상업(6), 수산업(6), 가사(6), 정보산업(6), 진로·직업(6)	
12. 외국어	공통 영어(8)	영어 I (8), 영어 II (8), 영어 독해(6), 영어 회화(6), 실무 영어(6), 독일어 I (6),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 (6), 프랑스어 II (6), 에스파냐어 I (6), 에스파냐어 II (6), 중국어 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 (6), 러시아어 II (6)	
13. 교양 선택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환경 과학, 기타 중에서 선택(4)
이수 단위	70	106	12
특별 활동	학급 활동 (12) 클럽 활동 단체 활동 (4)		

- ※ ① 보통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는 2학년부턴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들 수 있다. 다만 직업 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다.
 ②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 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③ 체육 II, 음악 II, 미술 II는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나. 전문 교과(교육부, 1992)

교 과	과 목			학 과
1. 농업에 관한 교과	농업 발전 농업 경영 환경 보전 임업 임산 가공 채소 시설 원예 농업 토목 설계 농지 개발 식품 위생 농업 동력 농업 기계 공작 생활 원예 조경 계획 농산물 판매 관리	농업 실습 농업 기계 농업 공작 산림 토목 축산 과수 양잠 농업 토목 재료·시공 식품 가공 식품 미생물 농작업기 생활 과학 농촌 보건 위생 조경 시공·관리	농업 생산 환경 생물 공학 작물 임업 경영 영양·사료 회계 건설유 농업 수리 식품 과학 식품 가공 기기 농업 기계 요소·제도 농가 경영 원예·조경 농산물 유통	농업과 임업과 축산과 원예과 집업과 지역농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생활 과학과 조경과 농산물 유통과 기타 학과
2. 공업에 관한 교과	공업 입문 기계 일반 기계 설계 기계 재료 유체 기기 전자 기계 금속 제련 금속 표면 처리 자원 개발 화약·발파 전기 이론 전기 설비 전기·전자 측정 자동 제어 전자 응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 프로그램 역학 수리·토질 건축 계획 디자인 일반 광고·사진 제조 화학 세라믹 이론 세라믹 공업 식품 제조 공정 제직 인쇄 일반 특수 인쇄 자동차 전기 중장비 구조 정비 선박 건조 비행 원리 항공기 정비	제도 전기 일반 기계 공작 금형 설계 원동기 전자 기계 회로 주조 소성 가공 자원 탐사 자원 개발 기계 전기 기기 산업 전자 전기 응용 전자 기기 계장 통신 관계 법규 프로그래밍 I 토목 재료·시공 토목 계획 건축 재료 디자인 재료 공업 화학 화공 계측 제어 세라믹 재료 도자기 섬유 재료 편성·봉제 인쇄 재료 인쇄 사진 자동차 정비 선박 이론 선박 의장 항공기 기체 항공 전자 장치	공업 실습 공업 영어 판금·용접 공업 역학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 금속 열처리 재선·제강 자원 처리 석재 가공 전력 전기·전자 재료 전자 이론 공업 계측 통신 이론 전자 계산기 구조 측량 토목 설계 건축 구조·시공 건축 법규 색채 관리 화학 공학 환경 기술 세라믹 공정 발효 공업 방직·방사 염색·가공 평판 인쇄 자동차 구조 차량 법규 선박 구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관	기계과 전자 기계과 금속과 자원과 전기과 전자과 통산과 전자 계산기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 공업과 세라믹과 식품 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기타 학과

교 과	과 목			학 과
3. 상업에 관한 교과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상업 계산 상품 기업 회계 무역 업무 프로그래밍 Ⅱ 경영 통계 그래픽 디자인 비서 실무	상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상업 실무 문서 실무 원가 회계 상업 영어 자료 처리 상업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속기	경영 개요 상업 법규 마케팅 유통 관리 일반 세무 회계 국제 경제 전자 계산 실무 상업 미술 비서 일반 사무 자동화 일반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 상업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기타 학과
4.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수산 일반 어업 해사 법규 선화 운송 수산 양식 수산 가공 열기관 기계 설계·공작 통신 운용 해양 기상	해운 일반 항해 해사 영어 수산 경영 양식 생물 질병 냉동 기계 선박 보조 기계 통신 공학 통신 실험	수산·해운 실습 선박 운용 선박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시설 냉동 설비·설계 선박 전기·전자 전자 통신 기기 자동화 선박	어업과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동력 기계과 전자 통신과 냉동 기계과 항해과 선박 운항과 기타 학과
5. 기사·실업에 관한 교과	자영 사업 일반 유아 교육 원리 노인 생활 지원 의복 구성 급식 관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실내 디자인 기타	기사·실업 실습 유아 생활 교육 복식 디자인 영양과 식품 자수 호텔 업무 관광 일본어	인간 발달 노인 복지 의복 재료·관리 조리 한국 문양 여행 관리 주거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기타 학과
6.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지구 과학 실험 컴퓨터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기타	화학 실험 과학사 수학 III 고급 생물 컴퓨터 과학 II 워크숍	생물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고급 지구 과학 과학 철학 원서 강독	
7. 체육에 관한 교과	체육 개론 체조 무용 수영 경기 사격 빙상 요트 스키 카누	스포츠 과학 수영 육상 경기 구기 경기 양궁 사이클 조정 펜싱 기타	육상 구기 체조 경기 투기 역도 골프 볼링 배드민턴	

교 과	과 목			학 과
8. 예술에 관한 교과	시창·청음 성악 합창·합주 음악 일반 미술사 디자인 동작법 무용 창작 현대 무용 기타	음악 이론 기악 실내악 소묘 회화 서예 무용 이론 한국 무용 전통 무용	음악사 작곡 연주 미술 이론 조소 미술 일반 무용사 발레 무용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9.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 I 영어 회화 II 영어 문법 I 영미 문화 II 독일어 독해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문법 I 독일 문화 II 프랑스어 독해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문법 I 프랑스 문화 II 에스파냐어 독해 I 에스파냐어 회화 II 에스파냐어 문법 I 에스파냐어권 문화 II 중국어 독해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문법 I 중국 문화 II 일본어 독해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문법 I 일본 문화 II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문법 I 러시아 문화 II 기타	영어 독해 II 영어 작문 I 영어 문법 II 영어 창해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I 독일어 문법 II 독일어 창해 프랑스어 독해 II 프랑스어 작문 I 프랑스어 문법 II 프랑스어 창해 에스파냐어 독해 II 에스파냐어 작문 I 에스파냐어 문법 II 에스파냐어 창해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I 중국어 문법 II 중국어 창해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I 일본어 문법 II 일본어 창해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I 러시아어 문법 II 러시아어 창해	영어 회화 I 영어 작문 II 영미 문화 I 고급 실무 영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작문 II 독일 문화 I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작문 II 프랑스 문화 I 실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회화 I 에스파냐어 작문 II 에스파냐어권 문화 I 실무 에스파냐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작문 II 중국 문화 I 실무 중국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작문 II 일본 문화 I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작문 II 러시아 문화 I 실무 러시아어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에스파냐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이수 단위	82~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 ㉠ 농업 계열: 농업 발전, 농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공업 계열: 공업 입문, 제도, 전자 계산 일반
 - ㉢ 상업 계열: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수산 일반(수산), 해운 일반(해운), 수산·해운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기사·실업 계열: 기사·실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과학 계열: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물 실험, 지구 과학 실험
 - ㉦ 체육 계열: 체육 개론, 육상, 체조, 수영
 - ㉧ 예술 계열: 시창·창음, 음악 이론(음악과), 소묘, 미술 이론(미술과), 동작법, 무용 이론(무용과)
 - ㉨ 외국어 계열: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각 과목 1 및 청해
- ③ 전문 교과외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다음에 제시된 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 농업에 관한 교과: 18 단위
 - ㉡ 공업에 관한 교과: 8 단위
 - ㉢ 상업에 관한 교과: 12 단위
 - ㉣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20 단위
 - ㉤ 기사·실업에 관한 교과: 12 단위
 - ㉥ 외국어에 관한 교과: 8 단위
 - ㉦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기사·실업에 관한 교과외의 실습 과목과 과학,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외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가 정한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편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실업계(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기사·실업)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시된 폐쇄형 체제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일반 교양 교육)와 전문 교과(직업 전문 교육)로 구분하여 모든 고등학교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개선하여,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보통 교과는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전체를 결정하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요소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의 창의적 자율 재량을 확대하였다.

셋째, 전문 교과는 모든 학생이 이수할 「계열별 필수 교과」만 교육부가 2~4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과별 필수 교과」는 시·도 교육청이, 「학과별 선택 교과」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전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였다.

넷째, 실업계의 경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기사·실업에 관한 전문 교과(270 과목)를

산업 구조의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 준비 기초 기능의 강화 및 중복·유사 과목의 해소 등을 위하여 대폭 통·폐합하고, 미래 사회의 산업 구조와 정보화, 첨단 기술 등의 발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문 교과를 추가하였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이수 단위를 204 단위로 조정하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2 과목 내외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3개 과정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3개 과정 외에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과정을 시·도별로 설치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여섯째, 학생의 다양한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특성별 과목을 대폭 신설하고, 교육 내용의 위계성이 강하여 선수 학습 능력이 과목 이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 외국어, 한문 등의 교과는 여러 수준의 과목을 설정하여 우수자, 부진자, 진학 희망자, 비진학자 등이 제각기 능력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곱째, 교육 내용의 시대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과학·환경 교육의 강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개선, 정보화·고도 산업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윤리 교육 및 전통 문화 교육, 예술·정서 교육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개선하였다.

여덟째, 특별활동은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지금까지의 특별활동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영역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초·중등학교의 활동 영역을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등 3개 영역으로 일원화하고, 고등학교에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단체 활동’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에 배당된 기준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10단위)과 단체 활동(4단위)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 활동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9. 제7차 교육과정기(1997)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 위원회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2)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위원회는 1996년 2월 9일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 개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 (2)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3)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제시
- (4)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교육과정 중심의 단위 학교 조직 개편 권장 등 지원 체제 확립

교육 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신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1996년 3월 19일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이 시안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 총론 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을 마련한 후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개발된 개정 시안에 대하여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 검토, 교육과정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 첫째, 목표에 있어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둘째,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 셋째,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넷째, 제도에 있어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방침은 6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생들에게 기본적 언어 능력,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판단력,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과 같은 기초적, 기본적인 교육의 충실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과제로 삼았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학교 급별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체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로 공포 또는 고시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국어, 도덕 등 10개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3학년까지 2년간은 선택 중심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알맞은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외의 경우 6차 교육과정기의 60과목에서 79과목(일반 선택 과목 26, 심화 선택 과목 53)으로, 전문 교과제의 경우 378과목에서 445과목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을 제6차 교육과정의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에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에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과 영어 교과에 적용하되, 학년을 단계로 하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에서는 엄격한 과정 구분을 폐지하였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과목 선택권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만 있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즉 선택 과목 136단위 중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하되, 학생이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 실습,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모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였다. 즉, 국가(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각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 지침을 기초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와 시·도 교

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1997년 12월 13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가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제2장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제3장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학교 급별 교육 목표,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4)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3>과 같다.

〈표 13〉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 1997a)

가. 보통 교과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도 덕	국어(8) 도덕(2)	국어 생활(4) 시민 윤리(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 회	사회(10) (국사 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수 학	수학(8)	실용 수학(4)	수학 I(8), 수학 II(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 수학(4)
	과 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4), 화학 I(4), 생물 I(4), 지구 과학 I(4) 물리 II(6), 화학 II(6), 생물 II(6), 지구 과학 II(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 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음 악 미 술	체육(4) 음악(2) 미술(2)	체육과 건강(4) 음악과 생활(4) 미술과 생활(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외국어	영어(8)		영어 I(8), 영어 II(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독일어 I(6), 프랑스어 I(6) 스페인어 I(6), 중국어 I(6) 일본어 I(6), 러시아어 I(6) 아랍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I(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 수 단 위	(56)	24 이상	112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 ①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 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 활동 4단위는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④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 교과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나. 전문 교과

교과	과목				기준 학과
농업에 관한 교과	농업 이해 생물 공학 기초 산림 자원 기술 원예 기술 I 사육 기술 II 농업 기계 공작 농촌과 농지 개발 식품 위생 환경 관리 I 조경 기술 II 기타	농업 기초 기술 재배 원예 원예 기술 II 누에와 비단 농업 기계 기술 I 농업 토목 기술 I 식품 가공 기술 I 환경 관리 II 농산물 유통	농업 정보 관리 작물 생산 기술 생활 원예 축산 잡사 기술 농업 기계 기술 II 농업 토목 기술 II 식품 가공 기술 II 조경 유통 관리 I	농업 경영 숲과 인간 생산 자재 사육 기술 I 농업 기계 농업과 물 식품 과학 환경 보전 조경 기술 I 유통 관리 II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과 농업 경영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조경과 농산물 유통과 환경 보전과 기타 학과
공업에 관한 교과	공업 입문 기계 일반 기계 공작법 기계 기초 공작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제어 주조 석재 가공 전기 응용 전력 설비 II 전자·전산 응용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토목 설계 수리·토질 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 공예 화공 계측 제어 응결·경화 세라믹 식품 공업 I 제포·봉제 평판 인쇄 자동차·건설 기계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수질 관리	기초 제도 전기 일반 원동기 공작 기계 I 전자 기계 이론 금속 재료 금속 처리 사추·지하수 전기 회로 전기·전자 측정 전자 회로 통신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토목 일반 지적 전산 건축 시공 I 색채 관리 공업 화학 뉴 세라믹 응용 세라믹 식품 공업 II 염색·가공 특수 인쇄 자동차 기관 선박 이론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정보 기술 기초 공업 영어 유체 기기 공작 기계 II 전자 기계 회로 금속 제조 자원 개발 자원 개발 조성 전기 기기 자동화 설비 계측 제어 컴퓨터 구조 멀티미디어 측량 지적 실무 건축 시공 II 조형 단위 조작 소결 세라믹 발효 공업 섬유 재료 인쇄 일반 사진·전자 제판 자동차 새시 선박 구조 항공기 기체 환경 공업 일반 기타	전문 제도 기계 설계 공기 조화 설비 산업 설비 전자 기계 공작 소성 가공 화약·발파 자원 개발 기계 전력 설비 I 전자 기기 통신 일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학 토목 재료·시공 건축 구조 건축 시공 III 제품 디자인 제조 화학 고온 세라믹 식품 제조 기계 방직·방사 인쇄 재료 사진 기술 자동차 전기 선박 의장 항공기 기관 대기·소음 방지	기계과 전자 기계과 금속과 자원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전자 계산기과 토목과 건축과 산업 디자인과 화학 공업과 세라믹과 식품 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환경 공업과 기타 학과
상업에 관한 교과	상업 경제 상업 법규 원가 회계 무역 영어 프로그래밍 실무 그래픽 디자인 비서 실무 마케팅 기타	상업 경제 상업 계산 실무 세무 회계 국제 상무 시각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사무 자동화 일반 광고 일반	상업 경제 경영 실무 회계 실무 자료 처리 사진 관광 경영 실무 사무 자동화 실무 유통 관리 일반	경영 개요 기업 회계 국제 경영 전자 계산 실무 시각 디자인 실무 비서 일반 문서 실무 유통 정보 실무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통상 정보과 정보 처리과 시각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사무 자동화와 유통 경영과 기타 학과

교과	과목				기준 학과
수산 · 해운에 관한 교과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수산물 판매 관리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해양 환경 냉동 설비·설계 기계 설계·공작 항해 선화 운송 기타	해양 일반 어업 수산 가공 기계 해양 오염 열기관 해양 토목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수산 해운 정보 처리 수산 양식 수산물 유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해양 구조물 설계·시공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어업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수산물 유통과 해양 환경과 냉동 기계과 동력 기계과 해양 토목과 항해과 선박 운항과 전자 통신과 기타 학과
가사 · 실업에 관한 교과	인간 발달 외국 조리 한국 의복 구성 한국 무늬 가구 디자인 유아 놀이·표현 지도 관광 조리 해어 미용	식품과 영양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자수 디스플레이 관광 일반 관광 영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의복 재료·관리 홀 패션 주거 유아 교육 원리 여행 업무 관광 일본어 공중 보건	한국 조리 복식 디자인 편물 실내 디자인 유아 생활 교육 호텔 업무 노인 생활 지원 기타	조리과 의상과 자수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 교육과 관광과 노인 복지·간호와 미용과 기타 학과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기타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원서 강독	생물 실험 컴퓨터 과학 고급 화학 과제 연구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컴퓨터 과학 II 고급 생물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에 관한 교과	체육 개론 수영 체조 경기 사격 사이클 볼링 카누	스포츠 과학 구기 수영 경기 양궁 골프 스키 기타	육상 무용 구기 경기 역도 요트 펜싱	체조 육상 경기 투기 빙상 조정 배드민턴	
예술에 관한 교과	음악 이론 실내악 음악 감상 미술 이론 판화 서예 무용 이론 발레 무용 창작 문학 개론 현대 문학 연극 개론 화술 전공 실기 사진 개론 암실 실기 기타	음악사 합창·합주 미술사 조소 영상 미술 무용사 현대 무용 무용 감상 문학사 시 창작 영화 개론 기초 연기 사진사 조명 실기	시창·청음 연주 소묘 디자인 동작 분석 민속 무용 문장론 소설 창작 연극사 무대 기술 기초 촬영 실기 사진 편집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회화 공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고전 문학 희곡 창작 영화사 라디오·텔레비전 중급 촬영 실기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에 창작과 연극 영화과 사진과

교과	과목				기준 학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독일 문화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 문화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기타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실무 영어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실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실무 스페인어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실무 중국어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실무 러시아어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실무 아랍어	영어 회화 영어 청해 독일어 회화 독일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스페인어 청해 중국어 회화 중국어 청해 일본어 회화 일본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 청해 아랍어 회화 아랍어 청해	영어 회화 영어 문법 독일어 회화 독일어 문법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법 스페인어 회화 스페인어 문법 중국어 회화 중국어 문법 일본어 회화 일본어 문법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 문법 아랍어 회화 아랍어 문법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국제에 관한 교과	영어 강독 중국어 강독 국제 정치 정보 과학 한국의 전통 문화 과제 연구	독일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 경제 국제법 한국의 현대 사회 예능 실습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국제 문제 지역 이해 한국어 기타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비교 문화 인류의 미래 사회	
이수단위	82~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위의 표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수산 계열), 해사 일반(해운 계열)
 - ㉤ 기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과목 | 및 청해
 -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해지며,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 단위로 배당한다.
-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명칭 통일을 위해 윤리를 도덕으로, 실업·가정을 기술·가정으로 교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술·가정은 선택에서 필수로 이수 구분을 변경하였다. 교과 편제의 제시 순서를 국어를 선두로 재조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교련·교양으로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가정 교과에 필수인 기술·가정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신설하고, 기술·가정 교과, 재량활동 등 그 외의 관련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중 국제에 관한 교과를 신설하여 국제화에 대비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신설하였다.

과목의 편제 구성은 보통 교과인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으로 구분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필수), 일반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재량활동의 신설에 따라 각 교과에 배당되는 수업 시수는 전반적으로 감축·조정하였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 중에 이수하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24단위 이상 이수하되, 학생들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1)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2)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3)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4)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5)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의 5개 과목군으로 나누고, 모든 학생은 각 과목군에서 1과목(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심화 선택 과목은 112단위 이하 이수하도록 하되, 별도의 이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와 특별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재량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3개 활동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신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량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³⁾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3)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만 편성되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1학년에만 12단위가 배당되었다. 재량활동 12단위는 교과 재량활동에 10단위(주당 5시간)를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활동에 2단위(주당 1시간)를 배정하였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4~6단위를 배정하였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특별활동의 운영에 자율성을 도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경우 집단 중심의 4개 영역(학급, 학교, 클럽 및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중심의 5개 영역(자치, 적응, 계발, 봉사 및 행사 활동)으로 조정하였다. 단위 배당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12단위, 단체 활동에 4단위를 각각 배정하고 학교 활동에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역별 이수 단위를 국가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이수할 총 단위 수만 제시하고, 영역별 이수 단위 결정권은 학교에 부여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5개 영역에 걸쳐 25개 활동을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활동을 편성, 운영할 때 각 영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시간 운영은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이수제 등을 예시하고, 시간 분할 또는 통합 운영 방안도 제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 (1)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2)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외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의 이수료 간주할 수 있다.
- (3) 2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의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 (4) 보통 교과외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5)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외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외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6) 전문 교과외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7)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2004년 11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85호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하여 총 이수단위 증배 시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의 설치나 집중 이수 과정의 개설을 금지하여, 해당 계열의 영재 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을 50%(42단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5-10호로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산업체에서만 편성·운영하던 공고 2·1체제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1체제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사 교육의 정상화 및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역량의 확보를 위하여 근·현대사 교육을 보완하고 필수화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사과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내용 요소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학습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근대사 내용 요소 일부를 삭제하였다.

2006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로 수학·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과서(보충 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연도를 밝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4>와 같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단위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 이수 단위를 6단위로(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 통일하여 학교에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예·체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은 1학년은 재량활동에서, 2·3학년은 교과에서 주당 1시간 분량(2단위, 34시간)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표 14〉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가. 보통 교과

구 분		선 택 과 목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문법(6), 화법(6), 독서(6), 작문(6), 문학(6), 매체 언어(6)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수 학	수학의 활용(6), 수학(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Ⅱ(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 학	물리(6), 물리Ⅱ(6), 화학(6), 화학Ⅱ(6), 생명 과학(6), 생명 과학Ⅱ(6), 지구과학(6), 지구과학Ⅱ(6)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 과학(6), 정보(6)
	체 육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음 악 미 술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의 창작(6)
	외국어	영어(6), 영어Ⅱ(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6), 독일어Ⅱ(6), 프랑스어(6), 프랑스어Ⅱ(6), 스페인어(6), 스페인어Ⅱ(6), 중국어(6), 중국어Ⅱ(6), 일본어(6), 일본어Ⅱ(6), 러시아어(6), 러시아어Ⅱ(6), 아랍어(6), 아랍어Ⅱ(6)
한 문 교 양	한문(6), 한문Ⅱ(6)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환경(4), 진로와 직업(4)	
이수단위	132	
특별 활동	8	
총이수단위	140	

※ 전문 교과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동일하여 생략함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로 보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교양 과목군에 보건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경과 조치로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7시간 이상의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0.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의거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베트남어 및 해당 과목 추가(교육과학기술부, 2011a), 총론의 학교 급별 편제와 시수조정, 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송통신 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처음 고시된 이후 교육부 고시 제2013-7호까지의 주요 개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현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나. 고교 교과 편제 수정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실용경제 과목 신설,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인성 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8.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일반고 자율성 강화 및 역사 교육·논술 교육 강화 등

출처: 이미숙 외(2013: 9)

이하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처음 고시될 때 제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몇 차례에 걸친 수시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총론 문서인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등의 기본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총론 문서가 고시되면 그것에 입각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던 다른 개정과 달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 총론부터 먼저 적용하여, 2011년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2011년 8월 9일에 고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통 교육과정 기간 축소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축소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택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으며, 이와 같이 공통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 및 필요에 따른 학습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학년군 및 교과군 설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 배정에서 벗어나 학년군별 총 수업시수를 배정함으로써 교과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율적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하 <표 16>과 같이,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중학교는 1~3학년으로, 고등학교는 1~3학년으로 묶여 총 수업시수를 배정하였다.

<표 16> 학년군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3학년

교과(군)은 공통 교육과정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 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 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표 17〉 중학교 교육과정 : 8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및 교과재량활동의 선택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 과목
↓	↓										
8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	선택

〈표 18〉 고등학교 교육과정 :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으로 구성

10개 교과 및 선택 과목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외국어 (영어)	체육	음악	미술	교양 과목군
	인문·사회			과학·기술			외국어	체육	예술		
↓	↓										
4개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8개 교과(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음악/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3)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 시수 자율 증감 허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수업 시수의 성격을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시수’로 전환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교과 수업 시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각 교과(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에서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한 학기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하는 교과 집중이수 시행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8개 이내’ 및 ‘교과 집중이수’를 통해서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 수를 줄여 학습을 적정화하고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다만,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 교과목 중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과외 활동, 즉 5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고, 시수도 확대하였다(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성격과 하위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성격과 하위 활동(교육과학기술부, 2011c)

영역	성격	활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자연환경 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등

나. 수시 개정 내용

- 1)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따른 각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후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수정 고시함으로써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 2) 2012년 3월 21일에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탐구교과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 일반 과목에 ‘사회’를 신설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생활·교양교과 영역 교양 교과(군)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를 신설하고, 과목 선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2012년 7월 9일에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총론 및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을 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학교 폭력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의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더불어 체육 활동의 효과에 주목하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신설하였다.
 - 4) 2012년 12월 7일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2항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c).
 - 5) 2012년 12월 13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운 능력을 졸업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각각 단위배당 기준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d).
 - 6) 2013년 12월 18일에는 일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했다.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를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국사’를 6단위 이상 이수하고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필수이수 기준을 확대하였다. 더불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였다(교육부, 2013b).

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와 편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 20〉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 2013b)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 과 (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12)		
	소 계		86(77)		94(103)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표 20〉에서 필수 이수 단위의 숫자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이며, ()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 단위이다.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키며,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자율 고등학교 포함) 편성·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한다.
- (다)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라)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마)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바)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다.
- (사)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주요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7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의 심화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보통 교과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심화 과목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보통 교과 심화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 (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

(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교육부, 2013b)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국어		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초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
	영어	기초 영어	실용 영어Ⅰ, 실용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 독해Ⅰ, 심화 영어 독해Ⅱ, 심화 영어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 과학Ⅰ,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Ⅰ, 지구 과학Ⅱ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체육 · 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투기 운동, 빙상 및 설상 운동, 표현 및 창작 운동, 스포츠경기 체력, 스포츠경기 기술, 스포츠경기 실습, 코칭론, 스포츠경영·행정, 체육 전공 실기, 전공 지도 실습
	예술 (음악/미술)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미술창작, 미술문화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공연 실습, 음악과 매체, 교양 실기 드로잉, 미술 이론, 미술사, 평면 조형, 입체 조형,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예술			디자인·공예, 영상 미술, 미술 전공 실기
					무용의 이해, 기초 한국 무용, 기초 발레, 기초 현대 무용,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무용 감상과 비평, 안무
					문학 개론, 문장론, 고전 문학 감상, 현대 문학 감상, 시 창작 입문, 소설 창작 입문, 문예 창작 전공 실기
					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기술, 영화 창작과 표현,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중급 촬영, 암실 실기, 사진 편집, 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경영 일반,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 독일어Ⅱ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회화Ⅱ, 독일어 독해Ⅰ, 독일어 독해Ⅲ,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프랑스어 회화Ⅰ, 프랑스어 회화Ⅱ, 프랑스어 독해Ⅰ, 프랑스어 독해Ⅲ,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스페인어 회화Ⅰ, 스페인어 회화Ⅱ, 스페인어 독해Ⅰ, 스페인어 독해Ⅲ,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Ⅰ, 중국어Ⅲ,		중국어 회화Ⅰ, 중국어 회화Ⅱ, 중국어 독해Ⅰ, 중국어 독해Ⅲ,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일본어Ⅰ, 일본어Ⅲ,		일본어 회화Ⅰ, 일본어 회화Ⅱ, 일본어 독해Ⅰ, 일본어 독해Ⅲ,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러시아어 회화Ⅰ, 러시아어 회화Ⅱ, 러시아어 독해Ⅰ, 러시아어 독해Ⅲ,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교과 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아랍어Ⅰ, 아랍어Ⅱ 베트남어Ⅰ, 베트남어Ⅱ 한문Ⅰ, 한문Ⅱ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중 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 경제, 논술	아랍어 회화Ⅰ, 아랍어 회화Ⅱ, 아랍어 독해Ⅰ, 아랍어 독해Ⅲ,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베트남어 회화Ⅰ, 베트남어 회화Ⅱ, 베트남어 독해Ⅰ, 베트남어 독해Ⅱ, 베트남어 작문, 베트남 문화

〈표 21〉에서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한국시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교양 교과목인 ‘논술’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 2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표(교육부, 2013b)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 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25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29)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과학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 계			65	
	전문 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기사·실업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표 23〉 전문 교과(교육부, 2013b)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 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자원과	
	생명 공학 기술	농업 영어	친환경 농업	재배	동물자원과	
	작물 생산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산림자원과	
	원예 기술	원예 전문 생산	동물 자원	중소 가족 관리	조경과	
	대 가족 관리	반려 동물 관리	숲과 인간	산림 자원 기술	농업토목과	
	조경	조경 설계	조경 시공 관리	농업과 물	농업기계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제도·설계	농업 토목 시공·측량	농업 기계	식품가공과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운전·작업	농업 기계 정비	식품 과학	농산물유통정보과	
	식품 위생	농산 식품 가공	축산·수산 식품 가공	농산물 유통	환경·관광농업과	
	농산물 유통 관리	농산물 유통 실무	환경 보전	환경 관리	생명공학기술과	
	관광 농업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업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정보기술과 활용	공업 영어	기계과
		전문 제도	기계 일반	전기와 생활	기계 구조와 기능	전자기계과
		기계 공작법	유체 기계	공기 조화 설비	기계 기초 공작	금속재료과
공작 기계		산업 설비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기과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전자과	
로봇 제작		재료 일반	금속 제조	재료 가공	통신과	
주조		금속 처리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컴퓨터응용과	
전력 설비		전기·전자 측정	전기 응용	자동화 설비	토목과	
전자 회로		전자 기기	전자 전산 응용	통신 일반	건축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화학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지적 전산	환경공업과	
지적 실무		공간 정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세라믹과	
건축 목공		건축 구조체 시공	건축 마감 시공	디자인 일반	식품공업과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공예	섬유과	
시각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조작·공정제어	인쇄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파인 세라믹	세라믹 재료	자동차과	
세라믹 원리·공정		스마트 세라믹	발효 공업	식품 분석	조선과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직·방사	제포·봉제	항공과	
염색·가공		인쇄의 이해	인쇄 재료	아날로그 인쇄	컴퓨터게임과	
제판 실제		사진	디지털 인쇄	자동차 기관	민화·애니메이션과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건설기계 구조·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영상제작과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인근과 환경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컴퓨터 게임 그래픽	민화·애니메이션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영화·방송 제작	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상업		상업 경제	회계 원리	마케팅	기업과 경영	경영정보과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정보	기업 자원 통합 관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자료 구조 상업 디자인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웹 프로그래밍 창업 일반	재무 회계 글로벌 경영 모바일 콘텐츠 상업 디자인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금융 일반 컴퓨터 일반	원가 관리 회계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래밍 실무 유통 관리 미디어 콘텐츠 일반 금융 실무	세무 회계 국제 상무 사무 관리 실무 물류 관리 미디어 콘텐츠 실무 커뮤니케이션 실무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창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수산 · 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플랜트 일반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공조 기기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기초 해양 레저·관광	해양의 이해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해양 물류 일반	수산·해운 산업 기초 수산 양식 해양 오염·방제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복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가사 · 실업	인간 발달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아동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보육 원리와 보육 교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해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보육과정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미용	급식 관리 제과·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놀이 지도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복지 서비스의 기초 메이크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 ㉡ 공업 계열 : 공업 일반, 기초 제도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 ②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모든 계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③ 전문 교과외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5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 ②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되 실습 중심 과목은 제외한다.
 - ③ 전문 교과는 학생의 경력 개발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기초 지식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 ④ 학교 자율 과정은 학교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 (나) 학과에 따라서는 세부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 (다) 교과 내용은 학교교육 목표와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 (라)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윤리, 산업 안전 보건, 노동 관계법 등의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실습 관련 교과를 지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바)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사)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아)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차)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카)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파)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 과정을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육에 대한 간급 조치기 (1945~1946)	법령 제6호	1945. 9. 29.	1945.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용어 국어 사용 ○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와 실습 금지 ○ 공민과 산설 ○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 교육 ○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체
교수요목기 (1946~1954)	고급 중학교 교수요목	1946. 9. 1.	1946.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요목: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 역사, 지리 통합: 사회 생활 - 체육, 보건 통합: 체육·보건 -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 ○ 외국어 확대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영어 - 선택: 중국어, 불어, 노어, 독어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문교부령 제 35 호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1954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 구성 - 교과와 과목 구분 ○ 연간 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팔호 안에 제시 ○ 사회교과 내에 도덕 과목 산설 ○ 특별 활동 시간 배당: 전인 교육 지향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문교부령 제 46 호 “고등 학교 교과 과정”	1955. 8. 1.	1955.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단일 교육과정 제시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문교부령 제 76 호	1958. 6. 5.	1958.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2조 개정 ○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신설
제 2 차 교육과정 (1963~1974)	문교부령 제 121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196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제 채택 - 인문계 고등학교에 과정 개설 :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 - 인문 과정 204 단위, 자연 과정 214단위 ○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 부여
	문교부령 제122호	1963. 2. 15.	1963. 3. 1.	○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도 제정
	문교부령 제207호	1969. 2. 19.	1969. 3. 1.	○ 교련 교과 신설
	문교부령 제 251 호	1969. 9. 4.	197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전용 계획에 따라 국어 I에서 한자 삭제 ○ 국어 II 한문 6단위 → 8단위 ○ 국민 교육 한장 이념 구현 ○ 남·여 공통 필수 기술 과목 신설 ○ 에스파니아어 신설
	문교부령 제274호	1971. 2. 19.	1971. 3. 1.	○ 국민윤리 교과 독립
	문교부령 제 310 호	1973. 2. 14.	1975. 3. 1.	○ 일본어 신설
	문교부령 제 325 호	1973. 8. 31.	1973. 8. 31.	○ 국사 교육 강화
제 3 차 교육과정 (1974~1981)	문교부령 제 350 호 “교육과정령” 별책 3 별책 4	1974. 12. 31.	1977.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한장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 강조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각론으로 구분 -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3)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별도 편제 - 교과 구분: 필수, 필수선택, 과정보선택 - 자유선택 과목 신설 -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교과 운영의 융통성, 신축성 부여 - 국사 교과로 독립 - 외국어, 한문, 기술 교육 강화
	문교부령 제404호	1977. 2. 28.	1977.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교과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함. ○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부설 고등학교 예외 조치 규정 ○ 특별 활동의 학생회 활동을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함.
	문교부 고시 제 424 호	1979. 3. 1.	197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체제 정비: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 형태로 개선
제 4 차 교육과정 (1981~1988)	문교부 고시 제 442 호 별책 4 “고등 학교 교육 과정”	1981. 12. 31.	1984.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 조화 -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반영 - 교육과정: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적 인간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일반,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실업계, 기타계 총 이수 단위 204~216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 - 자유 선택 과목: 선택의 범위 확대(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문교부 고시 제 85-10 호	1985. 12. 17.	198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련: 국민 정신 교육 강화, 군사 기능 관련 내용의 통합 축소 ○ 특별 활동: 학도 호국단 활동 → 학생회 활동
제 5 차 교육과정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 88-7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익 인간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목은 일반,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공통 이수 - 교육과정 단위 배당 제시는 기존의 급간제에서 기존 단위 제시로 변경 - 정보 산업 과목 신설 - 기타계 고등학교: 과학 계열, 예술 계열 교육과정제정
	문교부 고시 제 90-1 호	1990. 1. 22.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고교 비전학 학생의 직업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융통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에서 직업 과정으로 변경 가능 ○ 문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기타계 고교 과목, 계열, 학과 신설에 대한 승인
제 6 차 교육과정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199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기준 -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실업계,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 분리 제시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 개방형 체제로 전환 -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장별 필수, 과장별 선택으로 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문교부 고시 제1993-6 호	1993. 6. 30.	1993.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 - 전문 교과: 계열별 필수, 학과별 필수, 학과별 선택으로 개설 - 공통 필수 과목: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 ○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러시아 어, 진로 직업 신설 ○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 신설 ○ 군사 교육 중심 교련 교육과정을 질서 및 사고와 재능에 대비하는 안전 생활 중심으로 개정
	교육부 고시 제1997-12 호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	1997.12. 12.	199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학년: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 실습 교육 - 3 학년: 산업체 현장에서 응용 실습 교육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현장의 직무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제7차 교육과정 (1997~2006)	교육부 고시 제1997-15 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2002.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표방 ○ 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고등학교 교육 목표 신설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 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 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아랍어 신설 ○ 특별 활동: 집단 중심 → 활동 목표, 내용 중심으로 영역 설정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 고 교육과정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3개 영역으로 구성 -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 특별 활동 - 재량 활동: 교과 재량, 창의적 재량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1. 26	2005. 3. 1.	○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 총 이수단위 증배는 전문 교과에만 허용 -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학과, 과정 개설 금지 - 외고 전공 외국어 비율 50%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호	2005. 12. 28	2006. 3. 1.	○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폐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 ○ 국사 근·현대사 교육 보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 8. 29.	2009. 3. 1.	○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 - 수준별 수업 권장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2011. 3. 1.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고 1~3 학년 각 216단위 → 210단위로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고등학교: 주당 교과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 재량 활동 3시간으로 ○ 중·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 범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 ○ 선택 과목 일원화 -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통합 ○ 선택 과목군 조정 -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 9. 11.	200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과목 보건 신설 - 2009학년도 1학년 재량활동 시간 17시간 보건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2009. 3. 6.	2011.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교육 내용 재조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9~ 20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2. 23. 개정 고시	2011. 3. 1. - 1학년 2012. 3. 1. - 2학년 2013. 3. 1. -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 의 다양화 유도 ○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교육과정 기간 축소 및 선택 교육과정 기간 확대 - 학년군 및 교과군 설정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수업 시수 자율 증감 허용 - 한 학기 이수 과목 수 축소를 통한 교과 집중이수 시행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8. 9.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 2학년 2015. 3. 1. -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 ○ 고등학교 보통 교과 편제(기본, 일반, 심화 과목으로 구분)를 수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 3. 21. 수시 개정	2014. 3. 1. 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탐구 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군) 일반 과목에 '사회' 신설/ 생활·교양 영역 교양 교과 (군)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 신설 ○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7. 9.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 2학년 2015. 3. 1. -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위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총론과 일부 교과 교육과정(국어, 사회, 도덕) 개정 - 집중이수 지침 수정(체육, 예술 교과목 학기당 이수 교과 목 수 제한에서 제외)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 허용 교과에서 체육과 예술 제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 12. 13. 수시 개정	2013. 3. 1. - 1학년 2014.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단위배당 기준을 일반 고등학교의 단위배당 기준과 별도로 제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 2학년 2015. 3. 1. - 3학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	2013. 12. 18. 수시 개정	2014. 3. 1. 입학생부터 시 행(고등학교 논술 과목 편 성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전학년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 필수 이수 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 -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 범위를 3단위 범위 내로 확대 ○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사 6단위 이상 2개 학기 이상 편성 ○ 고등학교 체육 필수 이수 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 ○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에 논술 신설

[부록 IV]

실무 과목과 NCS 세분류 관계의 변화 내역

실무 과목과 NCS 세분류 관계의 변화 내역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경영· 사무과 재무· 회계과 경영· 금과	경영· 사무과	총무	총무	총무	총무	변화없음
		노무 관리	노무관리	노무 관리	노무관리	변화없음
		비서	비서	비서	비서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사무 행정	사무행정	사무 행정	사무행정	변화없음
	재무· 회계과	예산·자금	예산 자금	예산·자금	예산 자금	
		회계 실무	회계·감사	회계 실무	회계·감사	
		세무 실무	세무	세무 실무	세무	
	유통과	구매 조달	구매조달	구매 조달	구매조달	
		자재 관리	자재관리	자재 관리	자재관리	변화없음
		공정 관리	공정관리	공정 관리	공정관리	
		품질 관리	QM/QC관리	품질 관리	QM/QC관리	
		공급망 관리	SCM	공급망 관리	SCM	
		물류 관리	물류관리	물류 관리	물류관리	변화없음
		수출입 관리	수출입관리	수출입 관리	수출입관리	
		-	-	원산지 관리	원산지 관리	신설
	-	-	유통 관리	유통관리	신설	
	금융과	창구 사무	창구사무	창구 사무	창구사무	통합
		금융 상품 세일즈				
		카드 영업	카드영업	카드 영업	카드영업	
		증권 거래 업무	증권거래업무 인수업무	증권 거래 업무	증권거래업무 인수업무	
		무역 금융 업무	무역금융업무	무역 금융 업무	무역금융업무	
		보험 모집	보험모집	보험 모집	보험모집	
	손해 사정	재물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손해 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경영·금융	판매과	고객 관리	고객관리	고객 관리	고객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전자상거래	전자 상거래 실무	전자상거래		
		매장 판매	매장판매	매장 판매	매장판매		
		방문 판매	방문판매	방문 판매	방문판매		
보건·복지	보육과	영·유아 놀이 지도	보육	영·유아 놀이 지도	보육		
		영·유아 교수 방법		영·유아 교수 방법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영·유아 건강·안전·영양 지도			
	사회복지과	대인 복지 서비스	일상생활기능지원	대인 복지 서비스	일상생활기능지원	NCS 개편사항 없 어 개 정대상 에서 제외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사회복지면담 사회복지기관운영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사회 복지 시설 실무	사회복지기관운영 사회복지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면담		
	보건학과	-	-	-	-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 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디자인		
		실내 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 디자인	실내디자인		
		-	-	색채 디자인	색채디자인	신설	
		-	-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신설	
	문화콘텐츠과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콘텐츠제작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 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영화 콘텐츠 제작	영화콘텐츠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음악콘텐츠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음악콘텐츠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광고콘텐츠제작	광고 콘텐츠 제작	광고콘텐츠제작		
		게임 콘텐츠 제작	게임콘텐츠제작	게임콘텐츠제작	게임 기획	게임콘텐츠제작	분할
					게임 디자인		
					게임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만화콘텐츠제작	만화 콘텐츠 제작	만화콘텐츠제작		
	캐릭터 제작	캐릭터제작	캐릭터 제작	캐릭터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헤어 미용	헤어미용	헤어 미용	헤어미용		
		피부 미용	피부미용	피부 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네일 미용	네일미용	네일 미용	네일미용		
	관광·레저과	여행 서비스 실무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여행 서비스 실무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객실관리 접객서비스	호텔 객실 서비스 실무	객실관리 접객서비스	변화없음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카지노·유원 시설 서비스 실무	카지노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카지노 서비스 실무	카지노운영관리	카지노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분할
				유원시설 서비스 실무	유원시설운영관리		
		음식조리	조리·식음료과	한국 조리	한식조리	한국 조리	한식조리
서양 조리	양식조리			서양 조리	양식조리		
중식 조리	중식조리			중식 조리	중식조리		
일식 조리	일식·복어조리			일식 조리	일식·복어조리		
소믈리에	소믈리에			소믈리에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텐더	바텐더			바텐더	바텐더		
건설	토목과	토공·포장 시공	포장 토공 지반개량	토공·포장 시공	토공 지반개량 포장		
		측량	측량	측량	측량	변화없음	
		지적	지적	지적	지적		
		공간 정보 구축	공간정보구축	공간 정보 구축	공간정보구축		
		-	-	공간 정보 융합 서비스	공간정보융합서비스	신설	
	건축시공과	건축 목공 시공	건축목공시공	건축 목공 시공	건축목공시공		
		건축 도장 시공	건축도장시공	건축 도장 시공	건축도장시공		
		창호 시공	창호시공	창호 시공	창호시공		
		단열·수장 시공	수장시공 단열시공	단열·수장 시공	수장시공 단열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가설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철근 콘크리트 시공	철근콘크리트시공 가설시공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건설	건축시공과	건축 마감 시공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타일석공시공	건축 마감 시공	조적미장시공 방수시공 타일석공시공	
		-	-	경량 철골 시공	경량철골시공	신설
	조경과	조경 시공	조경시공	조경 시공	조경시공	NCS 개편사 항 없 어 개 정대상 에서 제외
		조경 관리	조경관리	조경 관리	조경관리	
		조경 설계	조경설계	조경 설계	조경설계	
기계	기계과	기계요소 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요소 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 제어 설계	기계제어설계	기계 제어 설계	기계제어설계	변화없음
		선반 가공	선반가공	선반 가공	선반가공	
		밀링 가공	밀링가공	밀링 가공	밀링가공	
		연삭 가공	연삭가공	연삭 가공	연삭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CAM	컴퓨터 활용 생산	CAM	
		측정	측정	측정	측정	변화없음
		성형 가공	성형가공	성형 가공	성형가공	변화없음
		방전 가공	방전가공	방전 가공	방전가공	변화없음
		레이저 가공	레이저가공	레이저 가공	레이저가공	변화없음
		위터젯 가공	위터젯가공	위터젯 가공	위터젯가공	변화없음
		플라스마 가공	플라즈마가공	플라스마 가공	플라즈마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사출 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사출 금형 제작	사출금형제작	사출 금형 제작	사출금형제작	
		사출 금형 품질 관리	사출금형품질관리	사출 금형 품질 관리	사출금형품질관리	변화없음
		사출 금형 조립	사출금형조립	사출 금형 조립	사출금형조립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금형설계	변화없음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금형제작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금형제작	변화없음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금형품질관리	
		프레스 금형 조립	프레스금형조립	프레스 금형 조립	프레스금형조립	
		기계 수동 조립	기계수동조립	기계 수동 조립	기계수동조립	
		-	-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소프트웨어개발	신설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운반하역기계설치·정비	변화없음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건설광산기계설치·정비	변화없음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기계	기계과	섬유 기계 설치·정비	섬유기계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섬유기계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공작기계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공작기계설치·정비	변화없음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고무플라스틱기계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고무플라스틱기계설치·정비	변화없음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기계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기계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승강기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승강기설치·정비	
		-	-	오토바이 정비	오토바이정비	신설
		-	-	자전거 정비	자전거정비	신설
	냉동공조과	냉동 공조 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 공조 설계	냉동공조설계	
		냉동 공조 설치	냉동공조설치	냉동 공조 장치 설치 보일러 장치 설치	냉동공조설치 건축설비설계(건설) 냉동공조설치	분할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	-	보일러 설치·정비	보일러설치·정비	신설
	자동차과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변화없음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엔진정비	변화없음
		자동차 새시 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 새시 정비	자동차새시정비	변화없음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 도장	자동차도장	자동차 도장	자동차도장	변화없음
		자동차 정비 검사	자동차정비검사	자동차 정비 검사	자동차정비검사	변화없음
		-	-	자동차 영업	자동차 영업	신설
		-	-	자동차 튜닝	자동차 튜닝	신설
	조선과	선체 가공	선체가공	선체 가공	선체가공	
		선체 조립	선체조립	선체 조립	선체조립	
		선박 도장	선박도장	선박 도장	선박도장	
		선체 품질 관리	선체품질관리	선체 품질 관리	선체품질관리	
		기장 생산	기장생산	기장 생산	기장생산	
		전장 생산	전장생산	전장 생산	전장생산	
		선장 생산	선장생산	선장 생산	선장생산	
		선실 의장 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실 의장 생산	선실의장생산	
선체 생산 설계		선체설계	선체 생산 설계	선체설계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기계	항공과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기체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엔진·프로펠러제작	
		항공기 전자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전자·전자장비제작	항공기 전자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전자·전자장비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가스터빈엔진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복기왕복엔진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왕복엔진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프로펠러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프로펠러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항공기계통정비	
		항공기 전자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전자·전자장비정비	항공기 전자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전자·전자장비정비	
		헬리콥터 정비	헬리콥터정비	헬리콥터 정비	헬리콥터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기 정비 관리	항공기정비관리	
		-	-	소형 무인기 정비	소형무인기정비	신설
재료	금속재료과	주조	주조	주조	주조	
		제선	제선	제선	제선	
		제강	제강	제강	제강	
		금속 열처리	열처리	금속 열처리	열처리	
		금속 재료 가공	단조·압출·인발	금속 재료 가공	단조·압출·인발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재료설계	금속 재료 신뢰성 시험	재료설계 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비파괴검사(환경에너지안전)	
		압연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연	열간압연 냉간압연	
		비철 금속 제련	비철금속건식제련 비철금속습식제련	비철 금속 제련	비철금속건식제련 비철금속습식제련	
		도금·도장	도금 금속도장	도금	도금	명칭변경
		전기·전자 재료	전기전자재료제조	전기·전자 재료	전기전자재료제조	
세라믹과	세라믹과	광학 재료	광학재료제조	광학 재료	광학재료제조	
		내열 구조 재료	내열구조재료제조	내열 구조 재료	내열구조재료제조	
		생체 세라믹 재료	생체세라믹재료제조	생체 세라믹 재료	생체세라믹재료제조	
		유리·범랑	유리·범랑제조	유리·범랑	유리·범랑제조	
		내화물	내화물제조	내화물	내화물제조	
		연삭재	연삭재제조	연삭재	연삭재제조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재료	세라믹과	도자기	도자기제조	도자기	도자기제조	
		시멘트	시멘트제조	시멘트	시멘트제조	
		탄소 제품	탄소제품제조	탄소 제품	탄소제품제조	
	산업설비과	판금 제관	판금제관	판금 제관	판금제관	변화없음
		-	-	배관 시공	배관시공(건설)	신설
		피복 아크 용접	피복아크용접	피복 아크 용접	피복아크용접	
		가스 텀스텐 아크 용접	가스텀스텐아크용접	가스 텀스텐 아크 용접	가스텀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CO2용접	이산화탄소·가스 메탈 아크 용접	CO2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로봇 용접	로봇용접	로봇 용접	로봇용접	
		배관	건축설비시공	(폐지)		폐지
		화학 분석	화학물질분석	화학 분석	화학물질분석	
	화학공업과	화학 물질 관리	화학물질취급관리	화학 물질 관리	화학물질취급관리	
공정 제어		화학공정설계 화학반응공정개발안전 화학공정유지운영	화학공정 유지 운영	화학공정유지운영	명칭변경	
석유 화학 제품		석유제품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 합성수지제조	석유 화학 제품	석유화학제품제조		
고분자 제품 제조		기능성고분자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고분자 제품 제조	고분자복합재료제조		
무기 공업 화학		산·알카리제조 무기질비료제조	무기 공업 화학	무기질비료제조		
정밀 화학제품 제조		계면활성제제조 접착제제조 색소(염·안료)제조 도료제조	기능성정밀화학제품 제조	색소(염·안료)제조 도료제조 접착제제조 계면활성제제조	명칭변경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범용바이오화학소재제조 특수바이오화학제품제조		
플라스틱 성형과 가공		코팅성형 컴파운딩 압·사출성형	플라스틱 제품 제조	압·사출성형 코팅성형 컴파운딩	명칭변경	
생산품질관리설비관리		계면활성제제조 석유제품제조 합성수지제조	(폐지)		폐지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섬유·의류	섬유과	방직	방직	방직	방직	
		방사·사가공	방사사가공	방사·사가공	방사사가공	
		제포	제직편직	제포	제직편직	
		염색·가공	염색가공	염색·가공	염색가공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구매 생산 관리	구매생산관리	구매 생산 관리	구매생산관리	변화없음
	생산 현장 관리	생산현장관리	생산 현장 관리	생산현장관리	변화없음	
	의류과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디자인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디자인	
		패턴 메이킹	패턴	패턴 메이킹	패턴	
		비주얼 머천다이징	비주얼머천다이징	비주얼 머천다이징	비주얼머천다이징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제직의류생산	서양 의복 구성과 생산	제직의류생산	
		니트 의류 생산	편직의류생산	니트 의류 생산	편직의류생산	
		가족·모피 디자인과 생산	가족·모피생산	가족·모피 디자인과 생산	가족·모피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소품생산	패션 소품 디자인과 생산	패션소품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한복생산	한국 의복 구성과 생산	한복생산	
		패션 상품 유통 관리	패션소품유통관리 의류유통관리 가족·모피유통관리	패션 상품 유통 관리	패션소품유통관리 의류유통관리 가족·모피유통관리	
		수력 발전 설비 운용	수력발전설비운영	수력 발전 설비 운영	수력발전설비운영	명칭변경
		화력 발전 설비 운용	화력발전설비운영	화력 발전 설비 운영	화력발전설비운영	명칭변경
		원자력 발전 설비 운용	원자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전기설비장비 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장비	원자력 발전 설비 운영	원자력발전설비운영 원자력발전전기설비장비	분할
		송변전 배전 설비 운용	송변전배전설비운영	송변전 배전 설비 운영	송변전 배전설비 운용	명칭변경
-		-	직류 송배전 전력 변환 설비 제작	직류송배전전력변환설비제작	신설	
-	-	직류 송배전 제어·보호 시스템 설비 제작	직류송배전제어·보호시스템설비제작	신설		
-	-	전기 기기 설계	전기기기설계	신설		
전기 기기 제작	전기기기제작	전기 기기 제작	전기기기제작			
-	-	전기 기기 유지 보수	전기기기유지보수	신설		
-	-	전기 설비 운영	전기설비운영	신설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전기 · 전자	전기 과	내선 공사	내선공사	내선 공사	내선공사		
		외선 공사	외선공사	외선 공사	외선공사		
		-	-	변전 설비 공사	변전설비공사	신설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제어기기제작	자동 제어 기기 제작	자동제어기기제작		
		자동 제어 시스템 운용	자동제어시스템유지장비 자동제어시스템운영	자동 제어 시스템 유지 정비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자동제어시스템유지장비 자동제어시스템운영	분할	
		전기 철도 시공 운용	전기철도시공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전기 철도 시공 전기 철도 시설물 유지 보수	전기철도시공 전기철도시설물유지보수	분할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운용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철도 신호 제어 시공	분할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철도 신호 제어 시설물 유지 보수	
	전자 · 전자	전자 과	-	-	전자 제품 기획	전자제품기획	신설
			-	-	전자 제품 생산	전자제품생산	신설
			-	-	전자 부품 기획	전자부품기획	신설
			전자 부품 생산	전자부품생산	전자 부품 생산	전자부품생산	
			전자 부품 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 부품 기구 개발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부품기구개발 전자부품소프트웨어개발	분할
			-	-	전자 제품 설치·정비	전자제품설치·정비	신설
			-	-	전자 제품 영업	전자제품영업	신설
			전자 기기 개발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전 기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기기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가전 기기 하드웨어 개발	분할
가전 기기 기구 개발	가전 기기 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하드웨어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전자 응용 기기 기구 개발						
-	-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산업용 전자 기기 하드웨어 개발	신설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전기·전자	전자과	정보 통신 기기 개발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정보통신기하드웨어개발	정보통신기하드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정보통신기하드웨어개발 정보통신기기기구개발	분할
		정보통신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기소프트웨어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 개발	반도체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제조 반도체장비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반도체제조 반도체장비	분할
		반도체 재료 제조	반도체재료	반도체 재료	반도체재료	명칭변경
		디스플레이 생산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생산	디스플레이 개발 디스플레이 생산	디스플레이개발 디스플레이생산	분할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개발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개발	디스플레이장비부품개발	
		로봇 하드웨어 개발	로봇하드웨어설계 로봇기구개발	로봇 하드웨어 설계 로봇 기구 개발	로봇하드웨어설계 로봇기구개발	분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	-	로봇 지능 개발	로봇지능개발	신설
		-	-	로봇 유지 보수	로봇유지보수	신설
		-	-	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기 인·허가	신설
		-	-	의료기기 생산	의료기기 생산	신설
		-	-	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기기 연구개발	신설
		-	-	광부품 개발	광부품 개발	신설
		-	-	레이저 개발	레이저 개발	신설
		-	-	LED 기술 개발	LED 기술개발	신설
		-	-	3D 프린터 개발	3D 프린터 개발	신설
		-	-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신설
		-	-	가상현실 시스템 설계검증	가상현실시스템설계검증	신설
-	-	가상현실 구동 엔지니어링	가상현실구동엔지니어링	신설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무선 통신 구축·운영	무선통신망구축 무선통신시스템구축	무선 통신 구축	무선통신망구축	명칭변경
		유선 통신 구축·운영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유선설비접속서비스 주피수공용통신 초고속망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유선 통신 구축	구내통신구축 네트워크구축 유선설비접속서비스	명칭변경
		-	-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구축	신설
		초고속망서비스관리운영	인터넷지원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	초고속망서비스관리운영	초고속망서비스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지상파TV방송 케이블방송 방송시스템운영 라디오방송 정보시스템운영	방송 제작 시스템 운용	지상파TV방송 방송시스템운영 라디오방송	
	정보컴퓨터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NW엔지니어링	
		사태운영및비행기운영	SW제품기획 IT시스템관리 IT기술지원	시스템 관리 및 지원	IT시스템관리 IT기술지원	명칭변경
		컴퓨터 보안	보안엔지니어링	컴퓨터 보안	보안엔지니어링	
		시스템 프로그래밍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시스템 프로그래밍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시스템SW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래밍	응용SW엔지니어링 UI/UX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응용SW엔지니어링	분할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응용SW엔지니어링 UI/UX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B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B엔지니어링	
		-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신설
		-	-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획	IOT융합서비스기획	신설
-	-	정보 보호 관리	정보보호진단분석 정보보호관리·운영 보안사고분석대응	신설		
소프트웨어 구조	SW아키텍처	(폐지)		폐지		
식품가공	식품가공과	곡물 가공	떡제조 곡류·서류·견과류가공	곡물 가공	곡류·서류·견과류가공	분할
				떡 제조	떡제조	
		식품 품질 관리	식품품질관리	식품 품질 관리	식품품질관리	
		수산 식품 가공	수산식품가공	수산 식품 가공	수산식품가공	
		면류 식품 가공	면류식품가공	면류 식품 가공	면류식품가공	
		두류 식품 가공	두류식품가공	두류 식품 가공	두류식품가공	
		축산 식품 가공	축산식품가공	축산 식품 가공	축산식품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건강 기능 식품 가공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유제품 가공	유제품가공	유제품 가공	유제품가공	
		김치·반찬 가공	김치·반찬가공	김치·반찬 가공	김치·반찬가공	
		음료·주류 가공	음료주류가공	음료·주류 가공	음료주류가공	
		-	-	농산 식품 저장	농산식품저장	신설
-	-	농산 식품 유통	농산식품유통	신설		
제과	제과	제과	제과			
제빵	제빵	제빵	제빵			

교과 군	기준 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인쇄·출판·공예	인쇄·출판과	프리프레스	프리프레스	프리프레스	프리프레스	
		평판 인쇄	평판인쇄	평판 인쇄	평판인쇄	
		특수 인쇄	특수인쇄	특수 인쇄	특수인쇄	
		후가공	후가공	후가공	후가공	변화없음
		출판 편집	편집디자인 편집	출판 편집	편집디자인 편집	
	공예과	금속 공예	귀금속가공 금속공예	금속 공예	금속공예	
		도자기 공예	도자기공예	도자기 공예	도자기공예	
		목공예	칠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석공예	석공예	석공예	
		섬유 공예	섬유공예	섬유 공예	섬유공예	
		보석 감정	보석감정 귀금속품위감정	보석 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보석디자인 주얼리마케팅 보석가공	귀금속·보석 디자인	귀금속가공 보석디자인	개편
환경·안전	환경보건과	환경 공정 관리	수질공정관리 대기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수질 관리	수질오염분석 수질공정관리 수질환경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	개편
		환경 측정 관리	산업환경보건 대기환경관리 수질오염분석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대기 관리	대기환경관리 온실가스관리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	
				소음 진동 측정	소음진동측정분석평가	
		환경 보건 관리	산업환경보건	산업 환경 보건	산업환경보건	명칭변경
		환경 생태 관리	생태관리 생태복원	환경 생태 관리	생태관리 생태복원	
	생활 환경 관리	실내공기질관리 지역사회위생관리	(폐지)		폐지	
	산업안전과	기계 안전 관리	기계안전관리	기계 안전 관리	기계안전관리	
		전기 안전 관리	전기안전관리	전기 안전 관리	전기안전관리	
		건설 안전 관리	건설안전관리	건설 안전 관리	건설안전관리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환경·안전	산업안전과	화공 안전 관리	화공안전관리	화공 안전 관리	화공안전관리			
		-	-	가스 안전 관리	가스안전관리	신설		
		비파괴 검사	비파괴검사	(폐지)		폐지		
농림·수산해양	농업과	수도작 재배	수도작재배	수도작 재배	수도작재배			
		전특작 재배	전특작재배	전특작 재배	전특작재배			
		종자 생산	종자계획 종자생산 종자유통보급 육종	육종	육종	종자 생산	종자계획 종자생산 종자유통보급	분할
				종자 유통 보급	종자유통보급			
				농업 환경 개선	농업환경개선			
		농촌 체험 상품 개발	농촌체험상품개발	농촌 체험 상품 개발	농촌체험상품개발			
		농촌 체험 시설 운영	농촌체험시설운영	농촌 체험 시설 운영	농촌체험시설운영			
		-	-	농산물 품질 관리	농산물품질관리	신설		
	원예과	채소 재배	채소재배	채소 재배	채소재배			
		과수 재배	과수재배	과수 재배	과수재배			
		화훼 재배	화훼재배	화훼 재배	화훼재배			
		화훼 장식	단위화훼장식	화훼 장식	단위화훼장식 (인쇄·목재·가구·공예)			
	산림자원과	임업 종묘	임업종묘	임업 종묘	임업종묘			
		산림 조성	산림조성	산림 조성	산림조성			
		산림 보호	산림보호	산림 보호	산림보호			
		임산물 생산	임산물생산	임산물 생산	임산물생산			
		버섯 재배	버섯재배	버섯 재배	버섯재배			
		펄프 제조	펄프·종이제조	펄프·종이 제조	펄프·종이제조	명칭변경		
		목재 가공	가금사육	목재 가공	목재가공			
		산림 이용	산림개발	(폐지)		폐지		
	동물자원과	가금 사육	목재가공	가금 사육	가금사육			
젖소 사육		젖소사육	젖소 사육	젖소사육				
한우 사육		한우사육	한우 사육	한우사육				
돼지 사육		돼지사육	돼지 사육	돼지사육				
말 사육		말사육	말 사육	말사육				
종축		종축	종축	종축				
사료 생산		사료생산	사료 생산	사료생산				

교과군	기준학과	현행		개정(안)		비고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실무 과목명	관련 NCS 세분류명		
농림·수산해양	동물자원과	동물 약품 제조	동물약품제조	동물 약품 제조	동물약품제조		
		-	-	애완동물 미용	애완동물미용	신설	
		-	-	수의 보조	수의보조	신설	
		-	-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바이오의약품제조(화학)	신설	
	농업토목과	농업 환경 개선	농업환경개선	농업 생산 환경 조성	농업환경개선	분할	
	해양생산과	연안 어업	연안어업	연안 어업	연안어업	NCS 개편사항 없 어 개정대상 에서 제외	
		근해 어업	근해어업	근해 어업	근해어업		
		원양 어업	원양어업	원양 어업	원양어업		
		내수면 어업	내수면어업	내수면 어업	내수면어업		
		염 생산	염생산	염 생산	염생산		
		어업 자원 관리	어업자원관리	어업 자원 관리	어업자원관리		
		어업 환경 개선	어업환경개선	어업 환경 개선	어업환경개선		
	수산양식과	해면 양식	해면양식	해면 양식	해면양식		
		내수면 양식	내수면양식	내수면 양식	내수면양식		
		수산 종묘 생산	수산종묘생산	수산 종묘 생산	수산종묘생산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수산질병관리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수산질병관리		
	해양레저과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촌 체험 시설 운영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어촌체험상품개발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어촌체험상품개발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수상레저기구조종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수상레저기구조종(안전운항)		
		-	-	일반 잠수	일반잠수(건설)	신설	
		-	-	산업 잠수	산업잠수(건설)	신설	
	선박운항	항해과	항해	항해	선박 운항 관리	항해	분할
				선박 안전 관리			
선박 통신		선박통신	선박 통신	선박통신	변화없음		
기관과		선박 갑판 관리	선박갑판관리	선박 갑판 관리	선박갑판관리	변화없음	
		선박 기관 운전	선박기관운전	선박 기기 운용	선박기관운전	분할	
	기관사 직무						
선박 기관 정비	선박기관정비(기계)						
선박 보조기계 정비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1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017)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1c).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26]
- 교육과학기술부(201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별책 1]
- 교육과학기술부(2012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별책 1]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 교육부(199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 1]
- 교육부(1997b).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총론. 교육부
- 교육부(2013a). 보도자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3. 10. 29.)
- 교육부(2013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별책 1]
- 교육부(2013c).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 보도자료(‘13. 08. 28.)
- 교육부(2014a).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14. 09. 24.)
- 교육부(2014b).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 교육부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교육부(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 교육부(2015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별책 1]
- 교육부(2015d).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별책 1]
- 교육부(2015e).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별책 1]
- 교육부(2015f).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1]
- 교육부(2015g).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별책 1]
- 교육부(2015h).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별책 1]
- 교육부(2015i).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15. 09. 23.)
- 교육부(2015j).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42]
- 교육부(2015k).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 국가 융합 기술 발전 기본 계획(2009~2013)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제8차 국민대토론회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 김경자 외(2015a).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총괄). 교육부
- 김경자 외(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 문교부(1954).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문교부령 제35호
- 문교부(1963a). 고등학교교육 과정. 문교부령 제121호
- 문교부(1963b). 실업고등학교교육 과정. 문교부령 제122호
- 문교부(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50호[별책 3]
- 문교부(1976).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79호[별책 4]
- 문교부(1981). 고등학교교육 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별책 4]
- 문교부(1987). 고등학교교육 과정. 문교부 고시 제88-7호[별책 1]
- 미래창조과학부(2014). '국가융합기술 발전전략'. 보도자료('14. 03. 04)
- 민용성, 정민주, 문영주, 이태상, 조규판, 최병택(2009).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6
-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양정실, 이광우, 이근호, 이미경, 이미숙, 이승미, 이혜원, 정영근, 한혜정(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 이무근, 이용환, 정철영, 배진한, 최애경, 이종성, 정태화, 나승일(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부
- 이미숙, 박순경, 백경선, 김진숙, 민용성, 이근호, 이승미, 김사훈, 박명옥, 민부자(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증보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13
-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송병국, 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규호(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원정책의 대응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68차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 황규호, 강태중, 박하식, 백경선, 이영호, 이현주, 임유원, 정광희, 진동섭, 한혜정, 홍은숙(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교육부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13). PISA 2015 draft science framework. Retrieved April 27, 2015, from <http://www.oecd.org/pisa/pisaproducts>

【 참고사이트 】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http://www.ncic.go.kr/>
국가직무능력표준(NCS) <http://www.ncs.go.kr/>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knise.kr/jsp/knise/index.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http://up.kcue.or.kr/>
AP 관련 사이트 <https://www.collegeboard.org>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